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2017년 8월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고 수 희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송 식

2017년 8월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고 수 희

고수희의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15일

위원장

차炳鉉



위원

박보람



위원

김진영



위원

김희우



위원

최송환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방법	6
3. 연구범위와 한계	7

II. 이론적 배경

1. 행복의 개념과 결정요인	10
1) 행복의 개념	10
2) 행복의 측정	13
3) 국가별, 지역별 행복지수 비교	17
2. 지역사회 행복 척도로서의 사회의 질(Social Quality) 관점	23
1) 사회의 질 개념의 성립 배경과 이론적 의미	24
2)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요건	35
3) 지역사회 행복연구에서 사회의 질 관점이 갖는 유용성	40
3. 제주지역의 특성	45
1) 제주, 제주사회, 제주인 :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47
2) 제주지역의 사회문화적 인식	51
3) 제주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특징	59
4) 제주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환경변화	62
5) 제주지역 삶의 행복에 있어 사회의 질이 갖는 의미	65
4. 선행연구 고찰	68

Ⅲ. 조사설계

1. 연구모형	80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81
3. 변수의 설정 및 측정도구	83
4. 자료분석 방법	91

Ⅳ. 조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92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114
3. 다중회귀분석 결과	117
4. 논의 및 함의	127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40
부록 1. 설문지	160
부록 2. 사회의 질 하위지표 목록	167
Abstract	171

표 목 차

<표 II-1> 복지상황(welfare position)의 구분	15
<표 II-2> 행복영향요인 구성과 출처	16
<표 II-3> 행복도 관련 국제 지수 비교	19
<표 II-4> 행복도 관련 국내 지수 비교	22
<표 II-5> 사회의 질과 삶의 질 관점 비교	30
<표 II-6> 사회의 질의 구조	32
<표 II-7> 사회의 질 영역	34
<표 II-8> 사회의 질 영역별 측정 지표	42
<표 III-1> 제주도 20대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대별 분포	82
<표 III-2> 변수 및 척도의 유형과 내용	84
<표 III-3> 행복지수 모델 부합도 지수	86
<표 III-4> 사회의 질 측정 문항	88
<표 III-5> 사회의 질 분석 문항	89
<표 III-6> 사회의 질 모델 부합도 지수	90
<표 IV-1> 인구사회학적 특성	94
<표 IV-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96
<표 IV-3>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97
<표 IV-4> 연령에 따른 차이 검증	98
<표 IV-5>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 검증	100
<표 IV-6> 종교에 따른 차이 검증	102
<표 IV-7> 학력에 따른 차이 검증	105
<표 IV-8> 직업에 따른 차이 검증	106
<표 IV-9>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109

<표 IV-10> 제주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검증	111
<표 IV-11> 현재 사는 동네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검증	112
<표 IV-12> 지역에 따른 차이 검증	114
<표 IV-1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116
<표 IV-14> 사회의 질이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118
<표 IV-15> 사회의 질이 긍정적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	121
<표 IV-16> 사회의 질이 부정적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	123
<표 IV-17> 사회의 질이 전체 행복에 미치는 영향	126

그림 목 차

<그림 II-1> 사회의 질 사분면과 네 가지 요건	33
<그림 III-1> 연구모형	8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UN이 지난 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2016년 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136개국 중 5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나 건강기대수명이 양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UN 보고서뿐만 아니라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2016)의 보고 내용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추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이라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¹⁾이며,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²⁾.

앞의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내용 중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설명요인(1인당 GDP, 건강기대수명)이 양호해졌음에도 주관적 인식(사회적 지지,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특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

1)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또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을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서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행복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각국의 행복도 차이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를 놓고 보면, 국가 간 행복도 차이에서 경제적 성취의 설명력은 낮아지고, 대신에 사회적 차원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정해식, 2016: 1-4).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부가 시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수준이 넘어가면 소득과 행복이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³⁾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GDP 중심의 정책에 대한 변화의 인식이 높아졌다(김동영 외, 2016: 4). 국민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국민소득을 활용해왔지만 그 자체가 국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이 스스로 체감하는 행복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진 것이다.

그동안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것이 GDP를 비롯한 경제적 지표들이었다. 객관적 기준 하에서 계량화가 용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했지만, 이제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 증가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질적 풍요로움과 더불어 주관적인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지표들이 행복의 절대요소가 아니며,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지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박승규 외, 2014: 17-18)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 알려진 부탄(Bhutan)의 사례에서 보듯이,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수준과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의 행복감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다른 사회의 욕구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삶의 만족을 평

3) Easterlin(1974)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지만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에 도달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증가수준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이스털린 패러독스(Easterlin paradox)’라 하는데, 핵심적인 메시지는 물질적 부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해주리라는 근대화주의의 이념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훈희, 2016: 2).

가할 필요가 있다(Veenhoven, 1989; 박승규 외, 2014: 18 재인용).

실제로 경제적 요인 외에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이다.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거주지역, 직업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⁴⁾ 여가활동(Dolan et al., 2008), 사회적 관계(Caunt, 2013), 사회적 자본(Sarracino, 2012) 등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매해 발표되는 UN 세계행복보고서는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공동체 유대 측면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박승규 외, 2014: 19). 한편 환경 또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문세영, 2017)⁵⁾으로 알려졌는데, 행복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오히려 행복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해 모여 들면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행복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제적 부문 등 객관적 지표 수준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삶의 질 수준이 반드시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

분명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이처럼 외부요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경쟁과 부의 추구는 소수의 행복으로 이어져, 좌절된 욕구가 많아지게 되는 박탈된 환경을 초래한다. 따라서 만족할 수준의 자기목표와 그것의 실현이 괴리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4) 성별(Wood et al., 1989; 조명한 외, 1994; 차경호, 1999; Nolen-Hoeksema & Rusting, 1999; 김명소 외, 2003), 연령(Inglehart, 1990; Argyle, 1999; Gerdtham & Johannesson, 2001; Gerdtham & Johannesson, 2001; Frijters & Beaton, 2008; 주재선, 2008; 최말옥, 2011), 결혼상태(Diener et al., 1999; Kahneman et al., 1999; Myers, 2000; Myers, 2003; Diener et al., 2008; Eid & Larsen, 2008; Vinson & Ericson, 2014), 종교(Kaldor et al., 1984; Witter et al., 1985; Inglehart, 1990; Childs, 2010; Wyshak, 2016), 학력(Gerdtham & Johannesson, 2001; Ball & Chernova, 2008; 최말옥, 2011; Vinson & Ericson, 2014), 거주지역(Gerdtham & Johannesson, 2001; 이미애, 2015; Tomy et al., 2017; Valentini et al., 2017), 직업(Inglehart, 1990; Argyle, 2001; 주재선, 2007; Selim, 2008) 등

5)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2608_2892.html

중요한데, 환경적으로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사회의 질 (Social Quality)⁶⁾’이다.

결국, 행복도는 개인의 행복과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행복이 통합된 형태로 결정된다. 따라서 궁극적인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또는 개인이 획득한 삶의 조건과 함께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조건이 합쳐져 행복도를 결정하는 것(박승규, 2014: 83)이며, 여기서 ‘사회의 질’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통합정도를 가리키므로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의 삶의 상황(Life Situation)으로 보아 행복의 구성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고승희 외, 2012: 45). 즉 궁극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을 통합한 행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질은 ‘그 사회의 품격’(이재열, 2015: 3)으로서, ‘사회적 맥락상의 일상의 질’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유럽에서 등장하여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사회의 질이 주관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Lin et al., 2009; Walker, 2009; Ward & Meyer, 2009; Yuan & Golpelwar, 2013; 이미애, 2015). 사회의 질 관점은 사람들에게 안녕(well-being)을 제공하는 사회를 목표(Therborn, 2001: 23)로 하므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 따라서 사회의 질은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를 측정하는 개념적 대안(이재열, 2015: 14)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제기구 차원의 국민행복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나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하여 결핍된 부분을 충족

6) 우리나라에서 Social Quality는 ‘사회적 질’ 또는 ‘사회의 질’로 번역되어 사용되어 왔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도 Social Quality를 ‘사회의 질’로 번역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⁷⁾. 특히 최근에는 지역의 발전을 중요시 여겨 마을단위⁸⁾ 혹은 지역단위의 접근을 활성화 하는 추세이다⁹⁾.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주지역은 어떠한가?

제주지역은 지금 변화의 중심에 있다. 꾸준한 인구유입과 지역개발로 비롯된 도시화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기존의 평온한 섬의 이미지를 탈피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제주지역의 변화는 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제주지역과 주민들의 삶의 정체성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접근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가치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사회의 질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의 질 관점은 지역발전에 있어 성장단계를 거쳐 성숙단계로 진입하는 시점, 혹은 지향하는 시점에서 정책적인 유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장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반면, 사회의 질 관점은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며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정책지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호 외, 2013: 15-16)이다. 기존의 행복연구가 주로 국가차원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제주지역에서 사회의 질 관점을 적용하여 행복을 고찰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는 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의 시대적인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7) 통계청이나 보건사회연구원 차원의 조사와 더불어, 서울(2006, 2015), 대전(2007), 경기(2009), 제주(2010), 강원(2012), 충남(2012), 부산(2013), 울산(2014) 등 각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결정요인을 고찰하고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8)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마을의 특성과 인적 역량을 살려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9) 2014년에 발생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5. 7. 1 시행)’이 제정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또한 그간의 시·군·구 차원에서 읍·면·동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특성을 지닌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드문 상황, 더불어 제주지역을 읍·면과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행복의 원인과 수준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제주지역 주민의 행복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제주지역의 읍·면과 동지역 전반의 행복수준을 기술적으로 자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과 지역주민의 행복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련성을 밝혀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과 행복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제주지역의 특성(동지역/읍·면지역)에 따른 사회의 질과 행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의 질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1. 사회의 질은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2. 사회의 질은 긍정적 정서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3. 사회의 질은 부정적 정서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 주민들의 행복이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 덧붙여 제주지역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양태는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행복의 개념과 결정요인을 검토하였고, 사회의 질의 이론적 성립 배경과 의미, 주요 요건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의 대상 지역인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연구는 제주지역의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의 질 수준 측정은 서울시의 '세계 10대도시 행복도 측정문항'을 활용하였고, 행복지수 측정은 '한국인의 행복지수 척도'(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 2010)로 개발된 단축형 행복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주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검증, ANOVA, 상관관계분석 및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각 변수들 간의 구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였다.

3. 연구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이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과 지역주민의 행복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련성을 밝혀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의 범위에는 행복의 개념, 사회의 질 관점, 제주지역의 특성과 관련한 내용과 선행연구가 포함된다. 먼저 행복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결정요인을 국가별, 지역별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사회의 질 관련하여서는, 그 이론적 성립 배경과 의미, 사회의 질 주요 요건들을 살펴보았고 지역사회 행복연구에서 사회의 질 관점의 유용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사회의 질, 행복지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사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개념화와 이를 통해 측정도구를 설정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대상지역이 제주지역임에 따라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찰하였는데, 제주, 제주

사회, 제주인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인식,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특징, 최근의 제주지역 환경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조사연구의 범위는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과 행복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을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 차원에서 영역별로 평가하여 제주지역에서의 삶의 어떤 측면이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지, 또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조사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함의를 도출하고 제주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모색하는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규모에 있어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사회의 질 접근은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이나 대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을 고려하면 중소도시 규모, 특히 도농복합의 특징을 띠는 읍·면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에 대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질 관점은 지역발전에 있어 성장단계를 거쳐 성숙단계로 진입하는 시점 혹은 그것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정책적인 유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인구·사회·환경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 관점을 적용하였다는 차별성이 있다.

둘째, 조사연구 설문문항에 있어서, 사회의 질 이론상의 모든 하위지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는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연구이므로 사회의 질 이론의 하위지표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문문항을 선정하였고, 사회의 질 관점에 근거하여 사회의 질 사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셋째, 행복의 측정과 관련한 문제이다. 행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행복연구에 있어 항상 논쟁이 있어왔던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 있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행복수준의 시계열적 비교가 어려우므로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행복의 개념과 결정요인

1) 행복의 개념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저마다 서로 다른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이다. 행복에 대해서도 각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감지하는 행복이라는 차원의 느낌은 객관적으로 지수화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김경동 외, 2007: 7)이며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개념 정의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철학과 심리학에서 출발한 행복연구는 경제학, 사회학 등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행복이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김운태, 2009: 24).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 행운 등을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생활의 '좋은 상태(well-being)'가 지속되는 것을 행복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개인과 집단의 행복정도를 다루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도 행복은 '웰빙(well-being)',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satisfaction of life)' 등과 같은 용어와 동일시되어 왔다(Graham, 2011; 변미리, 2015: 8 재인용). 이렇게 행복의 개념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성공적인 삶', '좋은 삶'으로 대체되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이라는 개념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능가하게 되었다(고승희, 2012: 7). 또한 행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인지상태와 정서상태가 중요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 또는 심리적 안녕감이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는 욕구 충족이라는

행복의 유발요소보다는 정적인 정서와 주관적인 만족감이라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증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행복을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적인 정서, 부적인 정서요소(Diener & Emmons, 1984)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인지요소(Andrew & Withey, 1976)가 중요시 된다(이수정 외, 2005: 124-125).

한편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이 심리적인 행복의 구조에 관해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으며 개인의 행복을 판단하는 데 외부의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Ryff(1989)는 “심리적 기능이 건강하고 원활한 상태”를 행복으로 정의하고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이러한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존의 심리학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utte & Ryff, 1997; 이수정 외, 2005: 131-132 재인용).

행복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동향인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Seligman (2002)은 행복(happiness)과 웰빙(well-being)을 서로 맞바꾸어도 전혀 상관성이 없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며, 행복한 삶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휘하여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행복의 주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행복의 객관적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안녕(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평가를 가리킨다. Veenhoven (1984)은 삶의 만족을 생애 기간과 지속성에 따라 일시적 만족, 범주적 만족, 좋은 경험, 생활의 만족으로 구분했는데, 그는 행복을 “개인의 전반적 삶에서 지속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보았다(김윤태, 2009: 24).

Goldman(2017)은,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의 판단으로 간주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균형으로 간주되는 것에 착안하여, ‘행복은 감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행복은 판단, 감정, 신체증상 및 행동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요소로 분석되는 클러스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Goldman, 2017: 1).

OECD는 행복을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로 정의하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행복을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 알려진 부탄의 GNH는 행복을 웰빙(well-being)과 유사한 의미로 파악하여 “좋은 삶(good life)의 조건들이 충족된 삶의 상태”¹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학¹¹⁾의 안녕(well-being)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물질적,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김기덕(2009) 또한 행복(happiness)과 안녕(well-being), 그리고 복지(welfare)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정해식, 2012: 47)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행복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good society)이고, 어떤 삶이 좋은 삶(good life)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용어로 활용되는 ‘복지’, ‘웰빙’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를 다루는 ‘삶의 질’과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를 다루는 ‘사회의 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며, ‘사회의 질’은 ‘시민들이 그들의 삶의 질과 개인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Walker & van der Maesen, 2004)로 정의된다(고승희, 2012: 44-45).

10) <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articles/>

11)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社會福祉)’라는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학문이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인간다운 삶,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안녕(well-being)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가 행복한 사회를 표방하면서도 그간 행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다른 학문에 비해 뒤쳐진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여러 행복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개념을 “각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주체로서 느끼는 안녕감(well-being)”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삶의 질’과 그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을 구성하는 ‘사회의 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행복의 측정

과연 행복이 측정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는 Veenhoven(1993, 2000)이 정리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은 없는가? 둘째, 자기보고(self-report)식 설문이 각 개인의 실제 행복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셋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향유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설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논쟁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감(happiness)은 심리 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측정은 주관적 인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객관적 지표들은 제한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 둘째, 설문은 실제의 행복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받기 이전까지는 그들의 삶에 대해 평가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행복의 정도에 대한 응답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asterlin, 1974: 96). 사람들이 자기보고식 행복의 정도와 그것을 시사할만한 지표에 대한 응답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Easterlin, 1974: 97) 것으로 미뤄볼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 정도를 대체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설문의 응답은 대체로 그들의 실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에 따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의 편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결론은 행복수준을 보고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편향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실패하였으며, 체계적 왜곡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Veenhoven, 1993: 57-61).

한편, 사람들이 안녕한 삶을 사는 것, 즉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와 이런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사회정책의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이유로 행복을 정의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접근의 핵심에 '삶의 질(quality of life)' 접근이 놓여있다(정해식, 2012: 48). 삶의 질을 개념화 하고 측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북유럽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삶의 수준(level of living)' 접근으로, 이것은 복지를 '삶의 조건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에 대한 각 개인의 통제수준'으로 정의한다(Erickson, 1993: 72-73). 또 다른 하나는 북미국가의 접근방식으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초점을 두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조건을 통해 이러한 조건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Berger-Schmitt & Noll, 2000: 10).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심리학 내에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이것의 구성요소인 정서 상태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Diener, 1984: 1994), 행복의 지표로는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널리 이용되어 왔다(이수정 외, 2005: 134).

최근에 유럽연합이나 OECD에서 제시하는 사회지표 틀은 이와 같이 개인의 행복을 측정함에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안녕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판단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물질적 자원이 풍부해도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물질적 자원의 결핍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객관적 자원과 주관적 인식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각자의 안녕을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Zapf(1984)는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네 가지 복지상황을 다음 <표Ⅱ-1>과 같이 상정하고 있다(Berger-Schmitt & Noll, 2000: 11).

<표 II-1> 복지상황(welfare position)의 구분

객관적 삶의 조건 (Objective Living Conditions)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좋음(Good)	나쁨(Bad)
좋음(Good)	안녕(Well-Being)	부조화(Dissonance)
나쁨(Bad)	수용(Adaptation)	박탈(Deprivation)

※ 출처 : Zapf(1984), p.25, Berger-Schmitt & Noll(2000), p. 11, 정해식(2012), p. 49. 재인용.

한 개인의 객관적 삶의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그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의 상태 역시 좋은 경우는 안녕의 복지상황에 있는 것이다. 반대로 객관적 삶의 조건도 열악하고 주관적 안녕의 인식 역시 나쁜 상태는 박탈의 복지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 두 상황은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안녕상태가 일치한다. 그러나 인식의 차원으로 구성되는 주관적 안녕이 항상 객관적 조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삶의 조건은 좋는데 주관적 안녕이 열악한 상태는 부조화의 복지상황이고, 객관적 삶의 조건은 열악하지만 주관적 안녕의 상태가 좋은 경우는 객관적 삶의 조건을 수용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정해식, 2012: 49).

행복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객관적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총합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다. 객관적 차원에서의 행복은 흔히 인구사회경제적 지표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직업, 소득 등의 삶의 구성요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의 반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수준의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이며, 누가 이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반면 주관적 차원의 행복은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의 부재 등 통상적으로 안녕감이라고 불리는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의미한다(황규선, 2012: 9). 실제로 경제적 요인 외에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이다. 매해 발표되는 UN 세계행복보고서는 높은 소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공동체 유대 측면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박승규 외, 2014: 19).

한편 전지훈(2016)은 행복의 영향요인을 다음 <표 II-2>와 같이 개인적 차원, 행정적 차원, 생활환경 차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표 II-2> 행복영향요인 구성과 출처

영향요인	조작적 정의	근거문헌	
건강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상태	Maslow(1999), Subramanian et al.(2005), Argyle(2001), Diener & Lucas(1999)	
성별/연령	개인의 성별과 연령	Welsch(2009), Frey & Stutzer(2002)	
개인적 차원	교육	정규 교육과정 이수 정도	Canadian Index of Well Being (Canada), National Index of Well Being (OECD), General Social Survey(U.S.A), 인간개발지수(HDI)
	소득	월소득 수준	Easterlin(1974), Inglehart(1997), Veenhoven(1991), Stevenson & Wolfers(2008), General Social Survey(U.S.A)
	긍정성	개인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정도	Argyle(2001), Diener(1984), Myers & Diener (1995), Seligman(2002)
	가족	혼인상태와 자녀유무	Layard(2006), Helliwell(2003),

			Frey(2008)
	직업	현재 직업의 고용상태	Layard(2006), General Social Survey(U.S.A), Measuring Wellbeing(Australian)
	종교	종교활동 참여 여부	Diener et al.(1999), Strawbridge et al.(1998)
	기간	지역사회 거주 및 활동 기간	Helliwell & Putnam(2000), Robins(2006)
행 정 적 차 원	자유의 보장	개인의 자유로운 정부비판의 보장과 경제활동의 보장 정도	Kant(1785), Bentham(1789), Layard(2006)
	정부의 질	국가의 정부활동에 대한 개인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와 경제적·정치적 자유 포함)	Layard(2006), Helliwell & Huang(2008), Kaufmann et al.(2009)
생 활 환 경 적 차 원	치안 안전	자연재해, 사회적 범죄, 기술적 재해에 대한 안전 인식	Maslow(1999), Measuring Wellbeing(Australian), WHOQOL(WHO)
	근린 환경	근린의 공원 등의 녹지공간의 풍부함 여부	Montgomery(2013), Welsch & Kuhling(2009), Canadian Index of Well Being (Canada)
	생활의 질	근린공간에 편의시설의 풍부함 여부	Florida(2002 ; 2008), Oswald & Stephan(2010), Glaeser(2011)

※ 출처 : 전지훈(2016), pp.149-152 재구성

3) 국가별, 지역별 행복지수 비교

(1) 국가 및 국제기구의 행복지수

행복도를 측정하고 이를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 정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추상성

으로 인해 한 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그것의 측정 또한 쉽지 않으므로 행복수준을 객관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국, 일본, 부탄,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 해외 각 국에서는 국가 단위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에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가 실시한 가구조사에 행복관련 문항이 최초로 수록되었는데, 여기에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가치 정도, 행복 또는 불안감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변미리 외, 2015: 37).

캐나다 행복지수(CIW : Canadian Index of Wellbeing)는 온타리오주 워털루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단위 연구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개념이다(변미리 외, 2015: 38).

뉴질랜드는 6개 지역위원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2003년부터 삶의 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네덜랜드는 1974년 네덜란드 사회연구소를 통해 네덜랜드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변미리 외, 2015: 42-46).

부탄은 1972년부터 국민의 행복을 단순히 물질이나 경제적 부로 측정할 수 없다고 보고 국민의 주관적인 행복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지수(GNH : Gross National Happiness) 개념을 도입했다. 경제적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영국의 유럽신경제재단(NEF)에서 행한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2015)에서 143개국 중 부탄이 1위를 차지(김동영 외, 2016: 6)한 바 있다.

OECD는 행복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부터 꾸준히 회원국 시민들의 행복 혹은 안녕(well-being)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2011년 5월 Better Life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변미리 외, 2015: 20). OECD Better Life Initiative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웰빙 지표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여 *How's Life?*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OECD Better Life Initiative, 2015). OECD는 현재 *How's Life?* 보고서와 *the Better Life Index* 라는 두 가지 결과물을 발행하고 있다.

UN은 2011년 총회에서 경제적 성과가 아닌 심리적 행복을 조사하여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부터 세계 150여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Gallup World Poll 삶의 평가(life evaluations), the World Value Survey, the 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행복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변미리 외, 2015: 30). 2012년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한 경향이 있었으나, 소득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물론 빈곤 국가에서는 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부유한 국가에서는 상대적 소득¹²⁾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이외의 사회적 변수들이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사회적 신뢰, 선택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유대감 등이 포함되었다(Helliwell et al., 2012).

각 국가 및 국제기구 행복도 관련 지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행복도 관련 국제 지수 비교

구 분	지수명	지수구성
영국	행복지수 National Well-being in the UK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시간활용, 지역사회, 수입 및 자산, 경제적 삶, 사회적 자본, 정치, 지속가능한 환경
일본	신국민생활지표 (People's Life Indicators)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 보건의료, 여가, 교육, 관계

12)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상식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절대적 소득뿐 아니라 상대적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득이 모두 상승하면 실제로 개인들의 주관적 행복은 기대만큼 커지지 않을 수 있다(김운택, 2009: 39).

일본	LRI (Life Reform Index)	거주하기 좋은 사회, 일하기 좋은 사회, 배우기 좋은 사회, 자녀 키우기 좋은 사회, 여성이 활약하기 좋은 사회, 고령자가 활기 있는 사회, 정보와 사람이 교류하기 좋은 사회, 환경이 좋은 사회,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부탄	국민총행복지수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심리적 행복, 건강, 시간활용, 교육, 문화다양성과 회복력, 좋은 거버넌스, 지역사회 활성화, 생태다양성과 회복력, 생활수준
캐나다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생활수준, 시간사용, 건강, 교육, 공동체 활력, 시민 참여, 여가와 문화, 환경
프랑스	사르코지 지수	GDP, 삶의 질,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
네덜란드	LSI (Life Situation Index)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내구성, 소비재 소유, 사회문화적 레저 활동, 사회참여, 스포츠
UN	인간개발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	건강, 시간활용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 행복, 교육, 환경, 올바른 정치
UN	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1인당 GDP, 사회적지지, 건강기대수명,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인식
WHO	삶의 질 척도 WHOQOL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 자립성, 사회관계, 환경, 종교 및 개인적 신념
OECD	보다 나은 삶 지수 (Better Life Index)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EU	삶의 질 지수	물질적 안녕, 정치적 안정성, 가족생활, 공동체생활, 기온·기후, 직업안정성, 정치적 자유, 성평등
NEF (영국 신경제재단)	행복지구지수 HPI (Happy Planet Index)	주관적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생태적 발자국 등

※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황명진 외(2007), 박승규 외(2014), 김동영 외(2016), 변미리 외(2015) 자료 재구성.

한편 국가별 행복을 측정하고 비교함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많은 조사연구가 서양인들이 동양인들보다 더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서구에서는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한 반면, 아시아권에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¹³⁾. 또한 서구에서는 개인적 성취와 물질적 만족을 중시하는 데 비해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아시아권에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한다. 결국 행복의 측정은 한 사회의 시계열적 연구를 통해 장기적 추세의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발전단계의 사회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운택, 2009: 33).

(2) 국내 지역별 행복지수

위에서 살펴본 국외의 상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시민 또는 지역민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각 지역별로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서울, 대전, 경기, 제주, 강원, 충남, 부산, 울산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지역주민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¹⁴⁾.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문제는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특히 각 지역에 적합한 행복결정요인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이 각 지역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수로 도출되었다.

13) 서양에서는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며 행복은 운명이나 신의 섭리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는 사고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나, 동양에서는 행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에 와서야 도입되어 사용되었다(김운택, 2009: 33).

14)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현대적’ 주장은 경제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으로 퍼져있는 견해이다. 고대의 행복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개인에게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행복이 인간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을 자유롭게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박성환, 2005 ; 김운택, 2009: 37 재인용).

각 지역별 행복도 관련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행복도 관련 국내 지수 비교

구 분	지수명	지수구성
서울 (2006)	서울시민 행복지수	경제, 문화·교육, 복지, 안전, 생태환경, 생활환경, 서울시행정, 공동체생활, 주관적 건강, 서울시에 대한 자부심, 주관적 행복감
대전 (2007)	삶의 질	- 주관적 지표(경제사정, 경제시장에 대한 전망, 개인의 소비생활, 현재의 직업생활, 직업의 미래, 범죄로부터의 안전, 의료시설서비스) - 객관적 지표(공식 통계자료)
보건사회 연구원 (2008)	한국인의 행복지수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경기도 (2009)	삶의 질	지역경제, 교육문화, 교통, 주거 및 환경, 정보화, 일반행정, 사회복지, 사회안전
제주 (2010)	삶의 질	인구구조, 지역경제, 사회·문화, 주거 및 환경, 사회복지, 안전
강원 (2012)	행복지수	경제적 영역, 사회복지 영역, 교육·문화 영역, 의료·보건 영역, 생활기반 및 환경 영역
충남 (2012)	행복지수	주거 및 교통, 일자리·소득, 가족 및 공동체, 교육, 문화 및 여가, 환경, 건강 및 보건, 주민참여
부산 (2013)	행복지수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울산 (2014)	지역행복지수	생활인프라, 주거, 교육, 문화·여가, 경제, 사회, 의료, 복지, 환경, 안전, 시민의식
통계청 (2014)	삶의 질	소득·소비, 고용, 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서울 (2015)	서울형 행복지표	삶의 질 인식, 소득, 고용, 주거, 건강, 학력과 기술, 자연환경, 안전,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유대, 삶의 질 만족,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문화생활, 기타

앞서 고찰한 각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국내에서 측정된 다양한 행복 지수 중에, 본 연구는 ‘서울시민 행복지수(2006)’에 주목한다. 서울시민 행복지수는 2006년 당시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10대도시 행복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Abbot(2006)은 해당 문항으로 런던시민을 대상으로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사회의 질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민 행복지수(2006)’는 행복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김운택, 2009)하여 국내에 적용된 척도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행복 척도로서의 사회의 질(Social Quality) 관점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감은 낮아지고, 제도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심해졌으며, 사회 갈등도 심각해진 현실은 성장과정에서의 ‘풍요의 역설’을 보여준다. 풍요의 역설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여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배고픈 사회(hungry society)가 분노하는 사회(angry society)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전상인, 2008). 이러한 분노의 증상은 불신과 불만, 그리고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인과 비교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일과 지위 및 물질을 중시하고 경제적 성과가 높지만, 과소비와 과시적 소비 경향이 강해진다. 그리고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건강과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 특히 공정 경쟁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향 비교는 자기 발전의 촉매가 되기보다 역기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즉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집단 추종과 이기주의 성향이 강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행복감도 떨어진다는 것이다(김희삼, 2014). 상대적 위치가 열악한 이들이 누적될 경우 사회적 분노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이재열, 2015: 9).

행복의 추구는 대부분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의 역설’ 속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은 어떻게 추구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은 사회

의 질을 확보하지 않는 한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고민하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김경동(2002: 92-94)은 경제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발전의 핵심가치’를 제시함으로써 행복한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개념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삶의 질적 향상’과 ‘삶의 기회의 확대’로 정리할 수 있다. 삶의 질적 향상을 충족시키는 조건은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과 경제적 여유, 정신적 풍요와 행복감이 해당되며, 삶의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배제, 차별 등의 분배정의와 관련된 사회정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선택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한 제도적 측면과 구성론적 측면, 그리고 거시적·미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사회의 질은 개인 수준의 삶의 질과 대비되는 사회 수준의 관계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김경동의 문제의식과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성적·거시적·미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재열, 2015: 11).

1) 사회의 질 개념의 성립 배경과 이론적 의미

(1) 사회의 질 개념의 성립 배경

오랫동안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예속되어 온 것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경제적인 것만으로는 결코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사회의 질’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김승권, 2008: 95).

사회의 질 개념은 1997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사회정책 토론회에서 출현하였다. 당시 시장경제 논리에 근간하여 비용과

성과 위주로 정책을 이끌어 왔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책 관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회의 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시장경제 지향적 관점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복지, 교육, 보건 등과 같은 공적 영역이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생산적 범주로 이끌려 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공적 영역은 “사회적 맥락상 일상의 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Abbot and Wallace, 2012: 155).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물결과는 대척되는 것이었다. 특히 복지민영화와 그 경험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사회구조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1990년대 초반에 글로벌 경쟁의 여파로 실업률 증가와 경제성장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는 EU회원국들 사이에서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 또는 “유럽의 사회모델(European Social Model)” 사상이 잠재적 대안으로 제창되었다(Lin and Herrmann, 2015: 3).

이에 따라 사회정책학자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주의 개혁을 지지하는 동시에,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의 부속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역시 강조하였다(Abrahamson, 1999). 사회정책학자들은 인간의 일상과 생계의 유의미함을 정책분석의 요소로 강조하면서 개인주의적 정책의사결정 방식에 반대하는 연대이론, 즉 집합사상과 집단행동을 강조하였다. 집단사상은 개인의 참여와 사회적 역량강화(social empowerment) 등을 촉진하는 정책방안으로 양성되었다. 또한 역량강화의 문제는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 등의 사회의 질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Lin and Herrmann, 2015: 4).

2000년대 들어 사회의 질 이론은 아시아 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적용 가능성이 탐색되었고,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EFSQ¹⁵⁾(European Foundations on Social Quality)는 ENIQ(European Thematic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와 협력하여 사회의 질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이 네트워크는 14개 국가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구성되었고, 2개의 국제 NGO, 즉 ICSW(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EAPN(European Anti-Poverty Network)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사회의 질의 중요한 이론적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의 질의 현재 흐름에 대한 14개 국가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네트워크의 많은 작업들은 특정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의 정책적 함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생활수준, 사회적 배제, 혹은 더 일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이전의 시도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유럽국가 시민들의 일상의 삶으로서의 행복을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통합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지바대학교와 EFSQ에 의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해졌다(김승권 외, 2008: 95).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질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 사회의 질을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이재열(2007)의 ‘외환위기 10년: 한국 사회의 질은 어느 수준까지 왔나’이다. 그의 연구는 개략적인 사회의 질의 지표들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시도하였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탐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EFSQ에서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사회의 질 지표는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승권 외, 2008: 96).

(2) 사회의 질 개념의 이론적 의미

15) EFSQ(European Foundations on Social Quality)는 현재 IASQ(International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http://www.socialquality.org>

사회의 질 개념에 있어서 공통적인 의견은 유럽연합의 경제발전과 사회 발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사회의 질”이라는 용어는 시민의 일상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삶의 질”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의 조건들과 지표들은 사회관계에 관한 이론에서 도출되었고(Walker and van der Maesen, 2004; Walker, 2015: 52), 삶의 질이 개별적인 개인을 궁극적인 현실로 보는 접근인 반면, 사회의 질은 일상생활의 사회적 맥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접근(Abbot, 2007: 49)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 개념과 사회의 질 개념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삶의 질과 사회의 질

먼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삶의 질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점차적으로 경험적 측정치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삶의 질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측정치들이 주로 객관적인 지표로서 영양상태, 의복, 거주, 교육수준, 사회보장, 근로조건 등을 측정하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하려는 개념이 추가되어 각자가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 즐거움을 측정하려 하였다.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심리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고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범위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이수정 외, 2005: 130-131).

삶의 질은 국제기구, 정부기관, 학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과학기술부, 2009). OECD는 삶의 질을 “인류의 행복(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따뜻한 상태)한 삶과 관련된 사회적 척도로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의 총합”으로 보았다. WHO는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으로 보았으며,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는 “지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인 측면에서 추구하는 개인의 성취도”로 보았다. 한편 미국환경보호청은 “개인의 웰빙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객관적인 만족을 포함한 것”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부는 “일상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로부터 느끼는 행복한 정도”로 보았다(조중권 외, 2009: 6).

삶의 질 개념은 경제적인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좋은 삶(good life)’ 혹은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다양한 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삶의 질 접근에서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그 조건에 주목하여, 전체사회 차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삶의 질 접근은 경제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형평, 공평, 자유, 사회적 유대와 같은 전체사회적 환경도 역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희길, 2012).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 개념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에 의해 중첩적으로 결정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점(이재열 외, 2015: 20)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삶의 질 개념과 접근방법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Berger-Schmitt and Noll, 2000), 삶의 질 접근은 삶의 조건이나 주관적 웰빙 등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은 개인의 욕구나 필요가 충족되는 정도 또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삶의 질’이 개인의 질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사회의 질’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 능력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삶의 질’에서 좋은 삶이란 욕구가 충족된 삶을 의미하고, ‘사회의 질’에서 좋은 삶이란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이재열 외, 2015: 23-24).

그렇다면 삶의 질이 높다 혹은 낮다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 초점을 둔 경우 삶의 질은 사회에서 제공되는 자원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 주관적 판단 또는 만족도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한다¹⁶⁾.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초점을 둔 삶의 질은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적, 제도적, 사회적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다(이재열 외, 2015: 24-25 수정).

그러나 삶의 질 관점의 접근은 첫째, 이론의 논의들이 부재하거나, 개인 수준의 삶의 질에 머물고 있다는 점, 둘째, 사회적 관계나 구조를 불변의 것으로 전제한 후 그 위에서 개인들에게 미치는 객관적인 효과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조나 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셋째, 삶 자체가 구성되는 영역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조건변수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넷째, 비교적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비이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간의 사회적 관계 면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 등 한계가 있다(김승권, 2008: 96).

이에 반해, 사회의 질 관점의 접근은 개인과 사회가 맺는 관계와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의 전체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한다. 삶의 질이 개개인의 행복에 대한 목표를 지향한다면, 사회의 질은 사회의 성숙성에서 사회의 발전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질 관

16) 미국의 경우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법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지만, 유럽의 경우 통계적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회적 조건들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통한 접근법을 더욱 강조한다(Glatzer, 2006: 170-171).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Cecil Pigou에 의해 언급되었으나, 사회목표로서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삶의 질을 토론하고 정의하는 과정은 미국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반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화되었다(이승철, 2014: 111).

점의 접근은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 삶의 질 관점이 제시하는 주요사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서 개개인의 삶과 사회의 전체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사회의 발전가치를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다(조중권 외, 2009: 19-20).

사회의 질과 삶의 질 관점을 비교하여 도표화 하면 다음 <표Ⅱ-5>와 같다.

<표Ⅱ-5> 사회의 질과 삶의 질 관점 비교

내 용	사회의 질	삶의 질
등장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통합과정에서 사회문제 제기	1960년대 도시위기 이후, 인간 삶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 의식의 문제
접근특성	- 이론적 모델과 경험적 지표의 결합을 중시 -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인식 - 과정과 구조의 연관성	- 이론적 토대보다는 지표개발에 초점 - 개인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 -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구분
지표구성	4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	-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등 모든 관심 영역을 포괄적으로 나타냄
분석단위	사회주의적	개인주의적
목 적	사회수준 재정립을 통한 사회발전	삶의 변화를 측정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을 지향
현재 상황인식	사회과정의 의미 부각	지표적 접근 치중

※ 출처 : 조중권 외(2009), p. 18, 임호 외(2013), p.16. 재구성.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개념과 사회의 질 개념은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이 요구되고, 동시에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개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승희 외, 2012: 56).

② 사회의 질 개념의 의미

‘사회의 질’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성(the social)”이라는 말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성”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Lin and Herrman, 2015: 5). 사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보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를 중심에 두고 연대와 시민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질’ 이론은 사회를 중심에 두고 전개되며, ‘관계적 관점’을 제시한다(Lin and Herrman, 2015: 5). 즉, 사회관계란 인간의 사회참여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성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사회관계를 형성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 개인은 공동체, 가족, 집단 및 다양한 사회 관계망을 포함한 집단과 상호작용하며 자아실현을 경험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집단정체성의 형성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적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의 질은 인간이 자신의 행복과 잠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Beck et al, 1997: 3; Walker, 2015: 52 재인용). 여기서 강조점은 사회관계와 사회참여이다. 사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행복과 발전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질 관점은 발전하는 사회환경에서 개별 주체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한 사회의 질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으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 즉 욕구(need), 행위(action), 정책(policies) 간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사회와 제도의 특징들을 고려

하여 일상생활의 질의 정도를 측정하여 개인수준의 요인들과 구조적 요인들을 결합하게 한다(Abbot, 2007: 49-50).

사회의 질의 구조에 대해 도표화 하면 다음 <표 II -6>과 같다.

<표 II -6> 사회의 질의 구조

본질적 요인 (프로세스)	조건 요인 (기회 + 접근)	규범적 요인 (방향)
개인(인간)의 안전 사회적 인식 사회적 민감성 개인(인간)의 능력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	사회정의 (공평) 연대 동등한 가치 인간의 존엄성
관 심	지 표	기 준

※ 출처 : <http://www.socialquality.org/theory/>

③ 사회의 질의 이론적 틀

사회의 질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사회의 질 개념화를 최초로 시도한 Beck 등(1997)은 유럽의 시민들이 국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고안한(Fairweather et al., 2015: 16), x축과 y축의 사분면을 사용하여 사회의 질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그림 II -1>에서 볼 수 있듯이, x축은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으로 좌표가 나뉜다. 공식영역에는 제도와 조직 등이 포함되고, 비공식영역에 커뮤니티, 집단, 가족, 동료 등이 포함된다. y축은 거시영역과 미시 영역으로 나뉘는데, 거시영역은 사회발전을 지향하고, 미시영역은 개인생애사적 발전을 지향한다.

그리고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건을 나누는데, 여기에는 사회

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량강화, 사회적 포용성이 있다. 1/4분면에 제도적 지원을 통한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위치한다. 2/4분면에는 개인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즉 사회적 응집성이 위치한다. 3/4분면에는 사회참여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역량강화가 위치한다. 4/4분면에는 개인의 사회참여 또는 사회관계 발전에 집단, 공동체, 시스템 등 조직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포용성이 위치한다(Walker, 2015: 52-53).

<그림 II-1> 사회의 질 사분면과 네 가지 요건



※ 출처 : Fairweather et al. *Reconceptualization of Social Quality*. 2015. p.17 수정.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요건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aurent van der Maesen and Alan Walker, 2015: 41).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은 노동시간 외 자원을 소유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 가능한가를 보여준다.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은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말한다.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제도와 사회관계에 사람들이 얼마나 접근 가능하고 그것에 통합되고 있는가를 말한다.

사회적 역량강화(Social Empowerment)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 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강화되는 정도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영역은 다음 <표 II -7>과 같다.

<표 II -7> 사회의 질 영역

<p>사회경제적 안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자원 -주택과 환경 -보건 -일 -교육 	<p>사회적 응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 네트워크 -정체성
<p>사회적 포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권 -노동시장 -서비스 (공적·사적) -사회네트워크 	<p>사회적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기반 -노동시장 -제도의 개방성과 지지성 -인간관계

※ 출처 : Van der Maesen and Walker.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2015. p.41.

④ 사회의 질 이론의 존재적 의미

사회의 질 이론은 하나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정책도구 관점으로 사용되며, 각기 다른 분야나 제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평가된다. 이에 사회의 질 이론은 사회분석의 메타이론¹⁷⁾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Beck 등(2001)은 사회의 질 이론이 사회의 질 조건에 대한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존재론, 인식론,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사회철학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의 질 이론은 사회분석의 일반모델로 효용가치가 있다(Lin, 2015: 69).

특히,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요건인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의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공동체의 척도로서 사회의 질을 지수화 할 수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살기 좋은 사회는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인데, 그것은 ‘안전한 사회’, ‘신뢰 사회’, ‘포용 사회’,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이재열, 2015: 12). 다음으로는 그 영역별 세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요건

사회적 질 요건을 위에서 살펴 본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영역인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조건으로서 물질적, 환경적 자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사회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빈곤으로부터 안전, 주거생활의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질병과 재해,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되는 상황을 포괄한다(정진성 외, 2010: 6-7). 물질적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지표들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소득보장, 교육, 주택, 고용, 기타 사회정책급여 등은 인간의 물질적

17) 메타이론은 이론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다. 메타이론이 있다면 대상이론이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 생물학의 메타이론은 과학철학이다.

행복을 설명하고 인간 삶의 만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Lin, 2015: 71). Keizer(2004)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불확실성과 일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는 맥락에서 그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해식, 2012: 15).

즉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인간의 삶을 위한 물질적·환경적 자원을 사회적 수준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기본적 욕구들이 충족되는 사회가 ‘안전 사회’라면, 그렇지 못한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재열, 2015: 12).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측정하는 영역으로는 재정적 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돌봄, 노동, 교육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사회적 응집성

응집성은 자연과학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두 개 이상의 존재가 서로 끌리는 현상을 말한다(Fairweather et al., 2015: 27). 사회관계에 기원하는 사회적 응집성은 쉽게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지만, 사회의 질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강조한다.

사회적 응집성이 표상하는 것이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의 유지와 형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응집성의 수준을 통해서 한 사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의 사회지표 논의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OECD, 2005, 2007, 2011). 그러나 사회적 응집성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응집성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응집성과 그 개념적 속성이 유사한 포용성(inclusion), 배제(exclusion), 통합(integration), 탈통합(disintegration), 사회적 와해(social dissolut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같은 용어들을 각각

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Berman & Philips, 2004). 사회적 응집은 통합(integration)¹⁸⁾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뒤이어 나올 사회적 포용성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응집성이 사회적 통합(social intergration)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포용성은 체계에의 통합(system intergration)을 의미하는 것이다(정해식, 2012: 18-20).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의 규범에 순응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협동 또는 동조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는 연대(solidarity) 또는 사회적 신뢰와도 연관된다. 즉 연대와 공유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소속감 또는 공동체 의식이라 할 수 있다(Beck et al, 1997: 324).

즉 사회적 응집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측정하는 데 중요하다. 응집력이 유지되는 사회를 ‘신뢰 사회’라고 한다면,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사회적 규범이 일관성과 포괄성이 지지되지 않으며, 집단 간에 이기적 경쟁만이 존재하는 해체된 사회를 ‘불신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재열, 2015: 12-13).

사회적 응집성의 측정영역으로는 신뢰, 통합적 규범 및 가치, 사회적 관계망, 정체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3)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와 포용은 개인의 사회로의 통합 또는 결핍에 관심을 갖

18) 국내에서는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을 사회통합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고(노대명 외, 2010), 사회적 자본의 수준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Chan et al., 2006). 여기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응집-사회통합은 ‘사회적 관계·네트워크·협회의 강도, 공유된 가치와 공통의 정체성, 그리고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연계하는 정도, 동등한 기회, 사회의 격차 대립과 사회적 배제의 정도’로 정의된다(Berger-Schmitt, 2002: 406; 정해식, 2012: 20 재인용).

는다.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분리와 사회적, 정치적 참여에서의 배제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 배제는 자원과 제도에 접근이 제한된 결과로 간주되는데, 자원과 제도는 개인의 사회권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가 없는 상태 또는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된다(Fairweather et al., 2015: 22-24).

사회적 배제는 복지국가의 빈곤과 불평등을 설명하는 연구들에서 주목하는 개념(Silver, 1994; Room, 1995; Room, 1997; Room, 1999; Jordan, 1996; Bhalla & Lapeyre, 1997; Hills et al., 2002; Pierson, 2002)으로서 빈곤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물질적 수단을 적게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삶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Duffy, 1995). 사회의 질 논의에서는 사회적 배제 대신 사회적 포용성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의 개념이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사회의 질 관점이 가지고 있는 예방적 본질을 보여주며, 또한 시민권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Beck et al., 2001). 사회적 배제가 시민권의 다양한 차원이 거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포용은 이런 시민권이 현실화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정해식, 2012: 24-25). 또한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 통념상 규범으로 인정되는 생활수준을 현실화하고 이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자원, 공적 혜택, 기회와 권리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Fairweather, et al., 2015: 26).

즉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나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차원을 구성한다. 사회적 포용성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지닌 가치나 신념과 무관하게 그가 사회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제도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이러한 ‘포용 사회’에 대비되는 사회는 ‘배제 사회’라고 할 것이다(이재열, 2015: 13).

사회적 포용성을 측정하는 영역은 시민권리, 노동시장, 사회서비스, 사회적 관계망의 네 영역으로 제시된다.

(4) 사회적 역량강화

역량강화(empowerment)¹⁹⁾는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재열 외, 2015: 160). 역량강화는 세 가지 의미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행복이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의 기술을 개선하는 것. 둘째, 임파워먼트가 조직의 목적이자 과정이 되는 것. 셋째,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집단행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Erben et al., 1999)을 말한다.

사회적 역량강화는 시민들이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역량(human competencies)과 실현능력(capabilities)을 현실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Hermann, 2004 ; van der Maesen et al., 2005). 이것은 단순히 시장에서의 개인의 능력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염두에 둔,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 즉 사회 환경(societal environment)을 변화시키기 위한 접근과 참여를 말하는 것이다(Hermann, 2005: 294). 사회적 역량강화를 높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Hermann, 2004). 그것은 첫째, 시민들이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과정을 쉽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조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19) 우리나라의 초기 사회의 질 연구자들은 empowerment를 ‘역능성’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회복지학에서 empowerment를 ‘역량강화’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근의 사회의 질 연구에서도 ‘역량강화’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empowerment를 ‘역량강화’라 지칭하도록 하겠다.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역량강화는 주어진 사회구조로의 접근(access), 삶의 조건들에 대한 통제(control), 참여(participation)를 특징으로 하는데, 어느 한 요인만 확보되었다고 해서 개인의 삶의 조건이 만족한다고 할 수 없고, 세 요인이 골고루 발달하여야 한다. 사회의 질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발전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각 개인의 자기실현을 의도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정해식, 2012: 27).

이에 사회적 역량강화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들의 기술, 지식, 자신감 등을 통해 자신의 삶과 노동조건, 그리고 행복에 대한 영향력과 생애 결정권 등을 통제하고 강화해가는 정도를 말한다.

즉 사회적 역량강화는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짜여 있는가를 보는 지표다. 개인의 능력 발휘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활력 사회'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를 '무기력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이재열, 2015: 13).

사회적 역량강화를 측정하는 영역은 지식기반, 노동시장, 제도의 개방도 및 지원 정도, 공적 공간, 사적관계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지역사회 행복연구에서 사회의 질 관점이 갖는 유용성

이재열(2015)은 사회의 질을 “사회의 품격”이라고 명명하며 행복 수준을 높이려면 사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다(이재열, 2015: 3). Yuan과 Golpelwar(2012)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회환경의 질적 수준이 그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경향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회환경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망과는 다르게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유대감, 또는 소속감을 반영한다(이미애, 2015: 274).

사회의 질 이론이 유럽의 사회모델로 제시된 목적은 새로운 사회의 기

준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는데, 새로운 사회적 기준, 사회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의 안녕(well-being)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질은 사람들에게 안녕을 제공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Therborn, 2001: 23).

사회의 질 관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계 10대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EU에서 행한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김승권 외, 2008: 77). 사회의 질에 대한 분석은 사회 영역별로 세부화 할 수 있는데,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화 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의 차원에 따라 사회의 질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Abbot 또한 이러한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차원의 방식으로 다음 <표 II-8>과 같이 「런던에서의 사회적 질, 삶의 질과 행복」(2006)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Abbot, 2007: 43-74).

<표 II-8> 사회의 질 영역별 측정 지표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다. · 나의 도시의 물가는 비싸다. · 안심하고 수도물을 마실 수 있다. · 가구소득 · 나의 도시의 건강보호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는 봉사활동의 기회가 잘 마련되어 있다. · 나의 도시에는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 시 행정은 투명하다. · 밤에 거리를 다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 시 정부는 시민들의 민원을 잘 처리다. · 도시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또는 가족의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 나의 도시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좋은 곳이다. · 나의 도시는 노인, 장애인, 빈민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와 보호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 이웃 및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공간이 충분하다. · 걸어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에 갈 수 있다. · 이웃 및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기회가 많다. · 결혼상태 · 종교 ·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만족한다. ·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이용해 얻는데 편리하다. · 건강 · 교육

※ 출처 : 김승권 외.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p. 80. 자료와 김경동 외. 2007. 『세계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p. 410-413.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 수정.

그러나 주의할 점은 위의 지표들이 사회의 질 전체 영역의 지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학자들은 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네 가지 영역에서 95개를 선정한 바 있다²⁰⁾. 그러나 초기의

유럽학자들의 사회의 질에 대한 접근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첫째, 지나친 이론 지향성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로서, 개념과 이론 수준에서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정작 그 분석틀이 현실과 맞는 정합성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동일한 변수들이 서로 상이한 영역과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중첩되어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사회의 질 개념이 가진 유럽적인 편향성을 들 수 있다. 이미 유럽의 국가들은 전 세계의 평균적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을 유지해 왔다. 즉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과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높은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이재열, 2015: 13).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문제들은 사회의 질이 아시아권 국가들에 적용되면서 수정되어 가고 있고, 이들의 논의는 현재 IASQ(International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를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 전체 영역의 지표를 제주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표 II-8>의 측정지표와 적용방식에 근거하여 사회의 질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도시’를 ‘지역’으로 수정하여 조사하였고, 단일문항으로 구성되는 주관적 건강평가,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행복감 문항은 편의상 제외하였다.

Beck 등(1997)이 개념화 하였듯이 “사회적 질은 인간이 자신의 행복과 잠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의 질 관점은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 환경, 사회정책 개발에 기여한다²¹⁾. 즉 사회의 질은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

20)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 <부록 2. 사회의 질 하위 지표 목록> 참조

21) Kurian과 Uchiyama(2012)는 사회의 질 관점에서 일본과 네덜란드의 노인돌봄모델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은 재가노인과 시설노인 등 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노인 스스로가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노인돌봄 방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접근하기

회'인지를 측정하는 개념적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경제성장이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신, 그리고 불행감이 높은 사회의 문제들을 조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이재열, 2015: 14).

지역사회 행복연구에서 사회의 질 관점이 갖는 유용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의 질 관점은 지역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을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의 네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사회의 질 네 영역의 지표들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회보장)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빈곤, 주거환경, 건강과 돌봄, 노동시장과 교육의 이슈들을 포함하고, 사회적 응집성은 신뢰, 공동체의 가치 및 정체성, 사회관계망의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성은 시민의 권리와 사회서비스의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 역량강화는 지식기반과 일과 삶의 균형, 문화적 고양의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질에 대한 탐구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의 질 관점은 개인의 욕구 충족과 행복추구에 있어 개인에게 한정시켰던 방식을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함께 지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셋째, 사회의 질 관점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에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돌봄 방식을 평가하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Kurian과 Uchiyama는 사회의 질 관점의 참여적 사회관계(participative social relationship)를 본질적으로 다루는 데 주목하면서, 참여적 사회관계란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좋은 틀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으로서 소외되어 왔고, 그들의 권한이 축소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의 질 관점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돌봄 실천에 적용하게 되면 노인의 자아실현 과정에 지원되는 자원의 규모 또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의 질 관점은 기존의 노인돌봄 방식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의료모델, 부양자모델에 한정된 돌봄의 질을 새로운 영역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해 접근함에 있어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 또는 제도적 접근으로 양분되었던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한다.

3. 제주지역의 특성

지역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생활방식이나 신념 또는 가치관 등을 포함한 생활체계를 의미한다. 즉 지리적으로 이웃 지역과 구분되는 공간 단위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 간의 상호관계는 우열의 관계를 미리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성이란 의미 안에는 생산, 활동, 문화의 거점이라는 지리적 범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감정적 동질감 내지 운명 공동체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권순도, 2013: 36).

오늘날 공동체를 바라보는 입장은 대개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공동체를 지역단위로 보는 입장이고, 둘째는 공동체를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의 발생과 더불어 붕괴되는 역사적 유물, 즉 촌락공동체(생산조직)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입장이며, 셋째는 공동체를 사회조직 또는 사회적 결합의 기본 원리의 하나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끊임없이 공동체 성원들에 의해 형성되고 또한 공동체 성원들의 일상의 삶에서 체현되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은 단순히 한 영역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공통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성원들을 포함한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특정의 지역성, 또는 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경제적 관계, 사회관계, 종교, 의례, 이데올로기 등의 요소를 활용해 오면서 인간들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변형되어 왔다. 이처럼 공동체는 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가치, 규범 등의 체계로 상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성원들은 지역성 및 역사, 사회문화적 요소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한 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최협 외, 2006: 65-66).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²²⁾. 지역은 다양

한 복지문제가 분출되는 장소이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사회복지는 과거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하향식 대상자 중심의 복지에서 '지역의 지역화'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지역의 복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과 복지의 통합을 의미한다.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입각하여 지역복지정책 및 제도의 개발과 추진이 확산되고 있다(이재완, 2016: 2).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이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존재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정책과 정책수요자가 대면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즉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것이다(정홍원, 2014: 2).

대략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산업화'와 '도시화' 등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이 회자되고 있고, 이는 지역사회복지 관련 상황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고 있다. 특히 이중 세계화와 지방화는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상황인데, 세계화의 상황에서 각 지방은 독립적 행위주체로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키우고 독자성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되어 분권화 움직임이 가속화 된 현상은 국내에서 지방화 담론을 더욱 활발하게 한 요소이다. 이러한 지방화가 사회복지 논의의 한 축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배경이 된다(백종만 외, 2015: 432-433).

사회의 질 관점은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사회발전의 가치를 새롭게 설정하

22) 사회복지영역의 관심분야 중 하나가 바로 '지역' 이라 할 수 있다. 손지현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키워드로 8,278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연관 키워드'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손지현 외, 2015: 154).

는 것으로 파악된다(조권중 외, 2009: 19-20). 이런 맥락에서 사회의 질 관점은 지역발전에 있어 성장단계를 거쳐 성숙단계로 진입하는 시점, 혹은 지향하는 시점에서 정책적인 유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반면, 사회의 질 관점의 접근은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정책지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임호 외, 2013: 15-16).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주는 섬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때 변방으로 구분 지어졌고, 그로인해 제주인 특유의 성향이 발현되는 지역이다. 즉 한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주변부로서의 독자적인 생활환경을 고착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한 제주지역의 최근의 환경변화는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이 더불어 향상되었다고 단언할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과연 제주 지역사회가 사회의 질 관점이 표방하는 ‘좋은 사회’를 지향하며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발전의 이면에서 파생되는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불신의 위험으로 오히려 불행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시점이라 판단된다.

여기서는 먼저 제주지역의 특성을 물리적, 환경적, 기질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주, 제주사회, 제주인 :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제주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은 제주가 갖는 물리적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제주인들의 방식,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주의 물리적 환경으로 지리적인 면에서의 도서성과 주변성, 화산회토의 농토 등을 들고 있으며, 역사적인 생활환경으로는 피억압적인 역사

성을 들 수 있다. 도서성은 지리적 고립성, 지역적인 한정성, 협소성으로 특징지어 진다. 제주섬은 바다에 의해 고립되어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제주인의 자족적인 생활권이 되었고²³⁾, 섬 내부에서 세대를 이어 자족적으로 살아오는 동안 사회관계는 섬 사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경향을 낳았으며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²⁴⁾(신행철, 2004: 19-20).

제주를 삼재(三災)의 섬²⁵⁾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한라산이 섬 가운데 높이 솟아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물 흐름이 빨라서 수재(水災)가 많았다. 또 화산섬으로 돌이 많아 토질이 척박하여 조금만 가물어도 한재(旱災)를 겪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걸쳐 태풍의 길목이 되어 자주 풍재(風災)를 만났다. 이런 재해가 일 년 내내 이어지니 자연히 흉년이 들 수밖에 없고, 제주인의 생활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다(김봉옥, 2000: 15).

이러한 열악한 생활 조건 속에서 제주사회는 거지, 도둑, 대문이 없는 이른바 삼무(三無)의 생활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열악한 생산조건 때문에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남을 줄만큼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못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빌어먹을 필요가 없었다(결무乞無). 그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남들이 탐낼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갖지 못하였으며 못가졌다 할지라도 도둑질 할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도무盜無). 또한 친족 관념 속에서 이웃 간

23) 역사적으로 조선의 인조 약 200년(1600년대-1800년대)동안의 유민(流民)정책으로 출륙이 금지되는 정치적 조치와 결부되면서 제주는 육지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제주인 대부분의 생활은 섬 속에서 영위될 수밖에 없었다.

24) 통혼의 범위가 한정되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혈연적 친족관계일 가능성이 컸고 부계, 모계, 처가 삼족(三族)이 모두 친족적 유대를 갖다보니 자연히 부계친(父系親)의 결속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문중조직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혈연적 요소보다 지역적 요소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웃 간의 생활이 친족 관념 속에서 영위되다 보니 흔히 이웃의 부모뻘 되는 어른은 ‘삼촌’으로 호칭되고 자식뻘 되는 연소자는 ‘조카’로 호칭되어도 어색함이 없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예이다(신행철, 2004: 20).

25) 제주에는 흔히 여자, 돌, 바람이 많은 삼다(三多), 인심, 자연, 열매가 보물인 삼보(三寶), 거지, 도둑, 대문이 없는 삼무(三無)의 섬으로 지칭된다.

의 협동적 생활원리를 터득하여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지켜주는 분위기 속에서 주거공간을 차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문무門無)(신행철, 2004: 21).

제주사회는 또한 자연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역사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제주사회는 관리의 횡포에 시달려 왔으며²⁶⁾, 이에 대해 제주인들은 지역 공동생활권을 단위로 상호 결속하는 협동적 생활체계를 형성하여 외부세력에 대처하였다. 이것은 생존권적인 저항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혈연적 의미의 약화와 결부되면서 제주사회를 자연성이 강한 사회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다의 어장이나 목장 등 많은 지역자원들이 지역 공유제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그 지역 단위에서 협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로 인해 자연적 조직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그 자연적 결속의 범위로 중요한 단위가 마을인데, 마을은 지역 공유제의 주체이며 사회조직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제주의 마을은 식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집촌을 이루어 형성되었으며 대체로 잡성촌(雜姓村)²⁷⁾의 성격을 지녔다. 마을은 이와 같이 경제조직의 단위였으며 신앙생활의 단위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적 의사결정의 단위로서의 성격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신행철, 2004: 23-24).

제주인의 기질적 성격특성은 크게 근검·소박한 생활과 자립정신, 그리고 배타성과 열등의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근검·소박한 생활과 자

26) 제주사회는 주변부의 사회이다. 주변부 사회는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통치질서 속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모든 사회적 가치와 기회가 중앙을 중심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그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다. 한편 중앙으로부터의 시혜(施惠) 또한 누출될 가능성이 크며, 중앙의 감시가 적게 미치다보니 탐관오리의 횡포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제주는 중앙에 종속된 지위에서 저발전의 사회로 머물게 되었다(신행철, 2004: 23).

27) 잡성(雜姓)마을에서는 흔히 마을내혼(內婚)이 이루어져 마을 주민들은 서로 혈족과 인척의 복잡한 관계를 이루어 결속하게 되었다. 목장이나 어장을 마을공유로 운영하면서 자원이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 생활 질서를 유지하였고, 마을마다 포제 등 마을제를 지내고 본향당을 두어 마을공동의 조상을 설정하는 등 상징체계를 통하여 마을단위의 자연적 조직을 강화하였다(신행철, 2004: 24).

립정신은 자연적인 악조건과 역사적 시련에 부딪치면서 생존을 위해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중심에서 벗어난 지리적 환경은 주변문화를 형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척박한 토질과 기후조건은 인간노동의 비중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생활은 곧 노동이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농한기에는 바다에 나가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근면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이러한 근면, 검소, 자립 등의 특성들은 외부환경과의 관계에서 제주인들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대응결과였다. 그러나 그러한 이면에 자리 잡은 본질적 특성은 ‘삶에 대한 강한 현실적 지향성’이었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생활의 비참함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박재환, 1977: 620).

한편, 제주인의 배타성과 열등의식은 고립된 주변문화의 특수성 또는 도서성에서 오는 상호모순적인 사회적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배타적 성격의 외적 요인은 역사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다. 고립된 소국가로 출발한 제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은 외부로부터의 피지배와 일방적 수탈로 압축할 수 있다²⁸⁾. 이와 더불어 외부세계와 고립되어 생활반경이 한정된 섬지역의 특성 역시 제주인의 배타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특정사회가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내·외집단의 구별의식이 강화된다. 제주인의 배타성도 고립된 사회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갖는 강한 구별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박재환, 1977: 632). 이러한 구별의식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주/육지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표현양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²⁹⁾. 외부세계인 ‘육지’에 대해

28) 고려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앙의 지배는 관의 횡포가 노골화되는 과정에 불과했고, 100년에 걸친 몽고의 압제는 아직도 그 영향이 생활유풍으로 남아있다. 특히 인조에서 순조에 걸쳐 행해진 제주인에 대한 출륙금지령은 빈곤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육지로 떠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제주인과 육지인의 결혼까지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는 제주가 조선조에 속해 있으면서 문화적으로 봉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박재환, 1977: 632).

29) ‘육지’라는 말에 대한 제주인들의 통속적인 개념을 보면, ‘학교에서는 바다의 반대 개념으로, 집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으로 사용하여 ‘문명지’, ‘제주도에서 먼 거리’, ‘보다 더 넓은 세계’로 인식되면서 ‘배타적 태도’로 말하는 뜻이 숨어

선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집단의식을 바탕으로 거부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유철인, 1986: 74). 한편 제주인의 배타적 기질은 외부인 또는 외부사회에 대해 자신들의 자긍심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다. 외부인의 수탈과 지리적인 고립 속에서 자신들의 자긍심에 강한 훼손을 경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세계에 대한 선망과 동경에서 비롯되는 열등의식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신행철, 2004: 100)³⁰⁾.

이러한 제주인의 사회적 기질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변형된 모습으로 제주인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도시화와 대중매체의 일상적인 접촉에 따라 제주사회는 급속히 육지의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제주 사회의 생활양식의 변동은 한 세대내의 개인들의 생애를 통한 의식 변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세대 간의 교육 및 경험세계의 분화를 통한 단절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조혜정, 1989: 524).

2) 제주지역의 사회문화적 인식

지역사회의 특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그 지역의 삶과 전통,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동일한 시·공간적 생활환경을 경험하는 동안 그 생활양식이 내면화되어 그 사회 특유의 의식구조를 갖게 된다. 의식구조는 한 집단성원 대부분의 성격구조의 본질적 핵심이며 그 집단 공통의 기본적 경험과 생활양식의 결과로서 형성된 사회적 성격의 한 측면으로서 그 사회성원의 일반적 관념형태이며 신념의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있다(유철인, 1986: 74).

- 30)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질은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가져다주는 외부로의 진출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어도’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섬을 떠나는 데 매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어도’ 는 이상향에의 추구이며 섬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즉 어려운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 외부세계로 진출하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기 환원 기상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부정의 부정, 즉 자기 긍정의 기상인 것이다. 이것은 곧 제주인의 고난 극복의 정신이기도 하다(신행철, 2004: 100-101).

(Fromm, 1994: 305). 특히 사회문화적 인식은 인간의식의 하부구조에 해당한다. 사회문화적 인식은 사회집단 구성원 상호 간에 형성되는 관계유형에 대하여,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생활방식을 안내해주는 기본적인 규칙에 대하여 나타나는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인식은 어떤 사회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그 사회구성원의 내면에 발달된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과거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는 것이 곤란했을 것이고 토착된 문화양식의 변화에 대한 자극 또한 적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인의 사회문화적 인식은 제주지역의 사회문화적 전통을 통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

(1) 제주의 전통문화

① 안거리 밖거리 주거환경과 정남

제주의 전통가옥에서 볼 수 있는 안거리 밖거리는, 한 울타리 내에 두 채의 집이 지어진 유형을 말한다. 안거리와 밖거리에 각각 정지(부엌)와 고팡(창고)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두 가족이 침식과 경제 단위를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는 아들이 결혼하면 안거리에는 부모세대가, 밖거리에는 아들 세대가 산다. 그러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모세대가 밖거리로, 아들세대가 안거리로 들어간다. 친족의 일, 부조, 공동재산권 등은 안거리에 사는 사람들만 하는 등, 안거리는 밖거리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밖거리에 살던 자식이 안거리로 옮겨 산다는 것은 그 집안을 주도하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뜻이다(김혜숙, 1993: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³¹⁾.

또한 제주 전통가옥에는 대문이 없는 대신 긴 올래(외부의 길에서 앞마

31)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01&contents_id=GC00700647

당까지의 진입로) 어구에 걸쳐놓은 정낭이 있다. 정낭은 집주인의 유무동태를 알려주는 신호이며 방목하는 마소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 제주의 생활환경이 이웃 간의 친족관념으로 묶여진 상부상조의 상황에서는 서로 이웃집을 보살펴 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밖을 차단하는 대문과 같은 장치는 필요가 없었겠지만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예의로서 자신의 유무를 알리는 신호가 필요했을 것이다. 정낭이라는 주거생활 방식은 이웃 간의 연대가 강했던 주민들끼리 나뭇대로서 언어를 대신하는 소통과 신뢰의 신호였다(신행철, 2004: 30).

② 수눌음 정신

산업화 이전 제주도 경제는 농업에 기반을 두었다. 섬이기 때문에 어업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이에 반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육지로 떠날 것을 염려해서 선박건조를 제한한 조선시대 정책, 왜구의 약탈을 피하기 위한 중산간 마을 거주 선호,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작업이 된 물질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는 어업사회보다 농업사회로서의 기본 성격을 갖게 되었다(이상철, 1996: 25).

수눌음은 제주형 품앗이를 말한다. ‘수눌음’은 제주도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의 품앗이로서 ‘수눌어간다’는 뜻이 명사화된 말이며, 함께 품을 교환한다는 의미이다. 보통은 농사일을 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 노동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제주도의 각 마을은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로 일하는 협부조직(協部組織)을 구성하고 있다(다음백과사전)³²⁾. 즉 수눌음은 제주 특유의 노동 관행으로 단순한 협업 노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로부터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일구어야 했기에, 이러한 환경적 조건에서 서로 도우며 자급자족 해왔던 것이다³³⁾. 제주도는 돌이 많고 물

3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2s3250a>

이 지표 속으로 쉽게 흘러들어 복류하는 화산섬이어서 논농사 중심의 집약적인 농업 양식은 적합하지 않았다. 대부분 경작지로서 밭농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농업 조건에서, 여성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다시피 하였다. 밭농사는 힘을 요하는 밭갈이를 제외하면 남성 없이도 가능한 일이기에, 여성들은 수눌음을 통하여 혼자서도 농사를 지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일시에 집단이 형성되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도왔기 때문에 열 사람이 각자 자기 밭에서 열흘 동안 해야 할 일을 한데 모아서 닻새 만에 할 수 있었다(주강현, 2006: 향토문화전자대전³⁴); 정기석·안숙영, 2015: 43-44).

적은 인력과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부상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제주인들은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혼자하기 힘든 일은 함께 나눠서 치렀고, 여럿이 해야 되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때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함으로서 인력을 절약했다. 그리고 대소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재화나 혼자서 마련하기 힘든 물품들은 공동으로 마련해서 돌려씀으로써 자원을 절약했다. 수눌어 일하게 되면, 먼저 일을 한 쪽에서는 적기를 놓치지 않고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일을 해 준 쪽에서는 노동력을 저축한 셈이 되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윤용택, 2010: 338-339).

농사일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서로 힘을 합쳐서 큰일을 치르는 것도 일

33) 농토 면적의 제약은 지주제의 등장을 제한하였고 기껏해야 중소지주직영의 영농이 간혹 있을 뿐이었다. 미개한 국유지가 많고 어업, 목축업 등의 보조적 생계수단이 확보될 기회가 있었기에 지주예속적 지위의 소작농이 희소했다. 완전한 무산자(無產者)나 임노동자 또는 결인이 없었던 것도 이런 환경 속에서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차등화는 크지 않았다. 사회계층이론에 입각해서 보면 한 사회의 성원들의 생계활동에 필요한 분배가 이루어지고도 남는 잉여생산물이 많을수록 그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인데 제주사회의 경우 그 자원의 부족, 특히 제한적 영농규모로 인해 잉여생산물이 크게 축적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크게 많이 가진 사람도, 크게 적게 가진 사람도 없게 된 것이다. 제주에는 육지부의 만석꾼이니 천석꾼이니 하는 대지주가 없었고 소슬대문을 단 대저택도 발견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신행철, 2004: 22-23).

34)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98&callFunc=goSearch0%3B&keyword=%EC%88%98%EB%88%8C%EC%9D%8C>

종의 수놓음이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목수가 기둥과 서리를 다 준비해놓으면, 나머지 일은 동네에서 각 집안에서 남녀 한 사람씩 나와 일을 돕는다. 여자들은 물을 져 날라 흙질을 하게 해주고, 남자들은 담벽을 쌓고, 흙질을 하고, 천정을 대나무로 얹고, 지붕을 덮어 하루에 집의 외곽을 완성시킨다(현용준, 1986: 62-63). 이 때 주인은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웃 간에 정이 돈독해지고 유대가 강화되었다(윤용택, 2010: 341-342). 옛 제주인들이 수놓어가면서 노동력을 나누었던 전통은 오늘날에도 상부상조의 전통으로 전승되고 있다.

③ 권당 문화

권당(권당)은 친인척을 뜻하는 제주어로, 권당(眷黨)에서 비롯되었으며, 넓은 의미로는 이웃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제주사람들은 조금만 안면이 있어도 “사돈에 팔촌으로 걸린 권당”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굳이 친척관계가 되는지 따져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고향 마을을 밝히고 계보를 따지다 보면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된다는 이야기다. 제주지역은 “마을 내에 매놈(완전한 남)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친척 관계로 얽혀 있고, 이 때문에 동네어른 모두를 ‘삼촌’으로 부르는 관행이 정착했을 정도로 권당은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이다(김혜숙, 1993;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³⁵⁾.

이처럼 제주의 또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은 ‘권당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는 말 그대로 ‘한 다리’만 건너면 거의 알 정도로 좁은 지역사회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다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이 많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의 ‘권당문화’가 존재한다. 예로부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권당끼리 모여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함께 힘을 모아

35)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98&callFunc=goSearch0%3B&keyword=%EC%88%98%EB%88%8C%EC%9D%8C>

해결해 오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공동체문화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³⁶⁾. 이런 이유로 제주지역에서 통용되는 ‘삼촌’이라는 말은 실제 친인척이 아니어도 남녀를 불문하고 ‘아는 어른’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어왔다. 한편, 권당문화를 잘못된 연고주의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다³⁷⁾. 그러나 예로부터 제주는 척박한 섬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수눌음, 권당문화가 생겨나고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다. 마을내혼의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친가, 외가, 처가 쪽 친척이 함께 거주하여 이들과 호혜적인 지역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왔는데, 이러한 관행은 경제상태가 결부되어 문중조직이 형성되고 강화될 기반을 악화시켜(최재석, 1979: 168-170), 제주인의 생활에서는 친족조직보다는 마을공동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로 친가 쪽 친척이거나 외가 쪽 친척이기 때문에, 친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육지부와는 달리 외가와 친가를 동등하게 본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주의 마을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결합된 지연단위이면서 커다란 혈연집단이 되어, 육지에서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가졌다는 주장도 있다(김흥식, 1983: 189).

④ 조냥(조냥)정신과 존셈(존셈)

조냥정신은 근검절약하는 습관으로서 사치성을 배격하고 검소한 생활을 선호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궁핍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남에게 의지

36) 김영현, 「이당 저당 해도 ‘권당’ 이 최고」, 한국일보 2016. 3. 8. 기사.

37) 제주지역의 권당문화에서 공식적으로 권당 범위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나 소위 ‘육지사람’ 혹은 ‘외방사람’으로 분류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권당이 나 본토사람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노골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 ‘제주 43’ 과 같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관이나 외부인을 경계하거나 그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종종 “제주도민들은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다” 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진관훈, 2013: 90-91). 배타적이고 사적 신뢰에 의존한 연줄망에만 바탕을 둘 경우, 공동체 전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정기석·안숙영, 2015: 45)는 우려도 있다.

하거나 구걸하여 해결하려 들지 않으며, 분수를 지켜 일하고 일한만큼 받아 그에 만족하는 수분지족(守分知足)의 철학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주의 생활환경에서는 일상생활이 노동 그 자체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제주인들의 기본적 생활태도로 자리 잡게 된 생활덕목이기도 하다.

존셈이란 세심한 주의력을 의미하며 모든 일을 주의 깊게 살피고 꼼꼼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나가는 성격을 말한다. 또한 안정 속에서 착실히 발전을 추구하려는 생활습성이기도 하다(신행철, 2004: 33-36).

(2) 제주의 가족문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가장과 처, 그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직계가족이다. 그러나 제주의 가족형태는 육지부 타지역과 달리 같은 주거공간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살면서도 별도의 생산, 소비 및 별도의 취사를 함으로써(현용준, 1979: 53), 직계가족 형태를 갖는 가족구조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핵가족과 같은 것이다(이광규, 1974: 55).

제주지역의 가족은 우리나라 일반 가족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³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지되면서도 제주도 나름의 독자적 모습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직계가 한 울타리 내의 안거리와 밖거리에 거주하더라도 생산이나 소비 및 취사를 분리하는 가족이 많은데, 이 경우 부모와 자식의 가족은 정서적으로는 서로를 가족으로 인식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생활한다. 개인주의가 발달하여 부모는 늙어도 움직일 수 있는 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여성은 노

38) 그동안 제주의 가족은 다른 지역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 받아왔다. 특히, 제주의 전통적 가족은 장남 분가와 균분 상속의 전통, 부계 혈연집단의 결속 약화, 조상 제사의 분할 등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이창기, 1999; 김혜숙, 199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가족이 비부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선호사상과 축첩제도 등 부계적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도 이루어졌다(강경숙, 2015: 17).

동 경제력과 자의식이 강하며, 제주 특유의 권당문화에 의해 부계친, 외척, 처족이 상호 협조하며 마을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켜 왔다.

제주의 가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분가주의와 강한 독립생활에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장남이라 하더라도 분가를 시킨다. 또한 한 울타리 내의 안거리와 밖거리에 살더라도 부모는 아들·며느리와 ‘솔을 갈라(솔을 구분하여)’ 밥을 따로 해먹는다. 솔을 갈라 살림을 분리하는 철저한 독립정신은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 간 엄격한 수직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서로의 생활공간을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의 사적인 생활을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아, 갈등이 적고 정서적인 유대는 강화된 편이다. 장남까지 분가시키는 것은 가족을 최소의 생계단위로 분산시켜 가능한 한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은 전통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 1인가구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들은 연로해지더라도 가능한 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한다. 바로 이들을 통해 제주지역 가족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분가 의식과, 움직일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노인들의 철저한 독립정신을 엿볼 수 있다(김혜숙, 2006; 디지털 제주시문화대전)³⁹⁾. 늙어서도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을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들내외와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안거리, 밖거리에 거처를 따로 하여 살아올 정도로 제주노인들은 자립적이며, 국내 타지역의 노인들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남에게 신세를 지면 꼭 갚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일하는 것과 여가생활을 분리하지 않아서 노년의 노동을 행복으로 생각한다든지, 자녀와 손자녀에게 용돈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베푸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노인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향하기 때문에

39)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98&callFunc=goSearch0%3B&keyword=%EC%88%98%EB%88%8C%EC%9D%8C>

80세를 전후해서도 경제력⁴⁰⁾을 갖추고 건강하게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주발전연구원 고령사회포럼, 2016: 4-5).

제주의 전통문화를 몇 가지 특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짓(分家)정신으로 대표되는 자주자립, 수눌음정신으로 대표되는 상부상조, 조냥정신으로 대표되는 근면절약 등은 제주인의 정신(윤용택, 2010: 322)으로 표현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제주인들은 적은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눌음을 조직하였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족제도(분가제도)를 두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권당문화)를 마련하여 살아왔다. 물론 그러한 제주의 전통문화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들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조냥정신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다보면 산업을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 소비와 생산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수눌음은 불필요한 과소비를 부추기고, 권당문화는 합리적 선택과 비판마저도 질식시키는 맹목적 연고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대량실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현대사회에 제주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이다. 하지만 전통문화의 내용과 형식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 깃든 정신과 지혜를 보아야 한다. 옛 제주인들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따로’하는 삶(自立)과 ‘함께’하는 삶(共存)을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최선의 합리적 삶을 추구했다. 그러한 제주의 전통문화에 깃든 정신과 지혜를 찾아내는 것은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답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윤용택, 2010: 347).

3) 제주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특징

40) 실제로 제주의 감귤 수확시기에는 70대중후반의 여성고령자가 인부로 고용되어 감귤밭에서 수확 일을 돕는 모습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제주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山南)’에 위치한 서귀포시와 ‘산북(山北)’에 위치한 제주시 간에 행정,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불거져왔었다(고승한, 2010: 26). 그러다가 2006년의 행정시 개편 이후 점차적으로 산남, 산북의 차이보다는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차이로 그 관심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⁴¹⁾.

제주도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4개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된 후, 200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군 단위가 행정시로 통합되어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산하 43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²⁾.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읍·면 지역이 시 산하로 편입되게 되었다. 제주지역은 1시간 이내 생활권이라 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협소한 특징이 있다⁴³⁾. 흔히 동지역을 도시로, 읍·면지역을 농촌으로 구분하지만, 제주의 지리적 협소성으로 농촌지역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도시지역의 직장을 다니는 비영농인구도 적지 않다(신행철, 1995; 이성용 외, 2009; 정기석 외, 2015: 66).

농촌마을로 구분되는 읍·면지역은, 하나의 리(里) 단위 행정구역 내에 복수(웃동네, 알동네, 동동네, 셋동네 식으로) 또는 다수의 자연마을이 입지하고 가구수나 인구수 면에서 읍지부의 지자체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이는 식수원이 희귀한 제주의 지형조건의 영향과 더불어 왜구 등 외부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의미가 결부됨으로써 비교적 큰 집단촌이 형

41) 2012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928호)」가 제정되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태호 외, 2014: 1).

42)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가 있으며, 제주시는 4읍·3면·19동(96리, 442통, 4,093반)이며, 서귀포시는 3읍·2면·12동(76리, 65통, 1,252반)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29).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진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시의 경우 하나의 자치단체 안에 포함되는 비자치단체이나 그 경제적, 지역문화적 여건은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되어 정책수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최영출, 2014: 6).

43) 1963년에 개통된 5·16 도로는 총 연장 43km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생활권을 5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시킨 ‘길의 혁명’으로 꼽힌다(제주특별자치도, 2015: 80).

성된 것이다(정기석 외, 2015: 65).

도시로 구분되는 동지역은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는데, 최근의 환경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신도심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한라산을 경계로 각각 '산남'과 '산북'으로 명명되기도 하는데, 산북 지역인 제주시 중심으로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가 편중되어 있어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이 도정의 과제가 되어 왔다.

고태호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인구증가는 동지역에서 두드러지나, 인구고령화는 읍·면지역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총생산(GRDP)은 동지역이 높고,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사회인프라 또한 동지역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의 읍·면지역은 타 지방의 읍·면과 구조, 조직,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바뀌면서 많은 행정 현장 업무가 읍·면으로 이관된 것이다(황경수 외, 2008: 115). 일반적으로 동지역이 도시지역의 특징을 있다면 읍·면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제주의 읍·면지역 역시 1차산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전통문화적 특징이 동지역보다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지역과의 지리적 거리가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농촌지역이라기 보다는 도농복합지역에 가까운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의 동지역의 특징과 읍·면지역의 특징이 사회의 질과 행복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동지역과, 상대적으로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지역주민들의 인심이 남아 있고 웅덩문화와 수놓음 등 제주의 사회문화적 특징이 동지역보다 두드러지는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의 질과 행복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4) 제주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제주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주발전연구원, 2015; 제주특별자치도, 2015; 고승한, 2016; 제주특별자치도, 2016a),

먼저 인구는 현재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⁴⁴⁾. 2013년에 인구 60만명을 돌파한 제주는 2014년에 62만명을 넘겨, 1836년 75,120명 대비 8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 인구가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는데 반해, 제주 인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구성장률이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가장 높다. 이렇게 제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타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제주 이민'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또한 휴직이나 퇴직 후 제주에서 한 달 동안 지내는 '제주도 한 달 살이'가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 이민' 열풍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등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5: 8). 이러한 인구유입으로 귀농귀촌인,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별 인구는 40-50대 인구가 33.1%로 가장 많으며, 노령화지수 또한 높는데, 2016을 기준으로 유소년 100명당 87.8%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빈곤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은 감소하고 있으나,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꾸준히 소득과 소비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GRDP(지역내 총생산)⁴⁵⁾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2013년 기

44) 제주 순유입 인구는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437명, 2011년 2,342명, 2012년 4,873명, 2013년 7,824명, 2014년 1만명을 넘었고, 2015년 제주 이주민은 약 1만4천명 가량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제주 이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이화진, 2016: 3).

45)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란 시도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지역단위의 종합경제지표이다. 국내총생산(GDP)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준 제주도의 GRDP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89.4% 증가하여, 전국의 GRDP 증가율 85.21%에 비해 4.3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15: 39). 한편 제주도 경제성장률은 5.1%로 전국 2.8%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지역 불균형 격차는 심해져서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소득격차,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증가는 최근 제주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제주 경기의 활성화의 요인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순유입 인구의 증가,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성장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0년 이후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건축경기가 활력을 띠고 있다. 주거용 건물이 늘어나면서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건축경기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격차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주 재정구조를 보면 재정자립도(36.4%), 사회복지재정(20.7%)⁴⁶⁾ 면에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0.6%), 사회복지재정(24.5%)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는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규직 종사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단독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용의 질적 측면(정규직 비율, 임금수준, 근무여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교통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자동차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평균 1.22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0.97대 보다 높아 타지역보다 자동차 보유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 측면에서 집계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5: 20).

46) 제주의 사회복지재정은 2014년에는 20.7%였으나, 2017년에는 19.1%로 낮아졌으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20%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있다. 건설경기 활황과 자동차 대수 증가는 교통 혼잡과 주차공간의 협소 문제를 가져오고 있으며,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범죄발생 건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화재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인 환경은 하천수질이 좋아 맑은 물이 공급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인구증가와 더불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탐라국(섬나라)’⁴⁷⁾으로 시작되어,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며 제주사회가 꾸준히 변화되어 왔으나, 전통적으로 제주는 공업 입지가 불리하기 때문에 도시화가 덜 되고 농업사회적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⁴⁸⁾, 동질성이 유지되는 지역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제주개발⁴⁹⁾이 이루어지고 제주에 유입되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어, 기존의 지역적 색채가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는 곳도 있다.

한편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와 아울러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제주 지역에 변화와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데, 지가 및 주택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빈곤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의 농촌지역에는 어차피 비어있는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례가

4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8815>

48) 제주도는 권역별로 크게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누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고 있지만, 동서남북의 지역적 색채가 뚜렷하고 주민들의 성향도 다르게 인식된다. 북쪽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도심권으로 분류되며, 서쪽은 애월, 한림 등을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온이 온화하고 토양이 좋아서 농업 비중도가 높은 편이다. 동쪽은 구좌, 조천을 중심으로 역시 1차 산업 중심 지역이지만 서쪽에 비해 풍토가 다소 거친 특성을 보인다. 남쪽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보면 기후가 온난하여 감귤농사가 발달하였고, 주민들 역시 다소 느긋한 성향을 보인다.

49)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제주지역개발은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부문별 계획에 의해 추진된 제주개발은 1970년대부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제주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제주지역이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어 외국의 국제자유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부만근, 2012: 5).

적지 않았으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 활황으로 인해, 무상거주 하던 사람들이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빈곤 층인 경우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거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교통난과 주차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5) 제주지역 삶의 행복에 있어 사회의 질이 갖는 의미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위치해 있으므로 육지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앞에서 고찰한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사회문화적 인식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승되어 그 성향들이 남아 있다. 섬지역은 육지와 달리 주민들의 정주기간이 긴 특징이 있어 토박이가 많은 편인데, 이들은 조부모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로부터 전승되는 사회문화적 전통양식을 암묵적으로 계승해 오는 토착민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사회의 질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안정성 차원에서는, 척박한 섬에서 생활을 일구어낸 자립심과 안거리 밖거리의 주거환경, 삼무정신 그리고 조냥정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제주도의 전통사회 성격을 규정하는 데 기초가 된 자연적 환경은 도서성과 저생산성이란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된다. 도서성의 영향은 제주사회의 상대적 고립, 고유성 및 한정성으로 나타났고, 척박한 토지에 의한 저생산성은 힘든 삶의 조건과 평등사회 지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평등사회가 의미하는 바는 잉여생산이 힘든 만큼 계급분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기도 하다. 삼무, 즉 도둑, 거지, 대문 이 세 가지가 없는 살기 좋은 공동체의 전통은 잉여가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

에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조건에 기인한 것이며(이상철, 1996: 24-25), 조냥정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거 제주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오로지 불행만으로 점철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와 더불어 현대 제주의 경제적 발전이 또한 오로지 행복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사회적 응집성 차원에서는 수놓음, 권당문화를 통해 제주 고유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⁰⁾. 제주의 자연적 조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조건은 변방으로 특성화 할 수 있다. 한반도 중심에서 격리되어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탈당하고, 격리되었기 때문에 외세에 이종으로 수탈당한 역사는 제주가 고려시대 이래 변방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적응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인들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속하는 사회적 전통을 형성해 왔다(이상철, 1996: 25). 응집성이 있는 지역사회는 주민들 간의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Lev-Wiesel, 2003: 332) 지역사회가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장이 되고(Lee, 2000), 지역사회의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형성(Rajulton & Ravanera, 2006)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응집성은 주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섬지역 특유의 배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 정착민의 실태를 조사한 이화진(2016)의 연구를 보면⁵¹⁾, 제주 토착민들은 정착민에 대한 느낌을 ‘왠지 모를 불편함’으로 표현하고 있

50) 정기석 등(2015)은 제주도 농촌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및 마을공동체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수놓음을 노동 사회적 자본으로, 권당을 문화 사회적 자본으로 규정한다.

51) 이화진(2016)은 최근 국내에서 제주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정착주민’으로 명명하였고,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먼저 살던 사람을 의미하는 ‘선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제주인을 ‘원주민’이라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주민이라는 용어는 어떤 지역에 본디 살던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문명사회와 대비되는 미개한 이미지가 있다. 또한 일정한 곳에서 대대로 오래도록 살아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토착민’이라는 용어는 미개한 이미지는 없으나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원주민과 비슷하게 사용된다(이화진, 2016: 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주민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이지 않은 이유로 토착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으며, 토착민의 불편한 심기에는 피해의식, 섭섭함, 부러움, 질투 등의 감정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착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뢰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이화진, 2016, 109-110). 즉 정착민이 언젠가는 떠나버릴 것이라는 불신이 은연중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유입과 더불어 정착주민이 급증하면서 각 지역에서 토착민과 정착민이 어떻게 공존하고 상생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착민, 정착민의 이원적인 구분이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공유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사회적 역량강화 차원에서는 섬지역의 지리적 협소성을 들 수 있다. 외세의 끝없는 침입, 4·3사건 등의 역사적 풍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척박한 섬의 환경, 그로 인한 정보의 제한 등은 제주지역의 역량강화 측면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마스크와 교통 통신의 발달 그리고 최근의 제주로 이주하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제주 이민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주가 국내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 사이 제주지역에도 '서울화 된 공간(신도시)'이 등장하면서 행정, 교육,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는 형국이다(강경숙, 2015: 157).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은 사회적 역량강화 차원에서는 이제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반영하여 행복감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자원이 제한적인 척박한 섬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이었으나, 그 대신 근면함을 얻었고 서로 도와 연대하는 지혜로움을 깨쳤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는 구성원 간의 신뢰가 높아 조화로운 공생 발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것(이재열, 2015: 21)을 전제하면, 사회적 응집성 차원에서도 제주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섬사람이 갖는 배타성이나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 따른 정보의 제한이나 교육수준의 한계는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량강화 차원에서

제주 사회의 질과 지역주민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본 최근의 인구·사회·경제적 환경변화는 제주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의 공존의 문제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본에 의한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우려되는 사회양극화가 제주 지역주민의 삶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양상과 내용을 결정하는 사회성의 수준인 사회의 질이 낮을 경우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오히려 저하되는 ‘풍요의 역설’(이재열, 2015: 22-23)을 경험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 역량과 시민적 역량의 총합(이재열, 2015: 14)인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개념 탐색 관련 연구, 행복의 측정과 결정요인 탐색 및 지표개발 연구, 행복도와 정책연계 방안 연구, 그리고 사회의 질과 행복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도록 하겠다⁵²⁾.

1) 행복의 개념 탐색 관련 연구

행복을 추구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철학과 문학 등 인문학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행복의 개념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된 것은

52) 엄밀한 의미에서 각 연구의 내용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큰 틀에서 선행연구들을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음을 밝힌다.

1990년대 중반부터이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행복을 표제어로 둔 연구가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탐색한 연구들은 행복개념 관련 연구(박성환, 2005; 이수정 외, 2005; 김기덕, 2009; 소병철, 2011; 홍병선, 2011; Layard: 2005; Seligman, 2006; Veenhoven, 1993; Veenhoven, 2000; Goldman, 2017)와 더불어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한 연구(김승권 외, 2008; 김희재 외, 2009; 서은국, 2010; 구재선 외, 2011; 이훈희, 2016)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의 내용에서 고찰하였듯이, 행복의 개념에 있어서 행복의 주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행복의 객관적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안녕(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김윤태, 2009: 24). 이것은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며, 이론적 배경에서도 밝혔듯이, 행복의 개념이 다차원적인 탓에 행복,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을 행복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복 관련 외국문헌을 보면 특히 최근에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Diener, 1984; Diener, 1994; Diener et al., 1999; Diener et al., 2015)가 많다는 것(Camfield et al., 2008; Dai et al., 2013; Dehey, et al., 2016; Ponichny, 2016; Jovanović, 2016; Nguyen et al., 2016; Tomny et al., 2017; Antinyan, 2016)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Sarracino, 2012; Klein, 2013; Puntischer et al., 2015; Matsushima et al., 2015; Spruk and Keseljevic, 2016; Jovanović, 2016)들 중 Jovanović(2016)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구성 요소인 신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008)은 주류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속관계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수문화권에서는 소속관계가 문화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Nguyen 등(2016)은 가족 및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가족관계가 건강 및 경제적 지위보다 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mny 등(2017)은 지역을 구분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inyan(2016)은 소득과 삶의 만족 관련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타인이 더 부유한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하는 동시에 상향비교를 하며, 타인이 더 빈곤한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되면서 하향비교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 행복의 결정요인 탐색 및 측정 지표개발 연구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간 많은 학자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왔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연구들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 즉 흔히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분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거주지역, 직업, 소득 등의 지표를 통해 행복수준을 파악하여 왔다.

먼저 성별과 관련하여, 국내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한 것으로 파악(조명한 외, 1994; 차경호, 1999; 김명소 외, 2003)한 반면 외국문헌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수준이 약간 높거나(Wood et al., 1989), 행복에 있어 성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ndrew & Wh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Sauer, 1977; Nolen-Hoeksema & Rusting, 1999).

연령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하다는 연구(Bradburn & Caplovitz, 1965; Wilson, 1967;

Gerdtham & Johannesson, 2001; 최말옥, 2011)가 있는 반면, 연령 차이는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Cameron, 1965; Sauer, 1977; Witt et al., 1980),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연구(Bradburn, 1969; Bortner & Hultsch, 1970; Campbell et al., 1976; Inglehart, 1990; Argyle, 1999), 그리고 젊은 시절에 행복이 최고조에 이르다 차츰 수준이 감소하고 노년기에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하는 이른바 U자형 곡선을 주장한 연구(Gerdtham & Johannesson, 2001; Frijters & Beaton, 2008; 주재선, 2008) 등이 있다.

결혼상태에 있어 일관되게 도출되는 연구결과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Argyle, 1987; Diener et al., 1999; Kahneman et al., 1999; Myers, 2000; Myers, 2003; Diener et al., 2008; Eid & Larsen, 2008; Vinson & Ericson, 2014). 이러한 결과는 연령, 소득, 인종을 초월한 결과로서, 결혼과 행복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첫째, 행복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둘째, 결혼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권석만, 2016: 107)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교는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oberg & Taves, 1965; Kaldor et al., 1984; Witter et al., 1985; Inglehart, 1990; Childs, 2010; Wyshak, 2016), 학력 또한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Wilson, 1967; Gerdtham & Johannesson, 2001; Ball & Chernova, 2008; 최말옥, 2011; Vinson & Ericson, 2014), 거주지역은 도시거주보다 농촌거주가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Gerdtham & Johannesson, 2001; 이미애, 2015; Tonym et al., 2017)가 있다. 퇴직자의 경우는 도시지역의 퇴직자가 농촌지역의 퇴직자보다 행복수준이 높게 나온 결과(Valentini et al., 2017)도 있으나, 이 연구결과는 거주 지역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은퇴 전 은퇴계획에 따른 준비 유무의 결과로 나타났다.

직업은 행복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고(Inglehart, 1990; Argyle, 2001; 주재선, 2007; Selim, 2008), 소득 부문은 소득이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소, 2003; Hagerty & Veenhoven, 2003; Ball & Chernova, 2008; Selim, 2008; 최말옥, 2011).

경제성장에 치중하던 시기에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1974)’ 이후에 경제적 관점에서 행복을 고찰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Lane, 2001; Frey & Stutzer, 2002; Stutzer, 2004; Wyshak, 2016).

Gudmundsdottir(2013)는 소득증가와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대다수의 연구와 달리 소득의 감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덜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을 경우 행복감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Potts(2011)는 사회정책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행복경제학의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 행복경제학은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 및 고용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는 향후 사회복지학과 현장에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효과성 분석 등에 있어 정책의 대상자 혹은 서비스 이용자의 행복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제공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Guillen-Royo와 Kasser(2015)는 개인의 행복이 외적인 목표(재정적 성공, 인기 및 이미지)를 넘어 내적인 목표(자기수용, 소속 및 지역사회 정서)를 우선시함으로써 증가한다는 타 연구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며, 페루의 수도 리마의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빈민가에서는 내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성취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감 감소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회

복지정책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내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데 중요하지만,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반복적으로 좌절되는 상황을 경험할 경우 그들의 행복과 복지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하고 사회정의 및 적극적인 분배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Dolan 등(2008)은, 미국 경제학회의 문헌 검색을 이용하여 ‘Subjective well-being’, ‘Happiness’, ‘Life Satisfaction’을 주제로 1990년에서 2006년 사이 행복을 주제로 출간된 주류 경제학술지의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개인의 행복(well-being)에 영향을 주는 공통 변수로 소득, 개인적 속성, 사회적 속성, 여가활동, 자아/타인/삶에 대한 태도와 신념, 관계, 그리고 더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환경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미리 외, 2015: 9). 또한 최근에는 행복을 결정짓는 영역과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들도 행복의 관점, 행복도의 조작화, 지표체계의 구축, 평가의 목적, 대상, 주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행복도의 측정에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영역과 지표의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박승규 외, 2014: 84).

1990년대 이후 삶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복지가 강조되면서 이전에 이루어지던 경제지표에 의한 연구는 사회복지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학자들은 사회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를 위해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와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을 다룬 삶의 질(Quality of Life : QOL) 지표 등 다양한 측정도구와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요즘 수행되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들도 이러한 측정도구들을 이용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경동 외, 2007: 4-5). 이처럼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이한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다양한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략을 택해 온 반면, 주관적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느낌, 혹은 행복감을 측정하였다(김승권 외, 2008: 94).

Caunt 등(2013)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복의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 사회적 관계가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Bericat(2014)은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의 주관적 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위해 사회정서적 웰빙 지표의 설계, 구성과정, 내용과 타당도를 제시하였다.

Hooghe(2012)는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한 조사에서 행복에 대한 견해와 사회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Sarracino(2012)는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과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포용성 및 행복의 관계를 검토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각 국가들과 UN 및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행복의 요인을 탐색하고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행복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김승권 외, 2008; 김상곤 외, 2008; 박승규 외, 2014; 박승규 외, 2015; 변미리 외, 2015; 황종석, 2016; 전지훈, 2016)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복 결정요인 탐색과 더불어 한국인의 행복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행복지수 개발(이성규 외, 2006; 황명진 외, 2007; 이희길 외, 2009; 김정호 외, 2009; 서은국 외, 2010)도 이루어졌다.

특히 서은국 등(2010)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의 행복지수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다⁵³⁾. 사용이 간편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공정성을 지닌 행복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9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만족에는 자신의 개인적 측면에 대한 만족 외에 대인관계와 소속집단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었고, 정서적 행복은 2회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성수준 고, 중, 저의 긍/부정적 정서 경험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는 문항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서은국·구재선, 2011: 96). 본 연구에서도 제주지역 주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로 ‘한국인의 행복지수 측정 척도’인 단축형 행복 척도를 사용하였다.

3) 행복도와 정책연계 방안 연구

행복도 관련 국내 연구는 국가의 총량적인 비교(정해식, 2012)에서부터 지역별 행복도 비교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서울, 대전, 경기, 제주, 강원, 충남, 부산, 울산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지역주민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내연구는 행복의 결정요인을 탐색(김승권 외, 2008; 김상근 외, 2008; 박승규 외, 2014; 박승규 외, 2015; 변미리 외, 2015; 황종석, 2016; 전지훈, 2016)하고, 지역을 형성하는 권역으로 구분하여 행복 정도를 파악하여 지역별로 행복도를 비교하거나, 정책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김경동 외, 2007; 조권중 외, 2009; 강창민, 2010; 황규선, 2012; 고승희 외, 2012; 임호 외, 2013; 박승규 외, 2014; 최영출, 2014; 김동영 외, 2016).

53) 중앙일보. 2010. 8. 18. 기사 “중앙일보·심리학회 공동기획 - ‘한국인 맞춤형 행복 지수’ 첫 조사”

특히 강창민 등(2010)은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 구조, 지역경제, 사회·문화, 주거 및 환경, 사회복지, 안전 등 6개 부문 29개 세부지표를 사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 후, 전국 16개 시·도의 삶의 질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주지역의 종합순위는 전국 3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인구부문, 지역경제부문, 사회문화부분은 전국 최상위로 나타났고, 주거·환경부문, 안전부문은 전국평균 수준,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연구자 스스로가 언급했듯이(강창민 외, 2010: 78) 주관적 삶의 질을 포함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순위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영출·이지혜(2013)는 제주지역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일자리 정책, 지역 경제, 개인 소득수준, 직업 만족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4) 사회의 질과 행복 관련 연구

사회의 질은 '사회적 맥락상의 일상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사회의 질 연구는 IASQ(International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그 개념과 내용 및 적용에 대한 연구(Beck·Van der Maesen·Walker, 2001; Therborn, 2001; Hermann, 2004; Van der Maesen & Walker, 2004; Hermann, 2005; Hiroi, 2007; Yee & Chang, 2011; Kurian & Uchiyama, 2012; Fairweather et al., 2015; Hiroi, 2015; Lin, 2015; Van der Maesen, 2015; Walker, 2015)들이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의 질 개

념을 통해 연구한 학자는 이재열(2007)인데, 그는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사회의 질을 연구하였고, 정해식(2012)은 OECD의 2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을 측정하여 복지국가 수준을 이해하고 국민행복을 설명하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회의 질이 주관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Lin et al., 2009; Walker, 2009; Ward & Meyer, 2009; Yuan & Golpelwar, 2013; 이미애, 2015).

Haller와 Hadler(2006)는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구조가 어떻게 행복과 불행을 창출하는지를 연구하였다. 행복과 삶의 만족은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미시적 사회통합과 사회문화적 통합은 행복과 관련이 있고, 국가경제, 소득분배, 정치적 자유 같은 거시적 사회의 조건과 제도들이 행복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국 이 연구는 사회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조건과 개인의 특성 및 열망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므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복의 조건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Vinson과 Ericson(2014)은 삶의 만족과 행복을 형성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결과는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통합적 업무의 가치를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다룰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결정의 실천원칙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사회의 질 관점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bbot(2006)은 사회의 질 모델을 활용하여 런던시민의 주관적인 행복(happiness)과 그들의 사회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의 질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질 네 영역은 개별적으로 행복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런던의 경우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역량강화는 강하지만,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은 우려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Abbot은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 문항들이 사회 또는 사회 환경을 특징짓는 사회의 질 지표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각 도시의 사회적 환경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Abbot, 2007: 69).

임호 등(2013)은 Abbot(2006)의 런던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산지역의 사회의 질을 조사 분석하였는데, 부산지역의 사회의 질은 사회적 역량 강화,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경제적 안전성 순으로 나타났다.

조권중 등(2009)은 사회의 질에 기초한 접근을 통하여 서울시 현황을 점검하고 성숙한 도시를 위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였다.

강재정·조부연(2013)은 사회의 질 만족도와 경제적 요인이 제주도민의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사회의 질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위요인으로 문화교육, 복지환경, 편의시설, 행복서비스, 이웃관계 요인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 네 영역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Yuan 등(2013)은 사회의 질 관점에서 상하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검증하였다. 결과를 보면, 주택소유, 재정, 사회참여, 사회적 신뢰, 고독감, 사회적 소외 등이 주관적 안녕감의 예측요인임을 확인하였는데, 주관적 안녕감이 중간 이하로 낮은 사람들의 경우 제도적 신뢰가 주관적 안녕감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Delhey와 Dragoliv(2016)은 유럽의 2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응집성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응집력이 강한 사회에서 더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부유한 사회일수록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 간의 공생과 연대, 즉 응집력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Saunders(2013)는 지역사회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와 사회

적 포용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특히 이민자들 사이에서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인류의 행복에 대한 관심,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행복연구는 주로 국가차원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제주지역에서 사회의 질 관점을 적용하여 행복을 고찰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의 시대적인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제주지역을 읍·면과 동 지역으로 나눠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그 행복의 요인과 수준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연구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제주지역 주민의 행복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제주지역의 읍·면과 동, 전반의 행복수준을 기술적 자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Ⅲ.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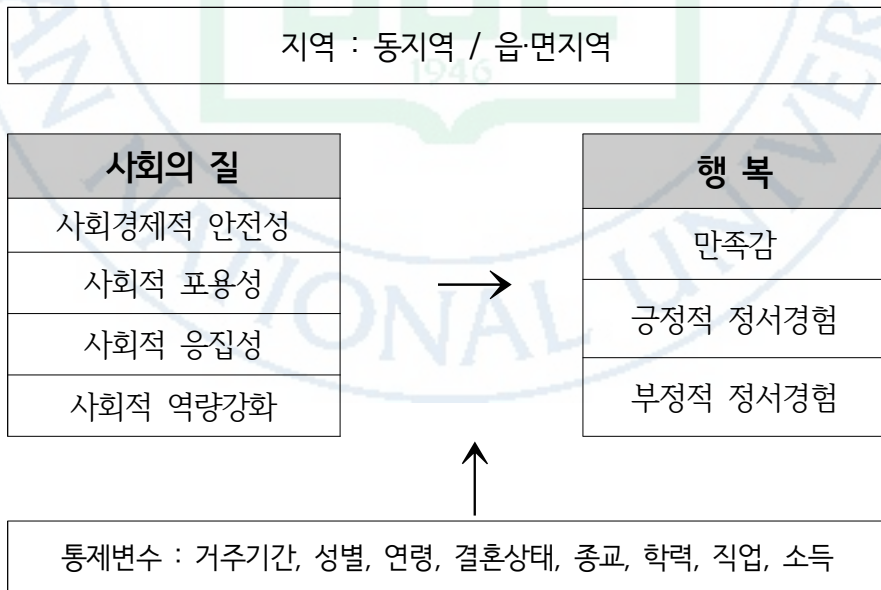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과 지역주민의 행복수준을 검증하고,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특징을 보이는 동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특징을 보이는 읍·면지역을 구분하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의 질, 종속변수는 행복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의 질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량강화의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종속변수인 행복은 만족감,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거주기간,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직업, 소득을 포함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洞)지역과 읍·면(邑·面)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간 행복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제주도의 총인구는 590,473명이며, 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437,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4.0%를 차지하고 있다. 읍·면지역 주민은 153,333명으로 전체인구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는 제주도의 각 읍·면·동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한 후, 각 지역의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할당표집을 활용하였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지역간 삶의 행복도를 비교하는 연구목적을 생각할 때 지역별 분포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이 특정 연령대와 특정 성별로 편향되지 않도록 전체인구의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또한 할당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제주도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는 아래의 <표Ⅲ-1>과 같다. 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응답가능성을 고려하여 20대 이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령별 분포는 20대 이상 인구만을 제시하였다.

제주도 전체인구에서 남성인구는 295,875명으로 전체인구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지역과 읍·면지역 안에서 분포도 각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이상 인구에서 40대가 104,091명, 전체연령대비 1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가 90,314명, 15.3%, 30대가 81,887명, 13.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령대별 분포는 성별분포와 달리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지역에는 전체인구 연령대 분포와 같이 40대가 79,469명 18.2%로 가장 많고, 30대와 50대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각각 14.8%, 14.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50대가

25,259명 16.5%로 가장 많고, 40대가 24,622명, 16.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지역에 비해 60대와 70대 이상 인구의 비율은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1> 제주도 20대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대별 분포

변수	구분	동		읍·면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별	남	218,412	49.9	77,463	50.5	295,875	50.1	
	여	218,728	50.1	75,870	49.5	294,598	49.9	
20 대 이 상	연 령 대 1)	20대	51,020	11.7	14,388	9.4	65,408	11.1
		30대	64,498	14.8	17,389	11.3	81,887	13.9
		40대	79,469	18.2	24,622	16.1	104,091	17.6
		50대	65,055	14.9	25,259	16.5	90,314	15.3
		60대	36,924	8.4	18,124	11.8	55,048	9.3
		70대이상	33,318	7.6	24,700	16.1	58,018	9.8
전체인구 2)		437,140	74.0	153,333	26.0	590,473	100	

- 1) 연령대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각 연령대 인구 비율
- 2) 전체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동, 읍·면 인구 비율

본 연구의 조사대상 분포는 위와 같은 제주도 전체 인구분포와 매우 유사하게 표집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조사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30.1%를 차지하고, 50대가 24.8%, 30대가 20.0%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도 모두 유사한 응답순위를 보이고 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응답자의 비중도 전체 응답자의 66.5%와 33.5%를 차지하여, 제주도 전체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인구 비율인 74.0%, 26.0%와 유사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다중이용시설(병·의원, 복지관, 복지센터, 식당, 마트, 미용실 등)에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조사기간은 2017년 3월 15일부터 2017년 4월 5일까지였다. 먼저 예비조사는 지역주민 남성 5명,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각 문항의 응답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용어와 문장을 수정하였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수정한 설문문항으로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인구분포 및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할당한 후, 각 지역에서 임의표집을 통해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482부였고 회수율은 96.4%였다. 설문 내용 중 고정응답 및 결측값이 많은 설문지 20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자료 분석에 활용한 설문지는 462부이다.

3. 변수의 설정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로 지역주민의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를 검증하고,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사회의 질, 종속변수는 행복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변수 및 척도는 다음 <표Ⅲ-2>와 같다.

<표 III-2> 변수 및 척도의 유형과 내용

구분	변수명	내용	출처	문항수	신뢰도(α)	
					하위	전체
종속 변수	행복	만족감	‘한국인의 행복지수 척도’ (서은국 외, 2010)	3	.854	.874
		긍정적 정서경험		3	.899	
		부정적 정서경험		3	.849	
독립 변수	사회의 질	사회경제적 안정성	‘세계 10대 도시 행복도 측정 문항’ (서울복지재단 /김경동 외, 2007)	3	.718	.859
		사회적 포용성		3	.714	
		사회적 응집성		3	.620	
		사회적 역량강화		3	.685	
통계 변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직업, 소득, 제주거주기간, 동네거주기간	-	9	-	

1) 행복지수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행복’이다. 행복지수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은국 등(2010)이 개발한 <한국인의 행복지수 측정 문항>인 “단축형 행복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연구를 토대로 행복의 인지적 요소(삶의 만족)와 정서적 요소(긍정 또는 부정적 정서 경험의 빈도)가 반영되어 있다. 행복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은 삶의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복의 정서적 요소는 Russell(1980)의 모델에 근거하여 각성-비각성, 쾌-불쾌의 2차원으로 구분하여 각성 수준 고, 중, 저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은국 외, 2010: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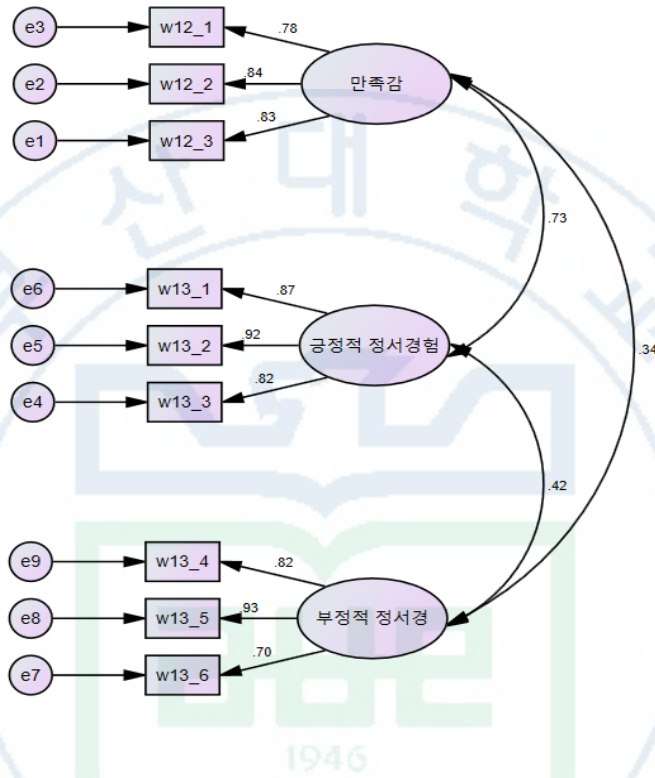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행복지수 척도는 전체 9개 문항(7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개의 범주로 구분(만족감,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되어 있다. 만족감은 개인적 만족감, 관계적 만족감, 집단적 만족감으로 세부적으로 구성되며, 긍정적 정서경험은 고각성 긍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저각성 긍정적 정서의 하위문항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정서경험은 고각성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저각성 부정적 정서로 구성되어진다.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 분석한 서은국 등(2010)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3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874 수준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3개요인 9개 문항 전체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서는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⁵⁴⁾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는 모형의 간명성 및 부합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도 지수는 RMSEA, CFI, TLI 등이 있다. RMSEA는 보통 $\leq .05$ 이면 모델오류의 정도가 아주 작은 양호한 모델로 평가하고 $.05 < \text{RMSEA} < .08$ 이면 적절한 수준, $\text{RMSEA} \geq .10$ 이면 부합도에 문제가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RMSEA는 평균값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90%의 신뢰구간에 따른 RMSEA 상한치를 확인한 다음 상한치가 평가기준 .10이하가 될 경우 모델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카이자승은 $p > .05$ 이 양호한 수준이다(문수백, 2012: 451-470). 결과, 측정모형 적합도는 χ^2 은 58.59로 유의하였으나($p < .001$). 카이자승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고 다른 적합도 지수가 모두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고려해야 한다. TLI 값은 .986,

54) 요인분석에 있어서 이미 개발된 어떤 측정도구가 신뢰 있고 타당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간, 장소, 대상 등을 달리한 상황 하에서도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적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문수백, 2012: 523).

CFI 값은 .980, RMSEA값(HI90)은 .074로 전술한 바와 같이 χ^2 을 제외한 모든 값이 권장 수요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표 III-3> 행복지수 모델 부합도 지수

구분	χ^2 검증					TLI	CFI	RMSEA	
		df	24	p	.000			LO90	HI90
모형	58.59	df	24	p	.000	.986	.980	.038	.074
수용기준 55)	p>.05					.09이상	.09이상	.05~.08	.10이하

* 모든 경로는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함

55) 모형적합도의 수용기준은 채구묵(2014), 문수백(2012)을 참고하였음.

2) 사회의 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사회의 질’이다. 삶의 질은 현존하는 환경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도록 디자인된 잠재적으로 무한한 지표들의 목록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는 반면, 사회의 질은 발전하는 환경에서 개별 주체로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초점을 둔다. 또한 이 척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필요(need), 행위(action), 정책(policies)간의 필수적 연계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Abbot, 2007).

사회의 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측정을 위한 지표의 개발은 EU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003년에 이르러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차원(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에 대한 지표가 개발되어 지표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이 기계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평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임호 외, 2013).

사회의 질 관점의 대표적인 활용사례로 세계 10개 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행해진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프로젝트’가 있다(김승권 외, 2008: 77). 2006년 세계 10개 도시에서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행한 연구인데,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활용된 문항과, Abbot(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참고하여 다음 <표 III-4>와 같이 정리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III-4> 사회의 질 측정 문항⁵⁶⁾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기회 · 물가 · 안전한 수돗물 · 공기오염 · 건강관리 환경 ·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기회 · 방문객에게 지역 소개 · 야간시간대 안전 · 행정서비스 민원처리 · 행정서비스 투명성 · 지역에 대한 자긍심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시 도움 체계 · 아이 양육 및 보호 환경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 대중교통 이용 편리 · 이웃과 함께 할 장소 · 식료품을 구입 용이 · 이웃과 함께 할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여가활동 여건 · 교육환경 · 정보접근성 · 건강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인간의 삶을 위한 물질적·환경적 자원을 사회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물질적 자원을 측정하는 문항은 경제활동 기회와 물가, 환경적 자원을 측정하는 문항은 물, 공기,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이타심이 발휘되는 봉사활동의 기회,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량과 자긍심,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야간시간대의 안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제도와 사회관계에 사람들이 얼마나 접근 가능하고 그것에 통합되고 있는가를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위기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 양육과 보호환경, 사회적 약자를

56) 각 문항의 세부내용은 <부록 1. 설문지> 참조

위한 편의시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서비스 접근성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 이웃과 함께하는 경험 등의 문항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사회적 역량강화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 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강화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 여건, 교육환경, 정보 접근성, 건강 등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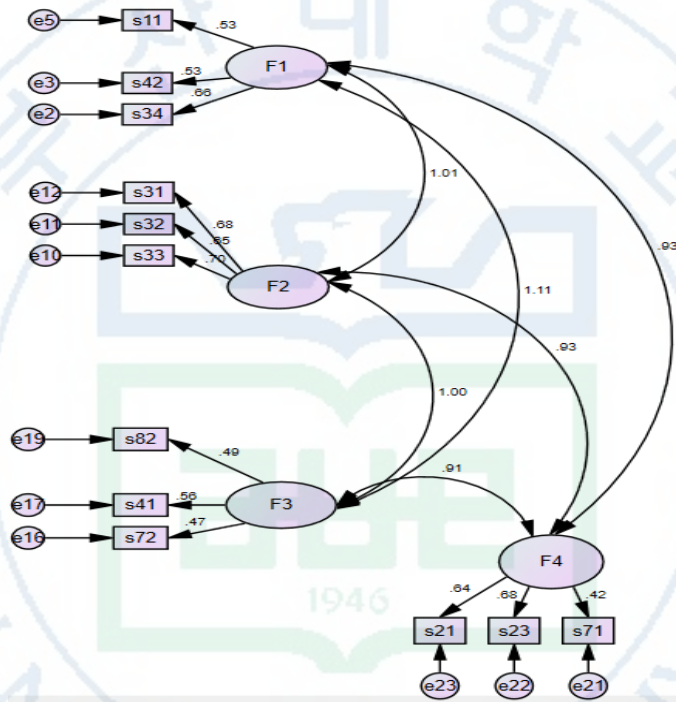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이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의 4개 영역 23개 문항 중 12개 문항이 신뢰도(.859)와 요인타당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서는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의 질이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설명력이 높은 문항들을 선별하여 분석한 것이다.

사용한 문항은 다음 <표Ⅲ-5>와 같다.

<표Ⅲ-5> 사회의 질 분석 문항

구분	문항
사회 경제적 안전성	1-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다
	3-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건강관리 환경에 만족한다
	4-2) 교통사고, 재해·재난 등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사회적 응집성	8-2)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마련되어 있다
	4-1) 밤에 거리를 다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7-2) 관공서(제주시/서귀포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처리한다
사회적 포용성	3-1) 장래에 나 또는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3-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좋은 곳이다
	3-3)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및 보호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사회적 역량 강화	2-1) 주변에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2-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만족한다
	7-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얻는데 편리하다

요인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 적합도로 χ^2 은 205.81로 유의하였으나($p < .001$), 전술한 바와 같이 카이제곱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 TLI는 .913, CFI는 .932, RMSEA(HI90)는 .074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χ^2 을 제외하고 모든 값의 모형적합도는 권장 수요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표III-6> 사회의 질 모델 부합도 지수

구분	χ^2 검증				TLI	CFI	RMSEA		
	205.81	df	71	p			LO90	HI90	
모형	205.81	df	71	p	.000	.913	.932	.054	.074
수용기준	p>.05				.09이상	.09이상	.05~.08	.10이하	

* 모든 경로는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함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다. 자료분석 시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검증, ANOVA, 상관관계분석 및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각 변수들 간의 구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수준의 파악과 데이터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 결측자료 및 이상치 등 자료와 관련된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등 자료의 분포적·관계적 문제의 점검에는 왜도와 첨도 등의 수치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신뢰도검증(크론바알파)과 AMOS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의 통제변수 기준 집단 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t-검증, ANOVA를 사용하였다.

넷째,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변수간 다중공선성 파악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 전체에 대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행복지수의 하위요인인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경험, 긍정적 정서경험에 대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IV-1>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 중 동지역 특성과 읍·면지역 특성의 차이가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차이로 인함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과 동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41.7%(192명), 여성이 58.3%(268명)으로 여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이에서는 40대 30.1%(138명), 50대 24.8%(114명), 30대 20.0%(92명)의 순으로 많았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이에 대한 평균차이를 t-테스트를 통해 확인한 바,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차이는 약 2.5세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상태에서는 74%(342명)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에서는 종교없음이 36.4%(168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불교 27.3%(126명), 기독교 18.4%(85명), 천주교 12.8%(5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에서는 대졸이 56.1%(2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24.6%(113명)로 다음으로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학력 수준은 50%이상이 대졸로 학력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은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chi^2=48.99$, $p<.001$).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전문

관리직이 19.2%(88명), 사무 18.6%(85명), 농/축/수산업 11.4%(52명), 서비스/판매직 11.4%(52명)의 순으로 많았으며, 동지역에서는 전문/관리직이 22.6%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20.7%의 순으로 많았다. 읍·면지역에서는 농/축/수산업이 24.2%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이 15.0%의 순으로 많았다. 두 집단 간의 차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읍·면지역의 농/축/수산업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인 도시와 농촌의 직업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표집한 데이터가 대표성을 띠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소득에서는 100~200만원 미만이 32.3%(147명)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이 29.7%(135명), 300~400만원 미만 15.2%(69명)의 순으로 많았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거주기간에서는 50년이상인 21.7%(99명)로 가장 많았고, 40~50년 미만이 20.6%(94명)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2.9년(sd=18.5)으로 나타났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서는 χ^2 과 t-테스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동지역은 14.7년, 읍·면지역은 20.5년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이 현재 지역에서 약 5년 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이주 경향이 낮을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분석된 결과를 요약해보면, 성별, 결혼상태, 학력, 소득, 제주거주기간 등의 대부분의 변수에서 두 집단 간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나이, 직업, 동네거주기간도 일반적으로 농촌과 도시의 차이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동과 읍·면 두 지역에서 표집한 표본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IV-1> 인구사회학적 특성 (N=462)

변수 ⁵⁾	구분	동		읍·면		전체		X ² / t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	123	40.2	69	44.8	192	41.7	.895
	여	183	59.8	85	55.2	268	58.3	
나이	20대	31	10.1	14	9.2	45	9.8	4.722
	30대	69	22.5	23	15.0	92	20.0	
	40대	90	29.4	48	31.4	138	30.1	
	50대	74	24.2	40	26.1	114	24.8	
	60대	32	10.5	22	14.4	54	11.8	
	70대 이상	10	3.3	6	3.9	16	3.5	
	평균(sd)	45.45(12.4)	47.90(12.5)	46.27(12.5)	-1.992*			
결혼 상태	배우자있음	225	73.1	117	76.0	342	74.0	2.948
	사별	10	3.2	6	3.9	16	3.5	
	이혼	5	1.6	5	3.2	10	3.5	
	별거	2	0.6	1	0.6	3	0.6	
	미혼	64	20.8	24	15.6	88	19.0	
	기타	2	0.6	1	0.6	3	0.6	
종교	기독교	55	17.9	30	19.5	85	18.4	2.740
	천주교	40	13.0	19	12.3	59	12.8	
	불교	81	26.3	45	29.2	126	27.3	
	원불교	2	0.6	0	0.0	2	0.4	
	없음	117	38.0	51	33.1	168	36.4	
	기타	13	4.2	9	5.8	22	4.8	
학력	중졸이하	16	5.2	11	7.1	27	5.9	13.230*
	고졸	65	21.2	48	31.2	113	24.6	
	대재(전문대포함)	9	2.9	2	1.3	11	2.4	
	대졸(전문대포함)	173	56.5	85	55.2	258	56.1	
	대학원졸	36	11.8	7	4.5	43	9.3	
	기타	7	2.3	1	0.6	8	1.7	
직업	농/축/수산	15	4.9	37	24.2	52	11.4	48.988***
	전문/관리	69	22.6	19	12.4	88	19.2	
	사무	63	20.7	22	14.4	85	18.6	
	서비스/판매	29	9.5	23	15.0	52	11.4	
	기능/단순노무	14	4.6	4	2.6	18	3.9	
	사회서비스	31	10.2	9	5.9	40	8.7	
	주부	30	9.8	19	12.4	49	10.7	

	학생	4	1.3	2	1.3	6	1.3	
	무직	17	5.6	6	3.9	23	5.0	
	기타	33	10.8	12	7.8	45	9.8	
소득	100미만	21	6.9	12	7.9	33	7.3	8.755
	100~200미만	94	31.0	53	34.9	147	32.3	
	200~300미만	83	27.4	52	34.2	135	29.7	
	300~400미만	48	15.8	21	13.8	69	15.2	
	400~500미만	27	8.9	7	4.6	34	7.5	
	500~600미만	13	4.3	4	2.6	17	3.7	
	600이상	17	5.6	3	2.0	20	4.4	
제주 거주 기간	10년미만	48	15.7	25	16.4	73	16.0	8.145
	10~20년미만	17	5.6	16	10.5	33	7.2	
	20~30년미만	61	20.0	18	11.8	79	17.3	
	30~40년미만	54	17.7	25	16.4	79	17.3	
	40~50년미만	59	19.3	35	23.0	94	20.6	
	50년이상	66	21.6	33	21.7	99	21.7	
	평균(sd)	33.0(18.4)		32.7(18.8)		32.9(18.5)		
동네 거주 기간	10년미만	132	43.4	58	38.4	190	41.8	20.653**
	10~20년미만	80	26.3	22	14.6	102	22.4	
	20~30년미만	41	13.5	22	14.6	63	13.8	
	30~40년미만	24	7.9	16	10.6	40	8.8	
	40~50년미만	17	5.6	20	13.2	37	8.1	
	50년이상	10	3.3	13	8.6	23	5.1	
	평균(sd)	14.7(13.9)		20.5(17.6)		16.6(15.5)		

*p<.05, **p<.01, ***p<.001

2) 주요변수의 표본 특성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57) 본 조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462명의 데이터로 각 변수의 합계가 462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임을 알려준다.

아래 <표IV-2>는 제주지역 주민의 사회의 질, 행복지수에 관한 평균과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사회의 질 전체는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건별로는 사회적 응집성이 3.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사회경제적 안정성이 3.22점, 사회적 역량강화 3.17점, 사회적 포용성 3.0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7점 만점에 4.75점으로 보통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경험 4.90점, 만족감 4.75점, 부정적 정서경험 4.45점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본의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첨도와 왜도의 값을 분석하였다. 첨도와 왜도의 해석에는 절대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보여 지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왜도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Kline, 2005; 최윤정, 2010: 92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왜도값은 최저 .10~최고 .71로 나타나,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IV-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n=462)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사회의 질						
sq1: 사회경제적 안정성	1.67	5.00	3.22	.54	-.01	.52
sq2 : 사회적 포용성	1.00	5.00	3.04	.77	-.08	-.30
sq3 : 사회적 응집성	1.00	5.00	3.29	.68	-.34	.71
sq4 : 사회적 역량강화	1.00	5.00	3.17	.74	.06	-.15
행복지수						
hi1 : 만족감	2.00	7.00	4.88	.97	.20	-.38
hi2 : 긍정적 정서경험	1.00	7.00	4.90	1.05	-.09	.25
hi3 : 부정적 정서경험	1.00	7.00	4.45	1.20	-.08	-.10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제주지역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과 t-test 분석을 활용하였다. 일원변량분석에서 사후분석은 scheffe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①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IV-3>과 같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60, p<.05$). 남성은 3.38점, 여성은 3.22점으로 남성이 .1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두 집단 간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n=460)

			N	평균	표준 편차	t
사 회 의 질	사회경제적 안정성	남	192	3.20	0.52	-.584
		여	268	3.23	0.55	
		총계	460	3.22	0.54	
	사회적 포용성	남	192	3.07	0.79	.813
		여	268	3.01	0.75	
		총계	460	3.03	0.77	
	사회적 응집성	남	192	3.38	0.66	2.601*
		여	268	3.22	0.68	
		총계	460	3.29	0.68	
	사회적 역량강화	남	192	3.20	0.76	.881
		여	268	3.14	0.72	

		총계	460	3.17	0.74	
행 복 지 수	만족감	남	192	4.90	0.97	.304
		여	268	4.87	0.97	
		총계	460	4.88	0.97	
	긍정적 정서경험	남	192	4.90	1.04	-.010
		여	268	4.90	1.05	
		총계	460	4.90	1.04	
	부정적 정서경험	남	192	4.34	1.23	-1.663
		여	268	4.53	1.17	
		총계	460	4.45	1.20	

*p<.05, **p<.01, ***p<.001

② 연령에 따른 차이 검증

연령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IV-4>와 같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적 응집성(F=4.03, p<.01)과 사회적 역량강화(F=2.6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연령대에 따라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량강화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나, 사후 분석결과에서는 각 집단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에서는 부정적 정서경험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15, p<.001). 사후분석의 결과 40대와 50대는 20대와 30대에 비해서 부정적 정서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연령에 따른 차이 검증(n=459)

		N	평균	표준 편차	F	post-hoc
사회 경제적 안정성	20대(a)	45	3.08	0.52	1.146	-
	30대(b)	92	3.20	0.45		
	40대(c)	138	3.22	0.53		

	50대(d)	114	3.27	0.58		
	60대(e)	54	3.28	0.61		
	70대이상(f)	16	3.08	0.49		
	총계	459	3.22	0.54		
사회적 포용성	20대(a)	45	3.19	0.51	.991	-
	30대(b)	92	2.99	0.71		
	40대(c)	138	2.96	0.84		
	50대(d)	114	3.04	0.78		
	60대(e)	54	3.12	0.84		
	70대이상(f)	16	3.21	0.74		
	총계	459	3.04	0.77		
사회적 응집성	20대(a)	45	3.42	0.50	4.030**	-
	30대(b)	92	3.04	0.67		
	40대(c)	138	3.29	0.68		
	50대(d)	114	3.33	0.69		
	60대(e)	54	3.41	0.71		
	70대이상(f)	16	3.58	0.61		
	총계	459	3.29	0.68		
사회적 역량강화	20대(a)	45	3.13	0.71	2.638*	-
	30대(b)	92	2.95	0.71		
	40대(c)	138	3.21	0.74		
	50대(d)	114	3.21	0.71		
	60대(e)	54	3.28	0.88		
	70대이상(f)	16	3.47	0.57		
	총계	459	3.17	0.74		
만족감	20대(a)	45	4.82	1.07	1.350	-
	30대(b)	92	4.77	1.00		
	40대(c)	138	5.05	0.90		
	50대(d)	114	4.80	0.85		
	60대(e)	54	4.95	1.19		
	70대이상(f)	16	4.75	1.08		
	총계	459	4.89	0.97		
긍정적	20대(a)	45	4.55	1.10	1.848	-

정서경험	30대(b)	92	4.77	1.17		
	40대(c)	138	5.02	0.94		
	50대(d)	114	4.98	0.97		
	60대(e)	54	4.97	1.17		
	70대이상(f)	16	4.96	0.88		
	총계	459	4.90	1.04		
부정적 정서경험	20대(a)	45	3.90	1.14	9.153***	a, b<c, d
	30대(b)	92	3.95	1.15		
	40대(c)	138	4.81	1.08		
	50대(d)	114	4.58	1.12		
	60대(e)	54	4.40	1.40		
	70대이상(f)	16	4.96	1.14		
	총계	459	4.45	1.20		

*p<.05, **p<.01, ***p<.001

③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 검증

결혼상태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IV-5>와 같다. 결혼상태에 따른 사회의 질, 행복지수 모든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V-5>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 검증(n=462)

		N	평균	표준 편차	F	post-hoc
사회 경제적 안정성	배우자있음	342	3.25	0.55	1.913	-
	사별	16	3.09	0.65		
	이혼	10	3.13	0.39		
	별거	3	2.67	0.33		
	미혼	88	3.14	0.48		
	기타	3	3.67	0.67		
	총계	462	3.22	0.54		
사회적	배우자있음	342	3.01	0.79	2.163	-

포용성	사별	16	2.94	0.77		
	이혼	10	2.67	0.70		
	별거	3	2.44	0.69		
	미혼	88	3.20	0.63		
	기타	3	3.67	1.53		
	총계	462	3.04	0.77		
사회적 응집성	배우자있음	342	3.27	0.69	.429	-
	사별	16	3.21	0.76		
	이혼	10	3.50	0.63		
	별거	3	3.22	0.38		
	미혼	88	3.34	0.63		
	기타	3	3.44	0.96		
	총계	462	3.29	0.68		
사회적 역량강화	배우자있음	342	3.20	0.75	.973	-
	사별	16	2.83	0.60		
	이혼	10	3.07	0.83		
	별거	3	2.89	1.02		
	미혼	88	3.13	0.71		
	기타	3	3.33	0.88		
	총계	462	3.17	0.74		
만족감	배우자있음	342	4.89	0.96	.329	-
	사별	16	4.58	0.80		
	이혼	10	4.97	1.09		
	별거	3	4.89	1.02		
	미혼	88	4.89	1.05		
	기타	3	4.89	0.69		
	총계	462	4.88	0.97		
긍정적 정서경험	배우자있음	342	4.98	1.00	1.795	-
	사별	16	4.58	1.04		
	이혼	10	4.67	1.31		
	별거	3	4.56	0.69		
	미혼	88	4.68	1.17		
	기타	3	5.33	0.33		

	총계	462	4.90	1.05		
부정적 정서경험	배우자있음	342	4.52	1.14	2.133	-
	사별	16	4.60	1.10		
	이혼	10	4.63	1.79		
	별거	3	5.11	0.84		
	미혼	88	4.10	1.31		
	기타	3	4.11	2.17		
	총계	462	4.45	1.20		

*p<.05, **p<.01, ***p<.001

④ 종교에 따른 차이 검증

종교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IV-6>과 같다. 사회의 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행복지수에서는 만족감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36, p<.05). 그러나 사후분석의 결과에서는 각 종교별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IV-6> 종교에 따른 차이 검증(n=462)

		N	평균	표준 편차	F	post-hoc
사회 경제적 안정성	기독교	85	3.17	0.58	.315	-
	천주교	59	3.23	0.52		
	불교	126	3.26	0.53		
	원불교	2	3.17	0.24		
	없음	168	3.21	0.53		
	기타	22	3.25	0.55		
	총계	462	3.22	0.54		
사회적 포용성	기독교	85	3.25	0.67	2.083	-
	천주교	59	2.86	0.76		
	불교	126	3.00	0.92		
	원불교	2	3.17	0.71		

	없음	168	3.01	0.69		
	기타	22	3.08	0.62		
	총계	462	3.04	0.77		
사회적 응집성	기독교	85	3.41	0.56	.951	-
	천주교	59	3.19	0.66		
	불교	126	3.30	0.82		
	원불교	2	3.33	0.00		
	없음	168	3.26	0.61		
	기타	22	3.24	0.64		
	총계	462	3.29	0.68		
사회적 역량강화	기독교	85	3.20	0.69	.707	-
	천주교	59	3.01	0.72		
	불교	126	3.21	0.87		
	원불교	2	3.33	0.00		
	없음	168	3.17	0.67		
	기타	22	3.20	0.69		
	총계	462	3.17	0.74		
만족감	기독교	85	5.05	0.88	2.362*	-
	천주교	59	5.14	0.96		
	불교	126	4.80	1.00		
	원불교	2	4.67	0.47		
	없음	168	4.82	0.98		
	기타	22	4.50	0.96		
	총계	462	4.88	0.97		
긍정적 정서경험	기독교	85	5.09	0.87	2.068	-
	천주교	59	5.04	1.06		
	불교	126	4.93	1.08		
	원불교	2	4.17	0.24		
	없음	168	4.81	1.10		
	기타	22	4.45	0.87		
	총계	462	4.90	1.05		
부정적 정서경험	기독교	85	4.51	1.16	.903	-
	천주교	59	4.68	1.37		

	불교	126	4.44	1.18		
	원불교	2	5.17	0.71		
	없음	168	4.34	1.22		
	기타	22	4.38	0.83		
	총계	462	4.45	1.20		

*p<.05, **p<.01, ***p<.001

⑤ 학력에 따른 차이 검증

학력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IV-7>과 같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정성($F=2.32, p<.05$), 사회적 포용성($F=2.96, p<.05$), 사회적 응집성($F=2.7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위 변인 모두 사후분석에서는 학력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에서 확인되는 결과의 경향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안정성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사회적 포용성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대학교 재학 중인 주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응집성에서도 대학원 졸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나머지 학력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행복지수에서는 만족감($F=3.18, p<.01$), 긍정적 정서경험($F=3.18, p<.01$)과 부정적 정서경험($F=4.5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만족감을 제외한 두 변인에서 사후분석의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력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정서경험에서는 대학교 재학 중인 주민보다 대학원을 졸업한 주민이 높은 긍정적 정서경험을 보였다. 부정적 정서경험에서는 대학원 졸업 응답자가 대학교 재학과 대학교 졸업한 자에 비해 부정적 정서경험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학력에 따른 차이 검증(n=460)

		N	평균	표준 편차	F	post-hoc
사회 경제적 안정성	중졸이하(a)	27	3.14	0.52	2.316*	-
	고졸(b)	113	3.18	0.57		
	대학교 재학(c)	11	3.24	0.40		
	대학교졸업(d)	258	3.26	0.52		
	대학원졸업(f)	43	3.26	0.53		
	기타(g)	8	2.67	0.73		
	총계	460	3.22	0.54		
사회적 포용성	중졸이하(a)	27	3.20	0.69	2.962*	-
	고졸(b)	113	2.87	0.82		
	대학교 재학(c)	11	3.39	0.63		
	대학교졸업(d)	258	3.05	0.71		
	대학원졸업(f)	43	3.23	0.83		
	기타(g)	8	2.60	1.14		
	총계	460	3.03	0.77		
사회적 응집성	중졸이하(a)	27	3.29	0.55	2.726*	-
	고졸(b)	113	3.23	0.66		
	대학교 재학(c)	11	3.55	0.51		
	대학교졸업(d)	258	3.26	0.67		
	대학원졸업(f)	43	3.59	0.73		
	기타(g)	8	2.96	0.90		
	총계	460	3.29	0.68		
사회적 역량강화	중졸이하(a)	27	3.34	0.68	2.166	-
	고졸(b)	113	3.09	0.73		
	대학교 재학(c)	11	3.06	0.73		
	대학교졸업(d)	258	3.14	0.72		
	대학원졸업(f)	43	3.45	0.73		
	기타(g)	8	2.88	1.34		
	총계	460	3.16	0.74		
만족감	중졸이하(a)	27	4.57	0.94	2.738*	-
	고졸(b)	113	4.80	1.02		
	대학교 재학(c)	11	4.52	0.83		
	대학교졸업(d)	258	4.92	0.94		
	대학원졸업(f)	43	5.29	0.88		
	기타(g)	8	4.67	1.35		
	총계	460	4.89	0.97		
긍정적 정서경험	중졸이하(a)	27	4.96	0.84	3.183**	c < f
	고졸(b)	113	4.80	1.08		
	대학교 재학(c)	11	4.15	1.11		
	대학교졸업(d)	258	4.92	1.02		
	대학원졸업(f)	43	5.33	0.87		
	기타(g)	8	4.46	1.79		
	총계	460	4.91	1.05		

부정적 정서경험	중졸이하(a)	27	4.42	1.10	4.527***	c,d < f
	고졸(b)	113	4.56	1.19		
	대학교 재학(c)	11	3.52	1.27		
	대학교졸업(d)	258	4.33	1.16		
	대학원졸업(f)	43	5.02	1.28		
	기타(g)	8	5.08	1.21		
	총계	460	4.45	1.20		

*p<.05, **p<.01, ***p<.001

⑥ 직업에 따른 차이 검증

직업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IV-8>과 같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적 응집성(F=3.3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사후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확인되었다. 농/축/수산업 종사자는 주부에 비해서 사회적 응집성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복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직업에 따른 차이 검증(n=462)

		N	평균	표준 편차	F	post-hoc
사회 경제적 안정성	농/축/수산업(a)	52	3.22	0.57	1.046	-
	전문직/관리직(b)	88	3.30	0.53		
	사무직(c)	85	3.17	0.45		
	서비스/판매직(d)	52	3.07	0.60		
	기능/단순노무직(e)	18	3.20	0.56		
	사회서비스 관련(f)	40	3.25	0.59		
	주부(g)	49	3.29	0.56		
	학생(h)	6	3.00	0.30		
	무직(정년퇴직포함)(i)	23	3.29	0.61		
	기타(j)	45	3.22	0.47		
	총계	458	3.22	0.54		
사회적	농/축/수산업(a)	52	3.16	0.76	1.878	-
	전문직/관리직(b)	88	3.17	0.79		

포용성	사무직(c)	85	2.92	0.66	3.330**	a > g
	서비스/판매직(d)	52	2.94	0.84		
	기능/단순노무직(e)	18	3.02	0.74		
	사회서비스 관련(f)	40	3.12	0.80		
	주부(g)	49	2.74	0.72		
	학생(h)	6	3.33	0.67		
	무직(정년퇴직포함)(i)	23	3.13	0.93		
	기타(j)	45	3.14	0.71		
	총계	458	3.04	0.77		
사회적 응집성	농/축/수산업(a)	52	3.51	0.58	3.330**	a > g
	전문직/관리직(b)	88	3.40	0.71		
	사무직(c)	85	3.20	0.53		
	서비스/판매직(d)	52	3.12	0.75		
	기능/단순노무직(e)	18	3.28	0.66		
	사회서비스 관련(f)	40	3.38	0.74		
	주부(g)	49	2.95	0.66		
	학생(h)	6	3.62	0.63		
	무직(정년퇴직포함)(i)	23	3.43	0.72		
	기타(j)	45	3.32	0.65		
	총계	458	3.28	0.68		
사회적 역량강화	농/축/수산업(a)	52	3.16	0.79	1.447	-
	전문직/관리직(b)	88	3.34	0.79		
	사무직(c)	85	3.02	0.59		
	서비스/판매직(d)	52	3.18	0.82		
	기능/단순노무직(e)	18	3.15	0.65		
	사회서비스 관련(f)	40	3.10	0.80		
	주부(g)	49	2.99	0.72		
	학생(h)	6	3.16	0.66		
	무직(정년퇴직포함)(i)	23	3.32	0.83		
	기타(j)	45	3.26	0.69		
	총계	458	3.17	0.74		
만족감	농/축/수산업(a)	52	5.01	1.08	.678	-
	전문직/관리직(b)	88	4.98	0.97		
	사무직(c)	85	4.78	0.77		
	서비스/판매직(d)	52	4.76	0.91		
	기능/단순노무직(e)	18	4.78	0.96		
	사회서비스 관련(f)	40	4.90	1.13		
	주부(g)	49	4.78	0.96		
	학생(h)	6	4.56	1.03		
	무직(정년퇴직포함)(i)	23	5.04	1.15		
	기타(j)	45	4.99	1.03		
총계	458	4.88	0.97			
긍정적	농/축/수산업(a)	52	5.01	1.15	1.343	-

정서경험	전문직/관리직(b)	88	4.95	0.94	1.281	-
	사무직(c)	85	4.75	0.94		
	서비스/판매직(d)	52	4.86	1.02		
	기능/단순노무직(e)	18	4.81	0.96		
	사회서비스 관련(f)	40	4.84	1.21		
	주부(g)	49	4.91	1.02		
	학생(h)	6	3.89	1.44		
	무직(정년퇴직포함)(i)	23	5.06	1.09		
	기타(j)	45	5.17	1.10		
	총계	458	4.90	1.04		
부정적 정서경험	농/축/수산업(a)	52	4.32	1.25	1.281	-
	전문직/관리직(b)	88	4.48	1.32		
	사무직(c)	85	4.25	1.10		
	서비스/판매직(d)	52	4.61	1.09		
	기능/단순노무직(e)	18	4.14	0.86		
	사회서비스 관련(f)	40	4.44	1.42		
	주부(g)	49	4.68	1.14		
	학생(h)	6	3.72	1.31		
	무직(정년퇴직포함)(i)	23	4.84	1.30		
	기타(j)	45	4.41	1.08		
총계	458	4.44	1.20			

*p<.05, **p<.01, ***p<.001

⑦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소득 수준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IV-9>와 같다. 사회의 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복지수에서는 만족감(F=4.65, p<.001)과 긍정적 정서경험(F=3.8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에서는 만족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00~4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100만원 미만이나, 100~200만원 미만보다는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경험에서는 100만원 미만을 제외한 다른 소득분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더 경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9>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n=462)

		N	평균	표준 편차	F	post-hoc
사회 경제적 안정성	100미만(a)	33	3.17	0.54	.822	-
	100~200미만(b)	147	3.15	0.53		
	200~300미만(c)	135	3.26	0.58		
	300~400미만(d)	69	3.27	0.54		
	400~500미만(e)	34	3.27	0.40		
	500~600미만(f)	17	3.29	0.51		
	600이상(g)	20	3.17	0.50		
	총계	455	3.22	0.54		
사회적 포용성	100미만(a)	33	3.08	0.75	.584	-
	100~200미만(b)	147	2.99	0.75		
	200~300미만(c)	135	3.04	0.79		
	300~400미만(d)	69	3.00	0.88		
	400~500미만(e)	34	3.19	0.76		
	500~600미만(f)	17	2.92	0.55		
	600이상(g)	20	3.22	0.63		
	총계	455	3.04	0.77		
사회적 응집성	100미만(a)	33	3.25	0.71	1.057	-
	100~200미만(b)	147	3.25	0.62		
	200~300미만(c)	135	3.24	0.71		
	300~400미만(d)	69	3.34	0.73		
	400~500미만(e)	34	3.51	0.66		
	500~600미만(f)	17	3.27	0.62		
	600이상(g)	20	3.43	0.71		
	총계	455	3.29	0.68		
사회적 역량강화	100미만(a)	33	3.27	0.66	1.625	-
	100~200미만(b)	147	3.08	0.75		
	200~300미만(c)	135	3.14	0.71		
	300~400미만(d)	69	3.25	0.82		
	400~500미만(e)	34	3.47	0.72		
	500~600미만(f)	17	3.06	0.65		
	600이상(g)	20	3.19	0.72		
	총계	455	3.17	0.74		
만족감	100미만(a)	33	4.43	1.10	4.645***	a, b < d
	100~200미만(b)	147	4.67	0.98		
	200~300미만(c)	135	4.95	0.95		
	300~400미만(d)	69	5.18	0.92		
	400~500미만(e)	34	5.13	0.87		
	500~600미만(f)	17	5.06	0.47		
	600이상(g)	20	5.25	0.94		
	총계	455	4.89	0.97		
긍정적 경서경험	100미만(a)	33	4.90	1.11	3.894**	-
	100~200미만(b)	147	4.60	1.07		

	200~300미만(c)	135	4.99	0.95		
	300~400미만(d)	69	5.10	1.16		
	400~500미만(e)	34	5.22	0.90		
	500~600미만(f)	17	5.31	0.74		
	600이상(g)	20	5.17	1.10		
	총계	455	4.91	1.05		
부정적 정서경험	100미만(a)	33	4.37	1.05	1.863.	-
	100~200미만(b)	147	4.22	1.26		
	200~300미만(c)	135	4.49	1.13		
	300~400미만(d)	69	4.57	1.27		
	400~500미만(e)	34	4.71	1.08		
	500~600미만(f)	17	4.95	1.19		
	600이상(g)	20	4.55	1.39		
	총계	455	4.44	1.21		

*p<.05, **p<.01, ***p<.001

⑧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 검증

가. 제주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검증

제주 거주기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IV-10>과 같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적 역량강화(F=2.3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10~20년 미만이 3.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50년 이상이 3.31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행복지수에서는 부정적 정서경험(F=4.6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분석에서는 10년미만 제주에 거주한 주민이 20~30년 미만에 비해서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0> 제주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검증(n=462)

		N	평균	표준 편차	F	post-hoc
사회경제 적 안정성	10년미만(a)	73	3.18	0.58	1.636	-
	10~20년미만(b)	33	3.22	0.56		
	20~30년미만(c)	79	3.15	0.48		
	30~40년미만(d)	79	3.14	0.51		
	40~50년미만(e)	94	3.31	0.54		
	50년이상(f)	99	3.30	0.55		
	총계	457	3.22	0.54		
사회적 포용성	10년미만(a)	73	3.08	0.79	.504	-
	10~20년미만(b)	33	3.05	0.68		
	20~30년미만(c)	79	3.11	0.61		
	30~40년미만(d)	79	3.06	0.73		
	40~50년미만(e)	94	2.94	0.90		
	50년이상(f)	99	3.02	0.80		
	총계	457	3.04	0.77		
사회적 응집성	10년미만(a)	73	3.26	0.75	.924	-
	10~20년미만(b)	33	3.21	0.63		
	20~30년미만(c)	79	3.29	0.55		
	30~40년미만(d)	79	3.19	0.70		
	40~50년미만(e)	94	3.30	0.73		
	50년이상(f)	99	3.39	0.65		
	총계	457	3.29	0.68		
사회적 역량강화	10년미만(a)	73	3.20	0.78	2.335*	-
	10~20년미만(b)	33	3.37	0.73		
	20~30년미만(c)	79	3.14	0.68		
	30~40년미만(d)	79	2.98	0.67		
	40~50년미만(e)	94	3.13	0.75		
	50년이상(f)	99	3.31	0.78		
	총계	457	3.17	0.74		
만족감	10년미만(a)	73	4.97	1.07	.330	-
	10~20년미만(b)	33	5.00	1.07		
	20~30년미만(c)	79	4.90	0.95		
	30~40년미만(d)	79	4.81	0.98		
	40~50년미만(e)	94	4.89	0.88		
	50년이상(f)	99	4.86	0.98		
	총계	457	4.89	0.97		
긍정적 정서경험	10년미만(a)	73	5.10	1.13	1.394	-
	10~20년미만(b)	33	4.92	1.24		
	20~30년미만(c)	79	4.68	1.11		
	30~40년미만(d)	79	4.84	1.04		
	40~50년미만(e)	94	4.91	0.91		
	50년이상(f)	99	4.98	1.00		
	총계	457	4.90	1.05		

부정적 정서경험	10년미만(a)	73	4.74	1.34	4.626***	a > c
	10~20년미만(b)	33	4.45	1.37		
	20~30년미만(c)	79	4.06	1.16		
	30~40년미만(d)	79	4.13	1.06		
	40~50년미만(e)	94	4.65	1.08		
	50년이상(f)	99	4.62	1.20		
	총계	457	4.45	1.21		

*p<.05, **p<.01, ***p<.001

나. 현재 사는 동네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검증

현재 사는 동네의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IV-11>과 같다. 사회의 질 및 행복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1> 현재 사는 동네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검증(n=462)

		N	평균	표준 편차	F	post-hoc
사회경제 적 안정성	10년미만(a)	190	3.17	0.50	.862	-
	10~20년미만(b)	102	3.23	0.56		
	20~30년미만(c)	63	3.25	0.61		
	30~40년미만(d)	40	3.22	0.54		
	40~50년미만(e)	37	3.34	0.55		
	50년이상(f)	23	3.29	0.54		
	총계	455	3.22	0.54		
사회적 포용성	10년미만(a)	190	3.05	0.72	.172	-
	10~20년미만(b)	102	3.05	0.74		
	20~30년미만(c)	63	3.04	0.84		
	30~40년미만(d)	40	2.97	0.86		
	40~50년미만(e)	37	3.09	0.87		
	50년이상(f)	23	3.13	0.80		
	총계	455	3.05	0.77		
사회적 응집성	10년미만(a)	190	3.23	0.66	1.913	-
	10~20년미만(b)	102	3.25	0.56		
	20~30년미만(c)	63	3.33	0.73		
	30~40년미만(d)	40	3.33	0.76		
	40~50년미만(e)	37	3.47	0.79		
	50년이상(f)	23	3.59	0.55		

	총계	455	3.30	0.67		
사회적 역량강화	10년미만(a)	190	3.18	0.74	.645	-
	10~20년미만(b)	102	3.20	0.71		
	20~30년미만(c)	63	3.16	0.76		
	30~40년미만(d)	40	3.02	0.82		
	40~50년미만(e)	37	3.15	0.67		
	50년이상(f)	23	3.35	0.76		
	총계	455	3.17	0.74		
만족감	10년미만(a)	190	4.89	0.99	.557	-
	10~20년미만(b)	102	4.89	0.96		
	20~30년미만(c)	63	4.81	0.92		
	30~40년미만(d)	40	4.79	0.95		
	40~50년미만(e)	37	5.09	1.03		
	50년이상(f)	23	5.01	0.99		
	총계	455	4.89	0.97		
공정적 정서경험	10년미만(a)	190	4.94	1.13	.313	-
	10~20년미만(b)	102	4.88	1.05		
	20~30년미만(c)	63	4.78	0.93		
	30~40년미만(d)	40	4.91	0.97		
	40~50년미만(e)	37	5.00	0.93		
	50년이상(f)	23	4.97	1.00		
	총계	455	4.91	1.05		
부정적 정서경험	10년미만(a)	190	4.48	1.25	1.055	-
	10~20년미만(b)	102	4.28	1.20		
	20~30년미만(c)	63	4.55	1.03		
	30~40년미만(d)	40	4.60	1.16		
	40~50년미만(e)	37	4.66	1.22		
	50년이상(f)	23	4.19	1.38		
	총계	455	4.45	1.21		

*p<.05, **p<.01, ***p<.001

⑨ 지역에 따른 차이 검증

제주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IV-12>와 같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정성($t=3.29$, $p<.01$), 사회적 포용성($t=2.16$, $p<.05$), 사회적 역량강화($t=3.7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한 결과를 보인 사회의 질 하위변인들에서 모두 동지역에서 미세하게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복감의 하위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표 IV-12> 지역(동지역/읍·면지역)에 따른 차이 검증(n=462)

읍면동		N	평균	표준 편차	t
사회경제적 안정성	동지역	308	3.28	0.52	3.29**
	읍면지역	154	3.11	0.56	
사회적 포용성	동지역	308	3.09	0.74	2.16*
	읍면지역	154	2.93	0.81	
사회적 응집성	동지역	308	3.29	0.66	.30
	읍면지역	154	3.27	0.71	
사회적 역량강화	동지역	308	3.26	0.72	3.76***
	읍면지역	154	2.99	0.75	
만족감	동지역	308	4.89	0.97	.18
	읍면지역	154	4.87	0.98	
긍정적 정서경험	동지역	308	4.89	1.05	-.25
	읍면지역	154	4.92	1.05	
부정적 정서경험	동지역	308	4.43	1.16	-.34
	읍면지역	154	4.48	1.28	

*p<.05, **p<.01, ***p<.001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 위주로 결과를 제시해보면,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경험($r=.66$, $p<.001$),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량강화($r=.63$, $p<.001$),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응집성($r=.61$, $p<.001$)의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응집성과 만족감($r=.33$, $p<.001$), 사회적 역량강화와 긍정적 정서경험($r=.30$, $p<.001$)의 순으로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나머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부정적 정서경험, 사회적 포용성과 부정적 정서경험, 사회적 역량강화와 부정적 정서경험의 관계 등 3개의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였다.

통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과 종교($r=.18, p<.001$), 학력과 직업(농축수산업, $r=-.27, p<.001$), 학력과 직업(관리직, $r=.31, p<.001$) 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80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 간의 관계가 없는 것이며, 이는 다중공선성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표 IV-1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① 성별	1																
② 연령	-.042	1															
③ 배우자	-.029	.052	1														
④ 학력	-.069	-.056	-.101*	1													
⑤ 종교	.175***	.051	.147**	-.097*	1												
⑥ 농/축/수산업	-.075	.012	.117*	-.272***	.113*	1											
⑦ 관리직	-.055	-.102*	-.041	.306***	-.122**	-.276***	1										
⑧ 기능직	-.044	-.054	-.040	-.085	.032	-.199***	-.433***	1									
⑨ 기타	-.038	.153**	-.085	.013	.027	-.123**	-.266***	-.193***	1								
⑩ 소득	.083	.006	.055	-.048	.063	-.050	-.080	-.075	.081	1							
⑪ 동네거주기간	-.074	-.009	.035	-.180***	.107*	.299***	-.124**	-.054	-.002	-.022	1						
⑫ sq1(사회경제적 안정성)	.031	.105*	.095*	.065	.011	-.002	.020	-.071	.019	.086	.086	1					
⑬ sq2(사회적 포용성)	-.034	-.017	-.058	.087	.028	.058	.011	-.012	.036	-.009	.011	.362***	1				
⑭ sq3(사회적 응집성)	-.119*	.022	-.043	.044	.033	.118*	.014	-.040	.030	.007	.136**	.227***	.607***	1			
⑮ sq4(사회적 역량강화)	-.039	.060	.069	.025	-.002	-.005	.017	-.016	.054	-.037	.000	.352***	.625***	.539***	1		
⑯ hi1(만족감)	-.015	-.025	.019	.088	.047	.045	-.001	-.040	.034	-.014	.030	.142**	.261***	.332***	.271***	1	
⑰ hi2(공정적 정서경험)	.003	.025	.128**	.044	.068	.037	-.037	-.032	.079	-.023	.001	.130**	.242***	.276***	.299***	.659***	1
⑱ hi3(부정적 정서경험)	.073	.038	.105*	-.046	.066	-.037	-.052	.012	.010	.049	.013	-.024	.002	.149**	.047	.326***	.406***

*p<.05, **p<.01, ***p<.001

3. 다중회귀분석 결과

제주지역 주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읍·면지역,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절차는 먼저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측정하였고, 읍·면과 동을 묶은 전체 제주지역 주민들의 행복 결정요인을 순서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하위요인인 만족감,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 등 하위요인 3개를 각각 독립적으로 종속변인으로 삼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만족감,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의 총합산점수를 행복지수 종속변인으로 삼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회의 질이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본 회귀식은 행복지수의 하위변인 중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 <표IV-14>와 같다.

먼저 동지역의 만족감 결정요인을 확인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64$, $p<.01$), 설명력은 18.7%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에서는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73$, $p<.01$). 사회의 질의 하위변인에서는 사회적 응집성($\beta=.291$, $p<.001$)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회귀식에서 만족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적 응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보면,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대졸이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사회적 응집성이 높을수록 만족감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읍·면지역의 만족감 결정요인을 확인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읍·면·동을 모두 묶어 살펴본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51, p<.001). 설명력은 10.4%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사회적 응집성($\beta=.236$, p<.001), 사회적 역량강화($\beta=.13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본 회귀식에서 만족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적 응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읍·면·동 지역 중 동지역의 회귀식만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의 질 변인은 동 지역에서 더 적합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읍·면·동을 모두 묶어서 살펴본 전체 모형의 설명력이 도시지역에 비해 다소 작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의 질이 동지역에 보다 적합한 모델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동지역에서 사회의 질은 사회적 응집성만 유의하였고, 전체에서는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량강화가 유의하였다. 이는 같은 사회의 질의 하위 변인이라도 읍·면·동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다른 변인이 만족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중공선성의 검증을 위해 다중팽창지수(VIF)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일반적인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VIF값 10의 수치를 넘은 변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다중공선성의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4> 사회의 질이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동			읍·면			전체		
	B	β	t	B	β	t	B	β	t
성별a)	-.093	-.047	-.866	.237	.120	1.305	.047	.024	.506
연령	-2.59 1E-05	-.002	-.028	-.001	-.103	-1.214	.000	-.030	-.656
배우자a)	.079	.037	.665	-.067	-.029	-.349	.055	.025	.538
학력a)	.380	.173	3.133**	-.103	-.051	-.545	.170	.081	1.652
종교a)	.026	.013	.245	.256	.123	1.458	.080	.040	.848
직 농/축/수	-.280	-.063	-1.062	.207	.090	.725	.043	.014	.240

업 a)	산업									
	관리직	.108	.056	.707	-.183	-.082	-.677	-.047	-.024	-.354
	기능직	.072	.032	.428	-.263	-.113	-1.021	-.049	-.022	-.346
	기타	.012	.004	.062	.406	.116	1.182	.061	.019	.355
소득		.002	.029	.540	-.011	-.120	-1.456	-.002	-.022	-.472
동네거주기간		.005	.067	1.213	-.002	-.028	-.317	.001	.020	.412
사 회 의 질	사회경제적 안정성	.141	.076	1.275	-.062	-.036	-.393	.073	.041	.817
	사회적 포용성	.001	.001	.011	.084	.070	.606	.006	.004	.068
	사회적 응집성	.433	.291	4.023***	.150	.109	1.026	.341	.236	3.934***
	사회적 역량강화	.190	.142	1.916	.151	.115	1.053	.171	.130	2.104*
F		5.638***			1.638			4.511***		
R2(adj R2)		.227(.187)			.154(.060)			.134(.104)		
Durbin-watson		1.532			1.599			1.506		

*p<.05, **p<.01, ***p<.001.

a) 더미변수 (성별: 남성, 여성, 배우자: 있음, 없음, 학력: 고졸이하, 대재이상, 종교: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직업: 비경제활동, ※밑줄은 기준변수)

2) 사회의 질이 긍정적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

본 회귀식은 행복지수의 하위변인 중 긍정적 정서경험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 <표IV-15>와 같다.

먼저 동지역의 긍정적 정서경험 결정요인을 확인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55, p<.001), 설명력은 18.4%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에서는 배우자 유무($\beta=.139$, p<.05)와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19$, p<.05). 사회의 질의 하위변인에서는 사회적 역량강화($\beta=.221$, p<.05)가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회귀식에서 긍정적 정서경험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적 역량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해석해보면,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없는 주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주민이 더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대졸이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긍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읍·면지역의 긍정적 정서경험 결정요인을 확인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읍·면·동을 모두 묶어 살펴본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82, p<.001$). 설명력은 11.2%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배우자 유무($\beta=.128, p<.01$)가 유일하였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적 응집성($\beta=.164, p<.01$)과 사회적 역량강화($\beta=.197,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본 회귀식에서 긍정적 정서경험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적 역량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동지역의 회귀식만 유의하였다. 이 또한 사회의 질 변인이 긍정적 정서경험을 설명함에 있어 동지역에서 더 적합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만족감의 결과와 동일하게 읍·면·동을 모두 묶어서 살펴본 전체 모형의 설명력이 도시지역에 비해 다소 작았다.

동지역에서 사회의 질은 사회적 역량강화만 유의하였고, 전체에서는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량강화가 유의하였다. 이는 만족감에서 사회적 응집성이 유의하였던 것과 다르게 사회적 역량강화가 긍정적 정서경험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족감과 동일하게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VIF값 10의 수치를 넘은 변수는 없어 다중공선성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5> 사회의 질이 긍정적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동			읍·면			전체			
	B	β	t	B	β	t	B	β	t	
성별a)	-.003	-.001	-.024	.023	.011	.119	.082	.038	.821	
연령	.002	.092	1.719	-.001	-.109	-1.300	.000	.024	.520	
배우자a)	.327	.139	2.506*	.138	.056	.681	.305	.128	2.766**	
학력a)	.284	.119	2.146*	-.122	-.057	-.611	.108	.047	.971	
종교a)	-.010	-.005	-.088	.300	.136	1.616	.070	.032	.694	
직업 a)	농/축/수 산업	.013	.003	.044	-.228	-.093	-.753	.022	.007	.113
	관리직	.196	.093	1.170	-.462	-.196	-1.617	-.047	-.022	-.325
	기능직	.128	.052	.698	-.262	-.106	-.959	-.009	-.004	-.056
	기타	.318	.097	1.478	.447	.120	1.227	.255	.075	1.373
소득	.002	.025	.463	-.015	-.163	-1.987	-.003	-.037	-.817	
동네거주기간	.000	-.002	-.038	-.002	-.034	-.376	-.001	-.009	-.184	
사 회 의 질	사회경제적 안정성	.094	.046	.775	-.131	-.070	-.777	.011	.006	.117
	사회적 포용성	.140	.098	1.276	-.097	-.076	-.657	.017	.013	.195
	사회적 응집성	.220	.136	1.876	.283	.194	1.831	.256	.164	2.746**
	사회적 역량강화	.322	.221	2.977*	.241	.172	1.580	.280	.197	3.202**
F	5.549***			1.709			4.820***			
R2(adj R2)	.224(.184)			.160(.066)			.141(.112)			
Durbin-watson	1.722			1.778			1.684			

*p<.05, **p<.01, ***p<.001.

a) 더미변수 (성별: 남성, 여성, 배우자: 있음, 없음, 학력: 고졸이하, 대재이상, 종교: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직업: 비경제활동, *밑줄은 기준변수)

3) 사회의 질이 부정적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

본 회귀식은 행복지수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정서경험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부정적 정서경험의 원 측정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경험이 많은 것이나,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점수화 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IV-16>과 같다.

먼저 동지역의 부정적 정서경험 결정요인을 확인한 바,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784, $p < .05$),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에서는 배우자 유무($\beta = .138$, $p < .05$)가 유의하였다. 사회의 질의 하위변인에서는 사회적 응집성($\beta = .262$,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위 결과를 해석해보면,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고, 사회적 응집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읍·면 지역의 부정적 정서경험 결정요인을 확인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1.932$, $p < .05$), 설명력은 8.5%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농/축/수산업($\beta = -.335$, $p < .01$)과 기능직($\beta = -.300$,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80$, $p < .01$). 이를 해석해보면 비경제활동 주민에 비해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부정적 정서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기능직도 동일하게 해석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사회적 응집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경험을 덜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읍·면·동을 모두 묶어 살펴본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2.370$, $p < .01$).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배우자 유무($\beta = .117$, $p < .05$), 직업에서 농/축/수산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적 응집성($\beta = .263$,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 및 해석해보면, 주목할 만한 것은 설명력의 크기에서 읍·면지역의 설명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다른 행복지수의 하위 변수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직업군에서 유의한 변인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사회의 질 하위변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정서경험은 직업군에 따른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읍·면에 거주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농/축/수산업 및 기능직 종사자가 비경제활동 주민에 비해서 부정적 정서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며 읍·면·동 전체 모두에서 사회의 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응집성이 동일하게 유의한 변인으로 판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경험을 감소시킴에 있어 모든 읍·면·동에서 사회적 응집성 향상을 주요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 회귀식 모두에서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VIF값 10의 수치를 넘은 변수는 없어 다중공선성의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6> 사회의 질이 부정적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동			읍·면			전체			
	B	β	t	B	β	t	B	β	t	
성별a)	.151	.064	1.067	.273	.106	1.164	.208	.085	1.752	
연령	.001	.046	.785	.001	.080	.966	.001	.043	.913	
배우자a)	.361	.138	2.292*	.228	.076	.922	.322	.117	2.438*	
학력a)	.118	.045	.742	-.471	-.178	-1.932	-.097	-.037	-.732	
종교a)	.027	.011	.189	.220	.081	.971	.067	.027	.556	
직업 a)	농/축/수 산업	-.274	-.051	-.789	-1.010	-.335	-2.738*	-.465	-.122	-2.023*
	관리직	.111	.047	.548	-.617	-.212	-1.772	-.190	-.076	-1.106
	기능직	.327	.120	1.480	-.912	-.300	-2.740*	-.117	-.041	-.637
	기타	.307	.084	1.181	-1.075	-.235	-2.424*	-.106	-.027	-.478
소득	.005	.053	.893	.000	.002	.030	.002	.019	.408	

동네거주기간	.005	.055	.926	-.004	-.051	-.573	.001	.007	.141	
사회의 질	사회경제적 안정성	-.113	-.050	-.774	-.282	-.123	-1.378	-.133	-.059	-1.146
	사회적 포용성	-.225	-.142	-1.703	-.024	-.015	-.133	-.179	-.114	-1.696
	사회적 응집성	.472	.262	3.331**	.503	.280	2.667**	.474	.263	4.250***
	사회적 역량강화	.050	.031	.385	-.102	-.059	-.549	-.011	-.007	-.103
F	1.784*			1.932*			2.370**			
R2(adj R2)	.085(.037)			.177(.085)			.075(.043)			
Durbin-watson	1.732			1.724			1.726			

*p<.05, **p<.01, ***p<.001.

a) 더미변수 (성별: 남성, 여성, 배우자: 있음, 없음, 학력: 고졸이하, 대재이상, 종교: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직업 : 비경제활동, *밑줄은 기준변수)

4) 사회의 질이 전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본 회귀식은 행복의 하위변인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묶은 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 <표IV-17>과 같다.

먼저 동지역의 행복 결정요인을 확인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96, p<.001), 설명력은 16.4%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에서는 배우자 유무($\beta=.134$, p<.05)와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34$, p<.05). 사회의 질의 하위변인에서는 사회적 응집성($\beta=.285$, p<.001), 사회적 역량강화($\beta=.158$,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위 결과를 해석해보면, 배우자가 있으면 더 행복감을 느끼고, 학력은 고졸이하에 비해서 대학재학이상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량강화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지각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회적 응집성은 동지

역에서 행복감의 설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읍·면지역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91$, $p<.05$), 설명력은 8.3%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직업에서 기능직($\beta=-.233$, $p<.05$)이었고,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이 유의하였다($\beta=.257$, $p<.05$).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 주민에 비해 기능직을 가진 주민이 덜 행복해 한다는 의미이며, 사회적 응집성이 높은 주민은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읍·면·동을 모두 묶어 살펴본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45$, $p<.001$). 설명력은 10.2%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배우자 유무($\beta=.117$, $p<.05$)가 유일하였다. 사회의 질에서는 사회적 응집성($\beta=.279$, $p<.001$)과 사회적 역량강화($\beta=.126$,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미를 살펴보면, 동지역은 배우자가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으며,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량강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느꼈다. 읍·면지역은 사회적 응집성만이 행복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설명력 면에서도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해석해보면, 사회의 질은 제주지역에서는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짐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이며, 특히 사회의 질 하위변인 중 유의한 변인이 동지역이 더 많은 것도 이를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17> 사회의 질이 전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변수	동			읍·면			전체			
	B	β	t	B	β	t	B	β	t	
성별a)	.018	.011	.191	.178	.102	1.121	.112	.065	1.372	
연령	.001	.058	1.071	.000	-.043	-.513	.000	.018	.406	
배우자a)	.256	.134	2.385*	.100	.049	.597	.227	.117	2.504*	
학력a)	.261	.134	2.398*	-.232	-.130	-1.408	.060	.032	.661	
종교a)	.014	.008	.148	.259	.140	1.689	.072	.041	.870	
직업 a)	농/축/수 산업	-.181	-.046	-.763	-.344	-.169	-1.378	-.134	-.049	-.844
	관리직	.138	.080	1.005	-.421	-.214	-1.787	-.095	-.054	-.801
	기능직	.176	.088	1.167	-.479	-.233	-2.130*	-.058	-.029	-.462
	기타	.213	.080	1.201	-.074	-.024	-.247	.070	.025	.458
소득	.003	.045	.826	-.009	-.109	-1.345	-.001	-.014	-.311	
동네거주기간	.003	.050	.889	-.002	-.049	-.556	.000	.007	.149	
사 회 의 질	사회경제적 안정성	.041	.025	.410	-.158	-.103	-1.145	-.016	-.010	-.200
	사회적 포용성	-.028	-.024	-.312	-.012	-.011	-.100	-.052	-.047	-.717
	사회적 응집성	.375	.285	3.887***	.312	.257	2.448*	.357	.279	4.653***
	사회적 역량강화	.188	.158	2.108*	.097	.083	.771	.147	.126	2.040*
F	4.961***			4.909*			4.449***			
R2(adj R2)	.205(.164)			.175(.083)			.132(.102)			
Durbin-watson	1.514			1.605			1.478			

*p<.05, **p<.01, ***p<.001.

a) 더미변수 (성별: 남성, 여성, 배우자: 있음, 없음, 학력: 고졸이하, 대재이상, 종교: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직업: 비경제활동, ※밑줄은 기준변수)

4. 논의 및 함의

본 연구는 제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과 행복의 수준을 파악하고, 제주지역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각 변인의 차이를 파악하며, 사회의 질과 행복 간의 인과관계를 동지역과 읍·면지역,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요인의 차이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사회의 질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른 논의 및 함의는 크게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 특징, 둘째, 제주지역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 셋째, 거주기간과 행복의 관계, 넷째, 사회의 질과 행복 논의의 함의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 특징

제주지역 주민의 사회의 질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사회의 질 전체는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으로 나타났는데, 하위변인별로는 사회적 응집성이 3.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사회경제적 안정성이 3.22점, 사회적 역량강화 3.17점, 사회적 포용성 3.04점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보면, Abbot(2006)의 런던연구 결과는 사회적 역량강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순으로 분석되었고, 임호 등(2013)의 부산연구 결과는 사회적 역량강화,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경제적 안전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지역은 사회의 질 전체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응집성,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역량강화, 사회적 포용성 순으로 나타나 타 지역 연구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물론 런던 및 부산연구와 제주연구는,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영역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는 방식은 비슷하나, 동일한 분석방법으

로 수행한 연구가 아니므로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이 타 지역, 특히 도시지역과는 구분되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사회적 역량강화가 높게 나타나고 사회적 응집성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이 가장 높고 사회적 포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소도시로 구분되며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제주지역만의 고유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 제주지역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

제주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응집성이 높으면 만족감이 높으며, 부정적 정서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집성이 강한 사회에서 주민들이 더 행복하다는 Delhey와 Dragoliv(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그들은 부유한 사회일수록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공생과 연대, 즉 응집성이라고 보았으므로, 제주지역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지역주민의 행복을 향상시킴에 있어 사회적 응집성 향상을 주요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 지역주민의 행복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사회적 응집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응집성이 있는 지역사회는 주민들 간의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 (Lev-Wiesel, 2003: 332) 지역사회가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장이 되며(Lee, 2000), 지역사회의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형성하게 되어(Rajulton & Ravanera, 2006), 서로 다른 환경의 이웃일지라도 서로를 인정하는 유대감을 갖게 된다(McGhee, 2003: 376).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간의 응집력 형성은 지역사회가 단순히 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 사회 응집력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전반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사회 통합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만큼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 응집력이 갖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중요하다(양경이, 2009: 1-2).

이러한 요인이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제주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인 권당문화나 수놓음 정신의 영향인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제주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제로 활용한 수놓음과 권당문화 등의 전통문화 양식들을 현재 시점에 맞게 재해석 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 하여 오늘날의 제주지역 주민의 행복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면, 제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 사회적 포용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사회적 포용성은 특히 사회복지분야를 포괄하는 영역이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평가의 결과를 두고 보면,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수준은 타지역에 비해 인프라 조성이나 시설환경 및 실천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재정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1%(2017년 기준)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포용성 체감도를 낮게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된 총 462케이스 중 사회복지관련 분야 종사자가 40케이스에 불과하다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된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그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에 있어 더욱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거주기간과 행복의 관계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배우자유무,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

이고 있었다. 즉 배우자가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량강화를 높게 인식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저소득보다 고소득이 긍정적 정서경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제주거주 10년 미만의 주민이 부정적 정서경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로 미루어, 지역사회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 거주기간에 따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은 섬지역이므로 육지부의 타지역에 비해 거주지 이동이 제한적이며 정주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조사대상의 평균 제주 거주기간이 32.9년이고, 40~50년 된 거주자 또한 20%가 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토착민은 그 지역에서의 생활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쉽고, 10년 미만 거주인은 오래된 토착민에 비해 그 지역에서의 행복을 다르게 인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제주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 이주는 자연친화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반(反)도시문화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는 현대 한국사회의 병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적 실천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김민영 외, 2015: 69-70).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 제주지역에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귀농·귀촌인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서귀포시, 2017: 95-98), 제주 이주가 귀농·귀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주이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정착하여 장기적으로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온 토착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 정착민, 토착민의 구분이 아니라 같은 제주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공유를 통해서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4) 사회의 질과 행복 논의의 함의

먼저 제주지역 사회의 질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정해식, 2015: 23). 사회의 질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사회의 질은 어느 한 영역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의 질 사분면에 속하는 네 개 영역 모두가 고르게 충족될 수 있도록 전체적 틀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높게 측정된 사회적 응집성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량강화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사회통합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Saunders(2013)의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그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inson과 Ericson(2016)의 연구 또한 지역사회 자원이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듯이, 제주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의 질 접근은 농촌지역의 특성이 강한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 즉 도시지역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읍·면지역에서도 사회적 응집성이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조사결과 사회의 질 하위변인 중 유의한 변인이 동지역에 더 많은 것(배우자 유무, 고학력,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량강화)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는데(Gerdtham & Johannesson, 2001;

이미애, 2015; Tomyn et al., 2017), 제주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동지역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 주민의 거주기간이 평균 5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이주경향이 낮은 기존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또한 읍·면 단위 주민의 행복을 고려할 경우 다른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읍·면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간의 강한 연대의식과 높은 통합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 간, 주민과 리더 간 상호호혜적인 신뢰체계 구축이 필요(정기석 외, 2015: 69)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의 질 접근은 국가 단위 또는 대도시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규모가 작은 도시외곽 지역은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의 요건들을 탐색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탐구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사회에서의 행복한 삶의 추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과 지역주민의 행복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련성을 밝혀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사회의 질 및 행복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조사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개념화를 하였고 이를 통해 측정도구를 설정하였다. 조사연구는 제주지역의 읍·면과 동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율을 고려한 할당표집의 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지 500부를 배포하였고, 그중 46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과 행복의 수준을 보면, 사회의 질은 3.18점(5점 척도), 행복은 4.75점(7점 척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의 질 네 영역에 있어서는 사회적 응집성이 가장 높고, 사회적 포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지역의 특성(동지역/읍·면지역)에 따른 사회의 질과 행복의 차이를 보면, 동지역은 배우자가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으며,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량강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읍·면지역은 사회적 응집성만이 행복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회의 질 하위변인 중 유의한 변인이 동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회의 질은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사회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주지역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이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하위변인별로 요약하면, 사회적 응집성이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은 것(동지역)으로, 사회적 역량강화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동지역)으로, 사회적 응집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경험을 덜 하는 것(동지역/읍·면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지역주민의 욕구변화에 대처하는 행복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행복은 단기간의 개입으로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행복이 중앙정부의 관심사이듯이 도민행복은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사회의 질을 파악하고 도민의 행복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특히 제주사회의 변화와 주민들의 욕구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민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구집단별, 지역 및 각 분야별 행복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도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개소한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지역에는 복지재단과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연구기구가 없어 제주연구원(구 제주발전연구원)이 그 역할을 포괄하여 왔으나, 제주에 적합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할 전문연구기관으로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가 개소하였으므로, 제주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연구들을 통해 제주형 사회복지정책과 실천방안들이 도출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지역의 사회적 응집성 특징을 활용한 주민 행복수준 향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행복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응집성은 신뢰(행정서비스 및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이타성(봉사활동), 사회적 관계망(사회참여), 자긍심 및 소속감을 하위요건으로 측정되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 특유의 권당문화와 수놓음 등이 지역단위에서 발휘되어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이것이 사회적 응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활동과 현대적인 의미의 권당과 수놓음을 접목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현대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1인가구의 증가를 가져와 최근에는 ‘사회적 가족’의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믿을 수 있는 이웃사촌의 의미로 권당문화를 활용하고 상부상조의 의미로 수놓음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적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응집성을 강화함으로써 행복의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제주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총 2개의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43개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초생활 단위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및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각 읍·면·동의 물적 및 인적자원의 차이 및 지역특성의 차이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협의체도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시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는 해당 시의 읍·면·동협의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2개의 시협의체가 43개의 읍·면·동협의체를 지원하는 것은 무

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43개 읍·면·동협의체가 때로는 ‘자조(自助)’하고 때로는 ‘공조(共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민간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므로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지역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포용성 및 사회적 역량강화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질 사분면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의 차원 중,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사회적 역량강화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사회적 포용성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역량강화 차원은 지식기반, 정보접근성, 교육환경, 문화 및 여가활동 여건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질 높은 교육수준과 환경조성,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 문화적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하였듯이 제주는 섬지역의 특성상 사회적 역량강화가 취약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의 인구유입 급증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제주를 ‘열린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및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어 사회적 역량강화의 수준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읍·면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특히 읍·면지역의 인구·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문화 및 여가활동 여건, 정보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포용성은 위기 시 도움, 돌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등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특히 사회복지 분야를 포괄하는 부분이다.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예산 수준이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할 정도로 타지역에 비해 낮은 것이 사회적 포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도의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배타성도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하였듯이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 4·3의 역사적 경험 등을 통해 외부인에 대한 배타주의적 성향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진 만큼 이를 극복하고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과의 공존을 모색함으로써 토착민, 정착민의 이원적 구분이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주민의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옹호활동 및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Haller와 Hadler(2006)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의 조건과 개인의 특성이나 희망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므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복의 조건들을 어떻게 조성하고 충족시켜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복지를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 옹호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정, 결혼이주민 및 노동이주민 등의 다문화가정, 그리고 제주이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편의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의 보완을 위해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회의 질은 지역사회 전체의 영역에서 사회의 질 하위목록에 따르는 지표를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전체 제주지역 차원의 사회의 질을, 사회의 질 이론 하위목록에 따른 지표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 주민의 행복의 수준을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의 질 관점의 접근이 제주지역에 있어서는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지닌 읍·면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행복의 요건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복의 측정에 있어서, 행복수준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행복수준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주민의 행복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향후의 행복연구는 다차원적이고 다학제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복은 다차원적인 측면이므로 행복의 조건을 둘러싼 학계의 의견은 다양하다.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행복을 결정짓는 다양한 변인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행복의 메커니즘은 논란의 대상이자 탐구의 대상이다. 이는 인간의 행복이 단순히 개인 수준의 변인들로만, 혹은 사회 수준의 변인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순한 심리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은 다양한 수준의 변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결과물(변미리 외, 2015: 19)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학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른 사회과학 학문 분야에 비해 행복연구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듯하다. 향후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행복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다

양한 이론과 방법론이 논의되고, 그것이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각 영역에서 활발히 적용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쟁과 부의 추구로 소수의 행복을 위한, 좌절된 욕구가 많은 박탈된 사회환경이 아니라 사회의 질 관점이 제시하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량강화가 골고루 충족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발전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경숙·안미정. 2015. 『<제주여성의 삶 : 일·가족·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재정·조부연. 2013. “사회적 질에 대한 만족도가 제주도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44: 145-174.
- 강창민·양기근. 2010.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 2010. 『제주지역 사회통합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 201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의 현실과 향후 과제”. 제주발전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연구교류 협약 체결 및 공동세미나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방향과 과제> 자료집.
- 고승희·홍성효. 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남발전연구원.
- 고태호·고승한·강창민·엄상근. 201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제주발전연구원.
- 구재선·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5-166.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이슈모니터링 vol.3.
- 권순도. 2013. 『도농복합 도시의 불균형발전 원인에 관한 연구 -용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6. 『긍정심리학 - 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 김광석. 2014. “무엇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OECD ‘Better Life

- Index'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및 국제 비교”. 『보건복지포럼』 . 8: 89-99.
- 김경동·김영태·김옥·김재호·김형준·박명호·이남영·이유진·이정진·이현우·장원호. 2007.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복지재단.
- 김기덕. 2009. “사회복지적 행복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 심포지움 <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논문집. pp.293-305.
- 김동영·이중섭·이지훈. 2016. “전북도민 행복도와 정책연계방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vol.148.
- 김명소.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1-33.
- 김민영·최현. 2015.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50: 39-78.
- 김민한. 2014. 『기초단체장의 특성이 지역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옥. 2000. 『제주통사』. 제주학총서 6. 제주발전연구원.
- 김상곤·김성중. 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325-351.
- 김승권·장영식·조흥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태. 2009.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13(1): 24-45.
- 김정호·유제민·서경현·임성건·김선주·김미리혜·공수자·강태영·이지선·황정은. 2009.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보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87-205.
- 김흥식. 1983. “제주도의 집과 마을”. 『한국의 발견 : 제주도』. 뿌리깊은 나무.

- 김희삼. 2014. “비교성향의 명암과 시사점”. 『KDI 포커스』. 통권 제44호 (2014. 8. 12).
- 김희재·조정래. 2009. 『한국 사회 구성원의 행복 요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4B): 1967-1977.
- 김혜숙. 2006. “가족과 권당”, 『제주도지』. 제주도.
- 김혜숙. 1993a. 『제주도 가정의 혼인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3b.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 마틴 셸리그만 저. 김인자·우문식 역. 2014. 『긍정심리학』. 물푸레.
- 문수백. 2012.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 문순덕·염미경. 2014. 『제주 이주민의 지역 정체성 정립에 관한 기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박성환. 2005. “고전 사회학에 나타난 근대사회의 ‘행복’논리”. 『한국사회학』. 39(3): 1-33.
- 박승규·박진경·조창덕. 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승규·김선기. 2014. 『도시경쟁력과 행복결정요인에 따른 지역발전방안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재환. 1977. “인간상호작용에 관한 제주도민의 사회의식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제주대논문집』. 9: 609-635.
- 변미리·최정원·박민진·이혁준. 2015. 『메가시티의 삶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 배은석·박해금. 2016.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촌 지역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173-199.
- 백종만·감정기·김찬우. 2015.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 부만근. 2012. 『제주개발사』. 제주발전연구총서 13. 제주발전연구원.
- 브루노 프라이·알로이스 스테처. 2008. 『경제학, 행복을 말하다』. 김민주·정나영 옮김. 예문.
- 서귀포시. 2014. 『제3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 서귀포시. 2017. 『행복가득 서귀포를 아시나요? - 2017 서귀포시 안내』.
- 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특별심포지엄 <한국인의 행복 및 정신건강 지수: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 213-232.
- 서은국·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소병철. 2011. “인간 행복의 사회적 가능조건에 관한 소론”.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시민인문학』. 20: 69-93.
- 손지현·류기형·송영지·배은석·박해금. “지역문제 인식이 지역사회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의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153-179.
- 신행철. 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출판부.
- 안상훈·정해식. 2010. “복지지위와 ‘사회의 질(SQ)’”. 한국사회정책. 17(3): 93-121.
- 양경이. 2009. 『지역사회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on). 2006.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박시종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유철인. 1984. “일상생활과 도서성 :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1: 119-144.
- 윤용택. 2010. “제주섬 생태문화의 현대적 의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37: 317-352.

- 이광규. 1974.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제주도편).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제1편.
- 이내찬. 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 이미애. 2015. “사회적 질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3): 271-281.
- 이상철. 1996. “제주도의 개발과 사회문화 변동”. 탐라문화 학술심포지엄 자료 『제주의 사회와 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23-36.
- 이성규.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원.
- 이수정·안신호. 2005.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 개관”. 『심리과학연구』. 4: 123-143.
- 이승철. 2014. “구미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과 향상 방안 - 종단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8(3): 109-133.
-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2): 3-29.
- 이재열·구혜란·남은영·정해식·안상훈·정병은·김주현·정민수·조병희·정진성. 2015. 『한국사회의 질』. 한울아카데미.
- 이재완. 2016.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7: 2-4.
- 이화진. 2016.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훈희. 2016. “한국인의 행복, 진단과 과제”.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2016-4호.
- 이희길·심수진. 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 임호·오재환·이정석. 2013. 『도시발전을 위한 소프트 혁신 전략 -시민행복과 사회의 질을 중심으로』. 부산발전연구원.
- 전상인. 2008. “앵그리 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76: 30-40.
- 전지훈. 2016. 『공동체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마을기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기석·안숙영. 2015.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제주지역 농촌공동체 활력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정진성·박경숙·이재열·장덕진·장상철·고형면·장진호·이원재·안정옥. 2010. 『사회의 질 동향 2009』.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해식. 2015.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 통합 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 3: 23-35.
- 정해식. 2016.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UN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17호(2016).
- 정흥원. 2014.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실화”. 『보건복지포럼』. 2014. 2: 2-3.
- 제주발전연구원.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정책이슈브리프 No.223.
- 제주발전연구원. 2016. <2016 고령사회포럼> 자료집.
- 제주시. 2014. 『제3기 제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 제주특별자치도. 2015. 『숫자로 알아보는 제주이야기』.
- 제주특별자치도. 2016a. 『2016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 제주특별자치도. 2016b. 『제주특별자치도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도 연차별 시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14. 『제3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 조권중·변미리. 2009. 『서울 도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연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 조혜정. 1989. “‘발전’과 ‘저발전’: 제주해녀사회의 성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진관훈. 2013. 『사회적 자본과 복지거버넌스』. 도서출판 각.
- 최말옥·문유석. 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연구』. 15(1): 277-297.
- 최영출·이지혜. 2013. “지역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21-37.
- 최영출. 2014.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과 행복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자
치행정학보』. 28(1): 1-23.
- 최재석.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 최협. 2006. 『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선인.
- 채구묵. 2014.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양서원.
- 현용준. 1979. “민속을 통해서 본 탐라정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
정신세미나 자료.
- 현용준. 1986.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제주시.
- 호남지방통계청제주사무소. 2015.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 홍병선. 2011. “행복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시민인문학』. 21: 83-110.
- 황경수·남진열·오승호·하승수. 2008.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읍·면지

- 역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 조사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황규선. 2012.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황명진·심수정. 2007. 『행복지수 개발 : 지표체계안』. 통계청 통계개발원.
- 황종석. 2016. 『주민행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10. 8. 18. “중앙일보·심리학회 공동기획-‘한국인 맞춤형 행복지수’ 첫 조사” 기사.
- Abbot, P. 2007. “런던에서의 사회적 질, 삶의 질과 행복”.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복지재단.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GDP의 한계와 행복지수에 대한 다양한 논의”, KB daily 지식비타민(2012-100).

■ 국외문헌

- Andrew, F. M. and S. B. Whithey.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Antinyan, A. 2016. “Reference Group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Empirical Evidence from Low-Income Transition Econom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Jul2016. 127(3): 1333-1348.
- Backman, Y. 2016. “Circles of Happiness: Students' Perceptions of Bidirectional Crossover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4): 1547-1563.
- Ball, R. and K. Chernova. 2007. “Absolute Income, Relative

-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 497-529.
- Beck, W., L. J. G. van der Maesen and A. Walker. 1997. “Social Quality : from issue to concept”. pp.301-340. in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eds. W. Beck, L. J. G. van der Maesen and A. Walker. Bristol: The Policy Press.
- Beck, W., L. J. G. van der Maesen, F. Thomese and A. Walker. 2001. *Social Quality : A Vision for Europ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rger-Schmitt, R, and H-H. Noll. 2000. Conceptual Framework and Structure of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Euroreporting Working Paper(No.9). Mannheim: Center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ZUMA).
- Bericat, E. 2014. “The Socioemotional Well-Being Index (SEWBI): Theoretical Framework and Empirical Operationalis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9(2): 599-626.
- Bok, D. 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rtner, R. W. and D. F. Hulstsch. 1970. “A Multivariate Analysis of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25(1): 41-47.
- Bradburn. N. and Caplovitz, 1965. *Report on Happiness. A Pilot Study of Behavior Related to Mental Health*.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Bradburn. N.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Bravi, M. and M. Sichera. 2016. “Valuing environmental and

- social quality impacts on Subjective Well-Being". *Aestimum*, Vol. 68: 5-28.
- Camfield, L. and S. M. Skevington. 2008. "On Subjective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6): 764-775.
- Campbell, A., P. E. Convers, W.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unt, B., J. Franklin, N. Brodaty and H. Brodaty. 2013. "Exploring the Causes of Subjective Well-Being: A Content Analysis of Peoples' Recipes for Long-Term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2): 475-499.
- Daatland, S. O. and K. Herlofson. 2003. "'Lost solidarity' or 'changed solidarity': a comparative European view on normative family solidarity." *Ageing & Society* 23: 537-560.
- Dai, B., Z. Baoshan and L. Juan. 2013. "Protective Factors for Subjective Well-being in Chinese Older Adults: The Roles of Resources and Activ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225-1239.
- Delhey, J. and G. Dragolov. 2016. "Happier together. Social cohe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1(3): 163-176.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3: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103-157)
- Diener, E., E. M. Suh, R. E. Lucas, and H. L. Smit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3.

- Diener, E. and R. Biswas-Diener. 2008. *The science of optimal happiness*. Boston: Blackwell Publishing.
- Diener, E. and L. Tay. 2015. "Subjective well-being and human welfare around the world as reflected in the Gallup World Poll".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0(2): 135-149.
- Dolan, P., P. Peasgood and M. White.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 94-122.
- Eid, M. and R. J. Larsen. 2008.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pp.89-125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witz*, eds.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New York and London: Academic Press.
- Erikson, R. 1993. "Description of Inequality: The Swedish Approach to Welfare Research". pp. 67-83. in *The Quality of Life*. eds. M. Nussbaum and A. S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o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on, G., D. Gallie, A. Hemerjick and J. Myles.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Eunju Y., Lee, Richard M. and Goh, Michael. 2008.

“Acculturation, Social Connected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3): 246-255.

Fairweather, A., B. Roncevic, M. Rydbjerg, M. Valentova and M. Zajs. 2015. "Reconceptualization of Social Quality." pp.16-36 in *Social Quality Theory - A New Perspective on Social Development*, eds. K. Lin and P. Herrmann. Berghahn books.

Frey, B. S. and Stutzer, A.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rijter, P. and T. Beatton. 2008.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Working paper number 26. Ncer Working Paper Series.

Fromm, E. 1994. *Escape from Freedom*. Holt McDougal.

Glatzer, W. 2006. "Quality of Life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vidence from Comprehensive Indic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 169-188.

Goldman, A. 2017. "Happiness is an Emotion". *Journal of Ethics*. 21(1): 1-16.

Gudmundsdottir, D. 2013.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3): 1083-1101.

Guillen-Royo, M. and T. Kasser. 2015. "Personal Goals, Socio-Economic Context and Happiness: Studying a Diverse Sample in Peru".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2): 405-425.

Hagerty, M. R. and R. Veenhoven. 2003. "Wealth and Happiness".

-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 1-27.
- Haller, M. and M. Hadler. 2006.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169-216.
- Helliwell, J. F., R. Layard and J. Sachs. 2012. *World Happiness Report*.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 Hermann, P. 2004. *Empowerment - processing the processed*.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European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msterdam: February, 2004.
- Hermann, P. 2005. "Empowerment - The Core of Social Qua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1/2): 289-299.
- Herrero, J., F. Asur and G. Enrique. 2011. "Covariate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Latin American immigrants in Spain: the role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7): 761-775.
- Hiroi, Y. 2015. "Vision of the Sustainable Welfare Society: Extending Social Quality into an Asian/Developmental Context." pp.147-159 in *Social Quality Theory - A New Perspective on Social Development*, eds. K. Lin and P. Herrmann. Berghahn books.
- Hiroi, Y. 2007. "Possibilities of Sustainable Welfare Societies in Asia." pp.51-72 in *The Second Asian Conference on Social Quality and Sustainable Welfare Societies*. Taipei: National Taiwan University.
- Hobson, B., J. Lewis and B. Siim(eds). 2002. *Contested concepts in*

- gender and social politics*. Edward Elgar.
- Hochschild, A. R. 2003.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Note from home and w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oghe, M. 2012. "I'm Happy, Hope You're Happy Too".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1): 17-29.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vanović, Veljko. 2016.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Serbia".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98: 284-288.
- Kahneman, D. 2005. "Objective Happiness" in *Well 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eds. D. Kahneman, E. Diener and N. Schwarz. Russell Sage Foundation.
- Kaldor, P. 1984. *Winds of Change*. Anzea, New south Wales: Homebush.
- Klein, C. 2013. "Social Capital or Social Cohesion: What Matters For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3): 891-911.
- Kurian, R, and C. Uchiyama. 2012. "Models of Elderly Care in Japan and the Netherlands: Social Quality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Quality* 2(1): 74-88.
- Lane, R. E. 2001. *The Loss of Happiness in Market Econom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Penguin Press.
- Lee, M. R. 2000. "Community Cohesion and Violent Predatory Victimization: a Theoretical extension and Cross-National

- Test of Opportunity Theory". *Social Forces*. 79(2): 683-706.
- Lev-Wiesel, R. 2003. "Indicators constituting the construct of perceived community cohesio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8(4): 332-343.
- Lin, K. 2015. " The Prototype of Social Quality Theory and Its Applicability to Asian Societies." pp.65-77 in *Social Quality Theory - A New Perspective on Social Development*, eds. K. Lin and P. Herrmann. Berghahn books.
- Lin, K. and P. Herrmann, eds. 2015. *Social Quality Theory - A New Perspective on Social Development*. Berghahn books.
- Lin, K., L. van der Maesen and P. Ward. 2009. "Social Quality Theory in Perspective." *Development and Society* 38(2): 201-208.
- Matsushima, M. and Y. Matsunaga. 2015.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Japan. *Voluntas*". 26: 1016-1045.
- McGhee, D. 2003. "Moving to 'our' common ground - a critical examination of community cohesion discourse in twenty-first century Britain". *The Sociological Review*. 51(3): 376-404.
- Michalos, A. et al., 2011. *Canadian index of Wellbeing*. Technical Report. 1.0. Waterloo. On: Canadian index of Wellbeing and University of Waterloo.
- Moberg, D. O. and M. J. Taves. 1965. "Church Participation and Adjustment in Old Age". pp. 113-124 in *Old People and Their Social World*. eds. A. M. Rose and W. A. Peterson. Philadelphia: F. A. Davis.
- OECD. 2005. *Society at a Glance 2005: OECD Social Indicators*.

- Paris: OECD Publications.
- OECD. 2007. *Society at a Glance 2005: OECD Social Indicators 2006 edition*. Paris: OECD Publications.
- OECD. 2011. *How's Life? :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cations.
- OECD Better Life Initiative. 2015. *How's Life in Korea*. OECD .
- Ponocny, I., C. Weismayer, B. Stross and S. Dressler. 2016. "Are Most People Happy? Exploring the Meaning of Subjective Well-Being Rating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6): 2635-2653.
- Potts, J. 2011. "The Use of Happiness in Society". *Policy*. 27(1): 3-10.
- Puntscher, S., C. Hauser, J. Walde and G. Tappeiner. 2015.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Subjective Well-Being: A Regional Perspective". *J Happiness Stud*. 16: 1231-1246.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huster.
- Rajulton, F. and Z. J. Ravanera. 2006. "Measuring Social Cohesion: An Experiment Using The Canadian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 461-492.
- Russell, J. A. 1980. "A circumplex mod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8.
- Samuel, R. and A. Hadjar. 2016. "How Welfare-State Regimes Shape Subjective Well-Being Across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9(2): 565-587.
- Sarracino, F. 2012. "Money, Sociability and Happiness: Are

- Developed Countries Doomed to Social Erosion and Un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9(2): 135-188.
- Schokkaert, E. 2007. “Capabilities and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8(3): 415-430.
- Seligman, M. E. P. 2006.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pp.3-12 in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eds. C. R. Snyder and S. J. Lopez.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pp.30-53 in *The Quality of Life*. eds. A. Sen and M. Nussbau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pruk, R. and A. Kes̃eljevic. 2016. “Institutional Origins of Subjective Well-Being: Estimating the Effects of Economic Freedom on National Happiness”. *J Happiness Stud*. 17:659-712.
- Stutzer, A. 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4: 89-109.
- Therborn, G. 2001. “On the politics and policy of social quality”. pp.19-30. in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eds. W. Beck, L. J. G. Van der Maesen, F. Thomése and A. Walker.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Tomyn, A., J. D. Mellor, F-T. Matthew, R. A. Cummins and R. Tanton. 2017. “Geographic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mong Indigenous and Non-Indigenous Australia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Jan 2017. 45(1): 81-99.

- Unanue, W., D. Martínez, M. López and L. Zamora. 2017.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Measuring the Progress of Nations and Guiding Public Policy". *Papeles del Psicólogo*. 38(1): 26-33.
- Valentini, F., S. Amorim and L. França. 2017. "Predictors of happiness among retired from urban and rural areas in Brazil". *Psicologia: Reflexão e Crítica*. 30(1): 1-8.
- Van der Maesen, L. and A. Walker. 201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pp.38-50. in *Social Quality Theory - A New Perspective on Social Development*, eds. K. Lin and P. Herrmann. Berghahn books.
- Veenhoven, R. 1993. *Happiness in Nations: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Nations 1946-1992*. Rotterdam: Erasmus University press.
- Veenhoven, R.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Veenhoven, R.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1-3): 33-46.
- Vinson, T. and M. Ericson. 2014. "The social dimension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Australians: Evidence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3(3): 240-253.
- Walker, A. and L. van der Maesen, 2004.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pp.13-31 in *Challenges for Quality of Life in the Contemporary World*, eds. W. Glatzer, S. von Below and M. Stoffregen. The Hagu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Walker, A. and C. K. Wong, eds. 2005. *East Asian Welfare Regimes in Transition: From Confucianism to Globalization*. Bristol: Policy Press.
- Walker, A. 2009. "The social quality approach: Bridging Asia and Europe". *Development and Society*. 38(2): 209-235.
- Walker, A. 2015. "Social Quality and Welfare System Sustainability". pp.51-64 in *Social Quality Theory - A New Perspective on Social Development*, eds. K. Lin and P. Herrmann. Berghahn books.
- Ward, P. and S. Meyer. 2009. "Trust, social quality and wellbeing: A sociological exegesis". *Development and Society*. 38(2): 339-363.
- Witt, D. D., G. D. Lowe, C. W. Peek and E. W. Curry. 1980. "The Changing Association Between Age and Happiness: Emerging Trend or Methodological Artifact?". *Social Force*. 58(4): 1302-1307.
- Witter, R. A., M. A. Okun, W. A. Stock and M. J. Haring. 1984. "Edu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6: 165-173.
- Wyshak, G. 2016.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New Insights from Relatively Healthy American Women, Ages 49-79". *PLoS ONE*. 11(2): 1-16.
- Yee, J. and D. Chang. 2011. "Social Quality as a Measure for Social Progress." *Development and Society* 40(2): 153-172.
- Yuan, H. and M. Golpelwar. 2013. "Testing Subjective Well-Being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Quality: Quantile Regression Evidence from Shanghai, Chi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1): 257-276.

Zotova, O. Y. and L. Karapetyan. 2015. "Occupation as a factor of personality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y in Russia. State of the Art*. 8(2): 127-136.

Zuzanek, J. and T. Zuzanek. 2015. "Of Happiness and of Despair, Is There a Measure? Time Use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4): 839-856.

■ 인터넷자료

<http://www.socialquality.org> (IASQ : International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http://oecd.mofa.go.kr>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http://oecdbetterlifeindex.org>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 (부탄 GNH)

<http://www.ons.gov.uk> (영국 통계청)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http://100.daum.net> (다음백과사전)

<http://jeju.grandculture.net> (디지털 제주시문화대전)

<http://seogwipo.grandculture.net>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2608_2892.html(문세영, 2017. 3. 28. "행복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까")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부록 1. 설문지

ID			
----	--	--	--

제주 사회의 질 정도와 지역주민 행복지수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사회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숫자와 부호로 전환되어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7년 3월

- 연구자 :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교수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지도교수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송식
- 연락처 : 000-0000-0000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의 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영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도 반대 도 아니 다	대체 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경제	1-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물가는 비싸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 교육	2-1) 주변에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방문객이 찾아왔을 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복지	3-1) 장래에 나 또는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좋은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및 보호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건강관리 환경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안전	4-1) 밤에 거리를 다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교통사고, 재해·재난 등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생태 환경	5-1)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기오염은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생활 환경	6-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2) 이웃 및 친구 등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장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3) 걸어서 식료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게에 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행정 서비스	7-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얻는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7-2) 관공서(제주시/서귀포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7-3) 관공서(제주시/서귀포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의 행정은 투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공동체 생활	8-1) 이웃 및 주변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2)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마련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대체로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10.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②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자랑스럽다 ⑤ 매우 자랑스럽다

11.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행복하다 ⑤ 매우 행복하다

13.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떠올려 주십시오. 그 후,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에 제시된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느끼지 않았다	보통이다	항상 느꼈다
13-1) 즐거움			
13-2) 행복함			
13-3) 편안함			
13-4) 짜증			
13-5) 부정적 기분			
13-6) 무기력함			

다음은 귀하의 신상에 관한 것으로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14.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15.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아온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5-1) 제주도에서 살았던 총 기간 _____년

15-2)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거주기간 _____년

16.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세

17.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18.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배우자와 동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⑥ 기타 ()

19.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없음 ⑥ 기타 ()

20. 귀하의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중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⑥ 기타 ()

21. 귀하의 직업은?

① 농/축/수산업 ② 전문직/관리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판매직 ⑤ 기능/단순노무직 ⑥ 사회서비스 관련
⑦ 주부 ⑧ 학생 ⑨ 무직(정년퇴직 포함)
⑩ 기타 ()

22.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사회의 질 하위지표 목록

▶ 사회경제적 안전성		
대분류	소분류	지표들
재무적 자원	소득의 충분성	-항목별 가구소득 지출
	소득의 안전성	-생애 사건이 가구의 빈곤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 -소득 및 자산조사 대상자중 현금과 현물 복지수급자 비중
주거와 환경	주거안정성	-점유 주택형태(자가 소유 비중) -불안정가구, 다세대 가구
	주거조건	-1인 기준 주거 공간 -시설형태별/난방방식별 가구비율
	사회환경 및 자연환경 조건	-유형별 범죄발생 건수 -환경오염도 (공장인근 영향받은 면적에 대한 데이터)
건강과 돌봄	의료시설 안전성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 급여수준 의 포괄성(본인부담률, 비급여의료 정도)
	의료서비스	-1만 명당 의사 수 -의료기관 수 -응급상황 대처
	돌봄서비스	-유급/무급 돌봄서비스 비중
노동	고용안전성	-해고가 아닌 노동계약 변경 전 고지기간 -해고시 사전 고지기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불법채류자
	노동조건	-육아휴직, 병가 등을 이유로 휴직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상자 중 실제로 실행한 비율 -1만 명당 산재 건수 -주당 (정규직 full timer) 노동시간
교육	교육안정성	-학업중단을 (%) -가구당 교육비 지출 비중 및 액수
	교육의 질	-졸업생취업률 (%)

▶ 사회적 응집성		
-----------	--	--

대분류	소분류	지표들
신뢰	일반적인 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받는다고 느끼는 정도 -정부, 국회의원, 정당, 군대, 사법부, 언론, 노동조합, 종교집단, 시민단체 등에 대한 신뢰 -유럽연방재판소로 넘어가는 사건의 비율 -가족, 친구, 여가, 정치, 부모, 자녀의 중요도
통합적 규범 및 가치	이타성	-요일평균 자원봉사 시간 -헌혈
	관용성	-이민, 다원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타인의 삶의 방식에 관한 관용도
	사회계약	-가난에 대한 귀인 :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증액 -노인연금 증액을 위한 세금 인상 -소속된 커뮤니티 내에서 실용적 행동을 돕고자 하는 의지 -가사분담
사회 관계망	관계망들	-자발적인 사회참여 (정치단체, 자선단체, 자원봉사, 스포츠 등)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의 지원 -가까운 친구, 동료와의 연락빈도
정체성	국적/아시안	-국가 자긍심 -아시아인으로서 자긍심
	지리적 단위별 소속감	-지리적 단위별 (광역, 시군구, 읍면동 등) 소속감
	대인관계 소속감	-가족 및 친족 소속감

▶ 사회적 포용성

대분류	소분류	지표들
시민 권리	헌법상/정치적 권리	-거주자 중 시민권자의 비율 -지방선거의 투표권 보유자 비율 및 투표율
	사회적 권리	-공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 -성별 임금격차
	시민권리	-무료법률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경제 및 정치적	-의회 및 사기업과 재단의 이사회에 선출되거나 지명된 소수인종의 비율

	관계망	-의회 및 사기업과 재단의 이사회에 선출되거나 지명된 여성의 비율
노동 시장	급료를 받는 일자리에 접근 가능성	-(12개월 이상) 장기실업률 -비자발적인 임시직 또는 비상근 근로자의 비율
사회 서비스	보건서비스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가진 사람의 비율과 가입자의 비율
	주택공급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의 비율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
	교육	각급 학교 취학률과 진학률
	사회적 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비율 -돌봄서비스(보육서비스 포함)를 제공받기 위한 평균 대기기간
	금융서비스	-수입 집단별 신용거부자의 비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교통	-공공교통수단에 접근 가능한 사람의 비율 -공공교통수단의 조밀도와 도로혼잡도
	시민/문화 서비스	-1만 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1만 명당 문화예술시설 수
사회 관계망	이웃과의 접촉	-이웃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의 비율
	친구관계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의 비율
	가족생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친인척과의 접촉 빈도 -가족 이외의 사람들로로부터의 비공식적(비금전적) 지원

▶ 사회적 역량강화

대분류	소분류	지표들
지식 기반	지식의 응용	-지식에 기반을 둔 사회이동 정도 (공식적 자격(학력) 기준)
	정보의 이용가능성	-비문해율 -미디어의 자유로운 이용가능성 -인터넷 액세스
	정보의 사용자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는가

	친화성	-번호, 상담, 안내 센터의 자유로운 이용가능성
노동 시장	고용계약에 대한 통제	-노동력 가운데 노동조합원의 비율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구별) -단체협약 적용 범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구별)
	직업 이동의 가능성	-취업자 가운데 재직 직업훈련자 비율 -공공직업훈련을 이용하고 있는 노동력의 비율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일/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들의 비율 -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실제 사용하는 취업자의 비율
제도의 개방도 및 지원 정도	정치제도의 개방성과 지원체계	-심의와 직접 민주주의 과정들의 존재 (예, 국민투표)
	경제제도의 개방성	-주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참여 사례 숫자 (예: 기업이전, 역내 투자, 공장폐쇄에 관한 공청회)
	조직의 개방성	-직장위원회가 있는 조직/기관의 비율
공적 공간	집합행동에 대한 지원 체계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발의를 위해 배정된 전국 및 지방 수준 공공예산의 비율 -지난 12개월간 일어난 전체 시위, 행진(개최+금지) 가운데 금지된 것의 비율
	문화적 고양	-모든 문화활동을 위해 배정된 지방 및 전국 수준의 예산 비율 -자발적으로 조직된 문화단체와 활동 숫자 -다양한 형태의 사적인 문화고양 활동을 정기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의 비율
사적 관계	신체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전국 및 지방수준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배정된 예산 비율
	개인지원 서비스	-취학 전, 취학 후 아동보육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지원	-주거 및 환경 설계의 포용성 (예: 만남을 위한 공간, 조명, 설계)

※ 출처 : 정진성 외. 2010. 『사회의 질 동향 2009』,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9-14. 수정.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Quality and Happiness

- Focusing on Jeju Province -

Ko Su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ocial quality of Jeju and the happiness level of the local residents,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social quality and happiness, discuss the implications,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 happier community. To that end, a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were conducted. The details of the scope and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literature review section, the concept of happiness is

considered and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are examined both by country and by region. In addition, foundation background, meanings, and major requirements of the social quality theory are investigated. The usefulness, in terms of social quality, of the study of community happiness is also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the subject of this study, are also taken into account.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social quality in four aspects: Socio-economic Security,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and Social Empowerment.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nalyzed to identify which aspect of life among the four is important in Jeju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Dong" and "Eup·Myeon" areas. To that end, 5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adopting the quota sampling method considering the ratio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both "Dong" and "Eup·Myeon" on the province were distributed. Of the 500 distributed, 462 copies were analyzed. SPSS 22.0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MOS 22.0 was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relation of each variable.

The summaries of major finding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social quality and happiness level of Jeju, the results reveal that the social quality is 3.18 (five-point scale) while the happiness level is 4.75 (seven-point scale). Among the four aspects, Social Cohesion shows the highest score whereas the score in Social Inclusion was the lowest.

Second, as for the differences regarding the social quality and the happiness leve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Jeju (Dong/Eup·Myeon), those living in "Dongs" with spouses and high educational levels feel happier. Moreover,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Social Empowerment is, the

happier the residents feel. However, the results are different in "Eup·Myeons" in that only Social Cohesion can explain the sense of happiness. Considering that "Dongs" have more meaningful variables among the sub-variables of social quality, it can be assumed that social quality has a greater influence on "Dongs" than "Eup·Myeons."

Third, considering the impact social quality has on happiness, Social Cohesion i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influences happiness in both "Dongs" and "Eup·Myeons" on Jeju. The summary of the results by sub-variable shows that the higher the Social Cohesion, the higher the sense of satisfaction (in "Dongs"). Additionally, that the higher the Social Empowerment is the more positive influence it has on emotional experience (in "Dongs"), and that the higher the Social Cohesion is the less negative impact it has on emotional experience (in both "Dongs" and "Eup·Myeons").

The followings are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irst, as a feature of social quality of Jeju, across the entirety of social quality, happiness is influenced in the order of Social Cohesion, Socio-economic Security, Social Empowerment, and Social Inclus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findings of other regions.

Second, as for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quality and happiness on Jeju, when Social Cohesion is high, the local residents feel more satisfied and undergo less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As a result, in order to boost the happiness of the local residents, it may be necessary to adopt a strategy to improve Social Cohesion. It is also essential to consider whether such a factor is an impact of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Jeju.

Third, looking into the relation between the residence period and happiness, si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ose living on the province less than 10 years relatively have less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an intervention should be employed according to the length of

residence on Jeju in order to improve the happiness of the local community.

Fourth, efforts need to be made to enhance the overall level of the social quality of Jeju. When discussing social quality, it is important to take the entire framework into account to satisfy all four areas of social quality as considering only one area is not appropriate when it comes to judging social quality.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poli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can be made as follows.

Firstly, a happiness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deal with changes in the desire of Jeju resident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atabase by developing and regularly measuring the happiness index for local residents which reflects the unique properties of Jeju.

Secondly, measures to improve the happiness level of local residents that draws on the features of Social Cohesion of Jeju should be developed.

Thirdly, efforts to raise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Social Empowerment should be mad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first strive to secure additional social welfare funding, which is currently at a relatively low level compared with other regions. Along with additional funding,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non-natives moving to the Jeju island, a major effort should be made to help native people and non-natives to coexist

Lastly, social workers need to provide support and make a practical intervention to raise social quality of the local residents. Social workers have to support the local residents so that the residents can perceive welfare as their right. The social workers must do their best to develop a program that helps the local residents of various circumstances feel happy while living in the community.